예술의
○○○
사회적
✳✳✳
실천
✳✳
방향과
○○○
저변
✳✳
확대를
✳✳✳
위한
○○
라운드테이블
✳✳✳✳✳✳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이 책은 서울문화재단 2018년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 연구〉(2차년도) 결과물입니다.

기획·총괄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모더레이터 안영노
기록 한아타
보고서 작성 안영노, 한아타

요약

○ 연구 배경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층위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주체들에 의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들이 발현되고 있다.

—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현장에서도 여러 정책 분야와 어우러져 예술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예술활동들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결부되어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한편으로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혹은 사회적 가치 확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1차년도인 2017년 연구 결과로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경향성, 속성 등의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고, 2차년도 연구인 2018년에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규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 및 향후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게 되었다.

○ 연구 목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개념 규정 및 범주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원정책 및 진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사례를 도출하려 한다.

○ 후속 라운드테이블에서 도출한 주요 내용

— 정의의 무용성, 규정 부작용에 대한 지적: 예술 앞에 '사회적'이란 개념을 적용하면 의미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동의 폭이 좁아진다.

—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유용성 언급: 새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열린 정의가 중요: 엄격한 잣대로 창의적인 현장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설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열린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넓은 지향성을 전달할 수 있다.

— 다원적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안: 소통예술, 과정으로서의 예술,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 삶과 사회를 예술적으로 바꾸는 예술,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고 이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예술 등을 지원사업 공모 시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연구 결론**

— ‘사회적 예술(활동)’, ‘예술의 사회적 활동’ 등의 표현보다는 ‘예술가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예술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예술과 사회의 성찰적 연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적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등으로 표현을 바꾸고 그 함의를 넓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

— 공공재, 소셜 임팩트, 지역사회와 주민 공동체에 집중하는 예술활동 등 핵심 용어를 제시해야 하며, 과정과 관계, 교류와 협력,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실천할 때 필요한 부수적 개념들 역시 고찰해 보아야 한다.

—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년 선정 방식을 채택하고, 포괄적인 지침과 다양한 현장 사례의 예시를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그러한 지원사업을 심사할 경우, 선정의 기준 역시 포괄적, 개방적으로 열린 방식을 취하며, 평가의 방향 또한 사회적인 영향 및 문화적 역량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지역 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평가하는 툴을 개발해야 한다.

— 장르나 매체로 분류하거나 해당 분야의 유형을 판단하기보다 문화기획자, 사회적 기업, 공공예술가 등 활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잠재력을 가진 현장활동을 육성하고, 개인과 단체,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

— 기존 예술가 외에도 지역 활동가, 사회 혁신가, 개인 창작자,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 여러 활동 영역을 열어 두고 그 주체들의 사업 취지와 의도 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지원사업에서는 유형을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크게 예술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방식,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식,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사후 정책적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디폴트(default)’, 즉 반드시 필요한 기본값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어야 한다.

— 사회혁신, 사회개선, 사회적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결핍 해소 등 사회적 경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기업 분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제는 통합예술을 넘어 융합적 예술활동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참여라는 말보다는 융합과 공동체(collective), 협업(collaboration) 등에 초점을 둔 실험적 예술활동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 **지원정책과 제도에 관한 의견**

— 공유재로서 공공시설의 공간 운영 기회를 지원하고, 민간 대안공간 및 자생공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창작보다는 단체의 운영을 돕는 지원을 하고, 카페와 갤러리, 소공연장이 협업과 공동작업을 하는 플랫폼과 채널이 되는 지원을 한다면 사회적 예술활동이 촉진되는 동시에 예술 현장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 지원 단계 및 지원 시점을 다양화하여 2년 내에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운영 예산이 부족한 동절기와 농한기에 지원해야 한다.

— 성장 단계별로 지원자 및 단체의 선발을 다각화하고, 초험 지원과 3년 후 성장한 활동지원을 나누는 시도를 해야 한다.

—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두어 활동 단체의 다양한 상상력을 막지 않고, 큰 범위의 방향만 제시하여 단체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기획의 내용이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년 장기지원 등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전지원 대신 사후지원 형식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학문적(scholarship) 접근이나 예술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동료애(fellowshi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예술가들의 학습과 연구를 돕고, 예술가들 간의 원탁토의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도우며, 홍보를 촉진하는 등 입체적인 간접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정산 방식 역시 단순화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 심사 선정 및 컨설팅, 멘토링을 줄이고, 컨설턴트와 멘토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예술가들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차례

1. 연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013
1.2. 목표 014
1.3. 접근 방법 015
1.4. 추진 단계 및 주요 경과 016

2. 사전연구 주요 내용

2.1. 사전연구 결과 및 핵심사항 021
2.2. 후속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024

3. 후속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3.1. 후속 라운드테이블 진행 개요 027
3.2. '예술의 사회적 활동' 정의 및 범주화에 대한 의견들 028
3.3.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의견들 031

4. 연구 결론

4.1. 열린 정의 및 주요 개념들 039
4.2. 지원정책 및 제도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 041
4.3. 활동 동향에 따른 범주와 유형 분류 043

5. 대안

5.1. 연구의 시사점 049
5.2. 제안 및 권고사항 051
5.3. 서울문화재단 검토사항 055

부록

1. 사전 자문회의 요약 057
2. 후속 라운드테이블 녹취록 069
3. 후속 라운드테이블 사전 안내문 153
4. 후속 라운드테이블 질문지 159

1. 연구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배경**

— 1차년도인 2017년 연구 결과로부터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 즉 경향성, 속성 등이 도출되었다.

—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토론회 등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해 보니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의와 열린 규정 마련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활동 영역을 활성화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제도적 정의, 실천 현장으로부터 개념을 발전시키는 열린 정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 맥락적 가치공동체(CoP)를 모색하려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사업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려 한다.

○ **목적**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현상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향후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을 발굴하려 한다.

—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확장하는 진흥정책을 개발하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려 한다.

1.2. 목표

○ **사전연구에서 남은 과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현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심사 및 평가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다.

○ **후속연구의 목표 및 도달 과제**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방적 개념을 규정하여 그 정의를 보다 — 제도적 동의를 구한 정의, 열린 다원적 정의, 지원정책과 심사 평가기준에 도움이 되는 조작적 정의 — 명확히 하려 한다.

—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려 한다.

○ **향후 과제**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토론회 등을 통해 경청하고, 현장의 동의와 정책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 등을 도출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모여서 만드는 임팩트)〉,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사례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 **후속사업 연계지점**

— 지원사업 심사/평가기준 수립 시 적용 가능하다.

— 양성사업 코칭 가이드 및 커리큘럼에 적용 가능하다.

1.3. 접근 방법

○ **라운드테이블 진행**

— 집단면접(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의 일환으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향하는 현장의 인물들을 추천하여 4회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 면접의 긴장감을 없애기 위하여 집단토론(FGD, 포커스그룹디베이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방법**

— 자유토의와 패널조사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모더레이터가 진행 및 사회를 맡았다. 조사 방법으로서 라운드테이블을 활용했으며 이는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내리거나 문제 해결을 돕는 도구로서의 퍼실리테이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 구조화된 면접법을 구사하지만 자연스럽게 생각을 표출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 설문지 답변을 육필로 작성하지 않고 육안으로 설문지를 보고 돌아가며 의견을 진술하는 식의 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단계**

— 주최 측에서 짧게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루어질 질문과 시간의 구성을 사전 공지하면서 출발하였다.

— 전체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정해진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고루 의견을 표명하는 수차례의 라운드를 구성하였다.

— 일부 참여자가 발제 혹은 발의하는 패널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자유롭게 열린 대화를 유도하는 원탁토의 방식을 취하였다.

1.4. 추진 단계 및 주요 경과

○ **추진 단계**

— 사전회의 : 기획회의 2회, 연구결과 공유회의 1회, 자문회의 2회 개최

— 라운드테이블 진행 : 4회 개최

— 보고서 1차 작성 : 참여자 의견을 수집, 분류, 분석

— 사후회의 : 평가회의 1회 개최

— 보고서 2차 작성 : 보고서 보완

— 보고서 완료

○ **주요 경과**

연번	일자/장소	외부 참석자	내용
1	2018년 4월 20일 /서울역	안영노 한아타	기획회의1 : 자문회의에 대한 기획 및 전체 아웃라인 설정
2	2018년 4월 20일 /서울역	강원재 김정이 안영노	자문회의1 : 현장 전문가 (선배 기획자) 및 관련 지원사업 심사위원 대상 자문
3	2018년 4월 26일 /돈의문박물관마을	라도삼 장대철 이병민 백선혜	전년도 연구결과 공유회의 : 2017년 연구 주요 연구진 대상 전년도 연구결과 공유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4	2018년 4월 26일 /안녕다방	안영노 한아타	기획회의2 : 자문회의 기획 및 점검
5	2018년 4월 26일 /안녕다방	정수희 최혁규 김새미 김진주 안영노	자문회의2 : 2017년 연구 보조연구진 대상 자문
6	2018년 5월 8일 /돈의문박물관마을	김유진 외 4명	라운드테이블 1차
7	2018년 5월 9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송상훈 외 5명	라운드테이블 2차
8	2018년 5월 10일 /돈의문박물관마을	김월식 외 5명	라운드테이블 3차
9	2018년 5월 14일 /돈의문박물관마을	신현길 외 4명	라운드테이블 4차
10	2018년 6월 11일 /서울문화재단	안영노 한아타	평가회의

2. 사전연구 주요 내용

2.1. 사전연구 결과 및 핵심사항

○ **사전연구 진행**

— 사업과 활동영역에 대한 명칭: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여 연구진 간에 '예술의 사회적 실천', '예술의 사회적 활동', '예술의 사회적 역할' 등이 거론되었으며, 원탁에서 '예술의 사회적 동행' 등의 용어가 제시되었다.

— 추세와 양태들: 예술의 다양화는 예술가 활동의 개성화, 다각화로 나타나며, 이와 함께 예술의 사회적 실천도 증가하고 실천의 내용 또한 다변화하였다. 이는 시대 변화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의 다변화에 따라 촉진된 것이기도 하다.

— 조사를 위한 분류: 연구회의를 통해 사전에 사회혁신으로서의 예술, 지역활동으로서의 예술, 일상창작으로서의 예술, 교육과 치유로서의 예술, 사회행동으로서의 예술 등 다섯 가지 분류에 따라 현황을 모집하였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포괄: 예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다변화된 예술활동의 양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예술활동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파장과 효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사전연구 과제 및 목표**

— 현황 파악 : 사회 안에서 예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프로젝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새로운 예술활동의 다양화된 모습과 활동의 주체(예술가 및 단체, 기획자, 활동가) 등의 현황을 파악하려 하였다.

— 개념 규정 및 정의: 새로이 대두되는 예술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려 하였으며, 잠정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 주요 용어 도출: 예술의 사회적 활동(혹은 개입, 관여, 연계, 실천, 매개, 동행, 역할, 참여)과 부상하는 활동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용어들을 도출하려 하였다.

— 유형 구분 및 범주화: '유형을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과연 유용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할 경우 그 용도와 기능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위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등 변화하는 현장 활동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 현장과 예술가의 반응

— 용어 사용에 대한 혼돈: 예술의 사회적 개입, 매개, 관여, 연계, 참여 같은 용어들은 원탁에 참여한 예술가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끌어냈는데,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이러한 용어 사용에 따른 혼돈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예술의 사회적 관여와 개입을 예술의 '사회적 활동'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 대두되는 시각: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진화하고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급하게 정의 내리기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최근의 다변화 양상으로 볼 때 범주화 자체가 어려우며 일방향의 방식은 무용하거나 현장의 입체성을 잃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나왔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가치 부여: 규정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자원, 해결책)을 유도하는 예술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예술의 공공성 인식: 예술이 그 자체로 공공재로서의 효용을 갖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활동이 아닌 예술창작 자체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이 증가해야 하며, 예술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이고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운드테이블 결과 분석

— 예술의 창의성과 예술가의 독창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예술에서 그 효용성을 찾는 데 우호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 예술이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개인의 스튜디오와 아틀리에에 갇히지 않는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다. 아울러 예술은 일반적인 사회 개선에 쓰일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공통의 인식도 강하다.

— 예술창작과 연결된 사회적 실천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활동 가이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유하는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사례를 발표하면서 현장의 실천을 존중하고 함께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인정과 공감, 유대가 강화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같은 연구와 학습, 논의의 장은 공공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할 필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 라운드테이블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사항

— 열린 개념과 다원적 정의, 밑에서 건의해 위로 올리고 함께 구성해 나아가는 정의가 중요하다.

— 유연한 활동 범주를 설정하고, 다차원의 지원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 원탁을 비롯한 간접지원 방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교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거나 청책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연구와 공동학습을 지원하며 협동과 연대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 밖의 정책 및 지원제도 관련 건의사항

— 예술가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원제도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지원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단년도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혁신가. 문화기획자와 사업가, 교육자와 치료사, 기술인력 등의 역할을 하면서 융합적으로 변신하고 있는 현장 예술가들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예술가들 스스로 공동학습 및 자율연구를 통해 각성하고 성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정부, 공공기관, 현장 예술가, 문화기획자,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정책과 문화정책의 구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 참여나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과는 별도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활동과 문화기획의 지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 공유 및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양상은 청년 예술가 정책과 예술대학 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므로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고찰, 그리고 부문 간 협업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

2.2. 후속연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 사전연구의 연구진이 제기한 연구 문제들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정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다원적이고 열린 규정을 위한 노력, 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 유지, 개념에 대한 제도적 합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예술가는 어떤 사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가. 사회 안에서 예술의 기능을 어디까지 확장하여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오늘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후속연구의 핵심 사항

— 2017년 연구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과 기준, 유형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지원정책 및 진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첫째, 지원사업을 위한 심사와 평가의 기준
- 둘째, 새로운 예술의 동향에 따른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개념 규정
- 셋째, 새로운 예술을 이해시키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의 주요 용어와 개념들
- 넷째, 예술 현장에 대한 잠정적 차원의 유형화
- 다섯째, 새로운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범주화

3. 후속 라운드테이블 주요 내용

3.1. 후속 라운드테이블 진행 개요

회차	일시	장소	참여자
1차	2018년 5월 8일(화) 16:00~19:00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김유진(독립기획자, 전 별일사무소 기획이사) 김현호(보스토크매거진 대표) 이동근(자바르떼 대표)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정연재(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안상미(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 모더레이터: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코디네이터: 김성현 진행: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참관: 김홍남(지역문화본부장)
2차	2018년 5월 9일(수) 16:00~19:00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김진환(지역문화팀)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표) 신유아(문화연대 파견미술팀 활동가) 신윤예(OOO간 대표) 신지예(오늘공작소 대표) 한광현(오늘공작소 선임연구원) 이로(유어마인드 대표) 전희재(세븐픽쳐스 대표) --- 모더레이터: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코디네이터: 김성현 진행: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참관: 김홍남(지역문화본부장)
3차	2018년 5월 10일(목) 16:00~19:00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성효숙(예술가, 문화예술행동) 윤성진(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정현식(예술수색단 대표) 홍주석(어반플레이 대표) --- 모더레이터: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코디네이터: 김성현 진행: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참관: 김홍남(지역문화본부장)
4차	2018년 5월 14일(월) 16:00~19:00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박현주(지역문화팀) 신현길(아트브릿지 대표) 정문식(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최규성(달꽃창작소 대표) 홍보라(갤러리팩토리 대표) 황윤호(나인로드 대표) --- 모더레이터: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코디네이터: 김성현 진행: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3.2. ‘예술의 사회적 활동’ 정의 및 범주화에 대한 의견들

○ **정의의 무용, 규정의 부작용**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정의하면 도리어 개방되지 않는다. 규정은 보수화하므로 규정하지 말자. ‘사회적 예술’과 같이 이름을 만들지 말자.

— 예술은 사회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모든 예술은 다 사회적 예술이다. 예술 앞에 ‘사회적’을 넣으면 오히려 의미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이 좁아진다.

— 이미 예술의 개념이 넓어졌다. 예술이 시민, 사회, 문화에 맞추어져 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 앞에서 개념은 끊임없이 바뀌므로 정할 수 없다.

— ‘사회적 개입’과 같은 말은 우려가 된다. 예술이 사회를 바꾸는 수단이 되고 통제 가능한 도구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정의의 필요성과 유용성**

— 사회적 예술을 규정하려는 것은 미학적 차원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예술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문제 제기된 것이다.

—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예술현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

— 예술이 사회적이다 사회적이 아니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즉 예술을 통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커뮤니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매개해 주는 활동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열린 정의에 관한 의견들**

— 새로운 예술현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열린 정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는 규정이라기보다 열린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 ‘배제적’ 규정이 아니라 ‘포괄적’ 규정이어야 한다. 예술가 등 현장에 있는 사용자의 언어 측면에서 포괄적 규정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범주를 정해 주면 배타적 규정이 되고 이는 무엇은 해당되지 않는 부정의 언어가 된다.

— 정의하기보다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예술이라는 말에 특정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개념이나 분명한 설명 없이 열어 두는 것이 낫다.

— 신뢰할 만한 구성원들 간의 제도적 합의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념을 영역화하려면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념어는 예술가 지원이 아니라 시민에게 교육할 때 필요한 것이다.

○ **다원적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정의 및 제안들**

— 심리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예술, 소통을 지향하는 예술이다.

—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예술이며, 그 관계는 결과로 드러난다.

—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고민하는 실험이다.

—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이라는 말은 거부감을 준다. 창조하되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효용성이 생성되는 예술이어야 한다. 목적성을 내려놓고 강박을 버리고 활동해야 한다.

— 우리의 삶을 문화와 예술로 바라보는 것, 혹은 삶과 사회를 예술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예술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나쁜 예술이어야 한다.

— 예술은 변화 유발자다. 삶과 개인, 예술가는 세상의 혁신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존재들이다.

— 기성 예술은 균열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의 예술은 사람과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다. 변화 유발자가 아니라 참여를 유발하는 것이 예술의 힘이다. 참여가 나중에 삶과 지역을 바꾸는 힘으로 그 효과를 드러낸다.

— 예술은 혁신, 창의만이 아니라 연결이다. 함께하는 가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사회적 예술은 인간과 사회가 함께해 나가는 관계와 과정이다.

○ **사회적 예술과 관련하여 언급된 주요 주장들**

— 예술의 다변화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은 중요하다.

— 문화 다양성이 핵심이다.

—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해야 한다.

— 예술의 사회적 책임은 무목적성과 유희성으로 드러난다.

— 개입보다는 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예술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과와 임팩트에 초점을 두는 예술이다.

— 지금 필요한 예술은 경계선에서 무모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 지역, 혁신, 행동이 중요하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립 구조를 마련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 예술가는 매개자, 기획자, 소통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

○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의견들**

— 예술은 사회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드러낸다. 장소와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변화의 감수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예술은 사람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 예술은 사회통합이 아니라 익숙한 가치를 전복하는 것이다.

— 모든 예술은 본질적으로 혁신적이다. 예술은 실험의 장이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다.

○ **예술(범위와 영역)의 제한과 구분에 대한 견해들**

— 예술과 비예술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 문화와 예술을 분간할 필요가 있다.

—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하려면 생활예술의 개념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은 무의미할뿐더러 예술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3.3.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진흥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들

○ **지원 단계 및 지원 시점의 다양화**

— 현장 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 지원 기간을 봄 1회로 한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연 1회 정기지원 외에도 지원 시점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농한기 지원을 통해 추운 겨울 활동가의 공백을 해결해 주어야 사업이 지속된다.

— 현장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원 대상 및 선발 방식의 다양화**

— 성장 단계별로 두세 계단을 나누어 응모할 수 있는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

— 커리어별로 지원할 때 초기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간접지원을 통해 사람을 기르는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장활동 3년 후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그 후 연계 협력망을 만들도록 토대를 제공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확산시키는 시점이므로 잘 해온 곳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진입하는 활동가나 단체들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존에 활동하며 성장한 단체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선도하는 주체로 길러 내야 한다.

○ **지원 방식의 유연화**

— 사회적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지침을 두지 않고 방향성을 열어 공모해야 한다.

— 예술가들의 자유재량 기획사업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어떠한 조건 없이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파격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선발할 때 엄격한 지침을 두지 않더라도 이후 평가 시 잘하면 된다.

— 예산 사용에서 자금에 대한 증빙 없이 예술가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야 혁신과 실험이 나온다. 지원한 예술가를 길러 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민이나 주민 수혜자뿐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 역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실패 역시 경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실험성과 혁신적인 도전만 인정하라. 예술가의 실험에 대해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다.
— 전년도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여 사후 지원을 해야 한다. 기획서를 내고 선정하면 열린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전지원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창조적인 변화가 열린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 지원의 목적을 상정하고 지침에 따라 모범적인 결과물을 설정하여 지원하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 예술가들에게 결과물을 재촉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지침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지원 기간의 유연화

— 단계별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사전 단계의 파일럿 프로젝트와 사업 전 리서치도 지원해야 한다.
—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절차를 가을에 가질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의 발굴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 3년 장기지원이 필요하다. 단기지원은 효과를 내기 힘들고 짧은 시기에 급하게 작품을 만들어 제출하므로 무리가 올 수 있다.
— 시드머니를 지원하여 학문적(scholarship) 접근이나 예술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동료애(fellowship)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음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지원금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프로덕션 외에도 단체 운영에 지원해야 한다.

○ 심사 선정 및 평가 모니터링, 멘토링과 컨설팅 개선

— 평가의 틀을 바꾸어, 지원사업의 실적보다는 질적 성과와 그 파급력을 파악해야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고 긴 호흡으로 사회적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 심사와 선정, 평가 시 전문가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멘토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현장을 모르는 컨설팅과 모니터링은 재설계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서로 컨설팅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 맞는 이해도와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 도달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현장이므로 공감대와 동질감이 중요하다.
— 컨설팅을 줄여야 한다. 비슷한 지침에 따라 사업들이 표준화될 우려가 있다. 실무적, 기술적 차원의 멘토링 외에는 위로가 되는 격려와 우정의 멘토링이 필요하다.

— 멘토링과 컨설팅을 줄이고 현장끼리 활동하고 소통하는 원탁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개념 정리가 미진한 시점에서는 현장성이 더욱 중요하며, 다양한 차이를 느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성장한다.

○ 교류와 소통에 대한 지원

— 교류 그 자체가 곧 예술의 실행이다. 교류 다음은 협력이다. 이러한 자리로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실험하는 예술가들의 원탁을 열어 주어야 한다.
— 대화와 공감이 본질이다. 핵심은 신뢰와 결속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멤버십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 연대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동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예술가들의 공동협력 과정을 늘리도록 지원하고, 예술가들 사이에 공존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공공성 사업은 더 긴 호흡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원탁은 예술가들이 서로 의지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완충장치 기능을 해야 하며,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늘이는 충원장치도 되어야 한다.
— 라운드테이블은 서울문화재단 입장에서도 지원사업의 진화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최와 연속토론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열린 방식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야 한다.

○ 지역사회 등 현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

—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참여 과정을 설계하여 이 절차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기획, 공동창작에 지원해야 한다.
— 예술가들의 지역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고유의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일하면서 재능착취를 당하지 않는 지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현장 예술가의 사회 접촉을 늘리려면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참여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과 민간단체 등 비예술 분야와 공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디자이너, 마케터 등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기능도 해야 한다.
— 서울문화재단을 대신하여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할 단체들을 찾아내 맡겨야 한다. 민간 단체가 중간 단체 경험을 하면서 지원기관의 역량을 쌓도록 해야 한다. 신생 단체의 양성은 선배들이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견인할 때 더 효과적이다.
— 민간 단체들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도록 공공시설의 운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민간이 더 성장할 것이다. 공공자산(커먼즈)을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자생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활동이 증가한다.

○ **예술가들의 생존과 경제적 차원의 지속성을 위한 건의**

— 금융기관 대출 외에 경제적 유지를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 임팩트 투자, 사회투자와 연결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 다양한 기업의 메세나, 사회공헌 스폰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아트펀딩 등이 일어나도록 서울문화재단이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상시 수시지원을 통해 보릿고개를 없애고 공백기 없이 겨울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와디즈, 텀블벅, 카카오스토리펀딩 등과 손잡고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하는 구조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 스타트업과 벤처를 육성하는 비즈니스 섹터를 일정하게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성장과 생존의 코스를 추적하여 계속 도와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육성 절차 안에서 지원과 교육을 짜는 방식처럼, 예술단체와 예술가가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육성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록하는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 **효과적인 간접 지원 제안**

—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를 통해 공부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 예술가들이 수행하는 리서치와 스터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대상에 대해 심도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학습이나 연구모임의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 필요한 사례를 보러 다니는 교육을 시키기보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사례 연구를 해내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 사회적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촉진과 유통을 지원해야 한다.

— 서울문화재단이 감성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한다. 외로운 현장을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예술가들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성장 과정에서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한다. 특히 예술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도와야 한다.

○ **기타 진흥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 예술가 입장에서는 행정 및 정산 업무를 간소화해야만 현장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원서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예술가들의 회계와 서류 업무를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 기획서와 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동, 지출증빙 및 정산에 대한 노동을 도와줄 파트너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일례로 회계 경험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기획뿐 아니라 홍보를 돕는 사업을 해야 한다. 예술가들의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아카이빙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보 공유뿐 아니라 홍보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처음 사업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를 지원할 때는 섭외, 영업, 행정협조, 참여자 모집 등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브랜드 공신력을 활용하여 도와줄 일들이 많다

4. 연구 결론

4.1. 열린 정의 및 주요 개념들

○ **사회 이슈에 대한 예술가들의 성찰에 주목**

— 예술은 작동 자체가 중요하다. 예술활동에는 예술 자체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하는 것도 해당된다. 예술의 표현방식을 갖춘 이종(異種) 간 융합적 활동과 다양한 실험들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

— 예술가 안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드러내 사회 모순과 사회적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열린 정의에 따른 지원**

— 사회로부터 분리된 의식을 갖는 예술가들의 관행과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구상과 시도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예술이 아니라 예술적 사회를 만들려는 소통적 시도에 지원을 열어 둔다.

— 예술가의 역할이 사회를 바꾸는 실천이라고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발견하는 예술가의 비판과 성찰의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 **변화하는 현장에 맞는 개념들**

— 사회를 바꾸는 예술뿐 아니라 예술가와 함께하는 사회 변화의 실천과 시도로 초점을 넓힐 수 있다.

— 예술과 사회의 접촉과 연결, 예술의 실험적 속성을 통하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현장은 모두 해당된다.

— 이는 사회적 서비스, 사회문제 개선, 사회혁신 추구, 예술의 형태를 띤 사회실험 등을 포함한다.

○ **예술과 사회의 연결에 대한 성찰과 실천들**

—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작가와 참여자, 작품과 참여자가 만나는 관계에 집중하는 활동, 참여자와 만나기 위한 기획이 이에 해당한다.

—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고 행동을 만들어 주는 예술활동,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에 대한 반성과 발견을 돕는 참여활동과 공유 과정이 모두 해당한다.

— 예술가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체감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시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

○ **예술과 생활, 예술과 지역의 연결**

— 예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열어 놓은 채 일상과 생활 속에서 시민 혹은 사람들의 사회적 개입을 촉진해 주는 사업과 활동을 포함한다.

— 예술이 의식적인 사회 기여를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술이 지역사회에 서서히 스며드는 변화를 드러내는 활동을 포함한다. 공동체와 생활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들을 포함한다.

4.2. 지원정책 및 제도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

○ **핵심 용어들**

— '공공재'로서 예술 기능에 초점을 두는 예술활동이 해당한다.

—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분명하게 공익성을 의도하는 예술적 시도들 역시 포함될 수 있다.

— 지역에 집중하는 예술활동도 해당된다. 이때 지역사회와 주민 공동체 안에서 통합과 소통을 도모함에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공공영역 안에서의 소통 혹은 문제 제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도에 초점을 둔다.

— 사회적 문제를 밝히는 동시에 문화의 향유와 예술향수를 높여 생존하려는 사업과 이를 '매개해 주는 이들'을 포함한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진흥할 때 필요한 개념들**

— 사회적 '과정'과 '관계'라 부를 만한 것을 분명하게 가정하거나 정의하면서 벌이는 예술활동이다.

— 혼자보다 여럿이 소통하면서 견디고 함께 실험하고 작업하는 '교류'와 '협력'의 특성이 있다.

— '변화'를 유발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변화를 의도하는 '네트워킹' 실천들이다.

—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사회와 시민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실천적으로 '매개'하여 결과를 내려는 현장의 시도들이다.

○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키워야 할 속성들**

— 현장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성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단발성을 벗어나려는 생활, 공동체, 주민들 사이의 시도를 지원한다.

— 민간과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자발적으로 펼치고 자생적으로 발굴해 낸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 **지원을 위한 지침과 기준 문제**

— 명확한 선정 지침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심사위원 및 평가위원의 재량에 의존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선정과 평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원 성과가 감소한다.

— 따라서 사회적 예술에 대한 열린 정의, 다원적 정의를 바탕으로 배타적이기보다 포괄적 규정을 담은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배제적이기보다 포함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지침과 기준은 예술/비예술의 구분, 예술/문화의 구분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관점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 **사회적 임팩트와 지역사회의 문화 영향**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등 타 영역에서 이미 지원받는 회사와 단체들이 서울문화재단의 사회적 예술 지원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점은 어떠한가. 이런 사례들 속에서 융합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고, 또한 협동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돕는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지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예술활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제뿐 아니라, 예술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시민 공동체 안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문화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 **결과, 성과, 효과에 대한 구분**

— 지원사업은 창작과 매개 그리고 수용에 이르는 활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며, 이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된다.

— 예술가 당사자와 예술현장, 지역현장 등에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을 이루어 가는 성과가 발생하므로, 작품이 아니라 현장의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이는 다시 구분하여 지원사업이 예술계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까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활동 동향에 따른 범주와 유형 분류

○ **주체에 따른 활동 범주 구분**

— 적절한 예술가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 주체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고 심사 선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예술의 수혜자가 아닌 예술활동으로 실제 변화를 주고 매개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보면 문화기획자, 사회적 기업,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공공예술가라는 세 범주가 드러난다.

— 한 활동 주체가 두 범주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 사업에서 여러 활동 주체가 서로 협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개인, 단체 등 활동 방식에 따른 범주 구분**

— 예술가들의 사회적 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종과 융합하는 경향을 드러내므로, 현장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들이 협동을 전제로 모두 참여하도록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 활동가, 사회혁신가, 개인 창작자, 문화기획자, 사회적 기업가 등 주체와 의도 면에서 다양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목적 대상 및 의도에 따른 유형 분류**

— 예술적 표현, 지역문화, 생활문화, 커뮤니티아트, 문화예술교육, 공공예술, 사회적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예술가의 결핍 해결 등 활동의 의도와 목표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 시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열어 두고 평가 시 그 실적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크게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 면에서 예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방식과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구분하고 결과와 성과 및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낫다.

○ **효과 및 영향력에 따른 분류**

— 사례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 시 지침과 기준을 개방하되, 심사선정 시 다양성, 창조성 등 예술계 발전에 미치는 시금석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지역을 비롯한 주민문화, 생활문화에 미치는 문화영향을 미루어 가치를 파악하고, 후속 추가지원 시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예술가의 입장을 경청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적으로 결과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계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는 입체적인 평가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지원 대상의 확대 방향**

— 이미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 예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합실험다원예술, 통합예술교육, 생활문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다원예술, 커뮤니티아트, 생활문화, 공공예술, 지역문화 진흥에 예술의 진입이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서비스에 기여하는 예술적 실험들이 들어나는 등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직관과 통찰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 따라서 예술의 범위를 넓혀 '창의적 접근'을 통한 사회혁신, 사회개선, 사회적 서비스, 사회 문제의 해결,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활동 역시 지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수혜 및 향수 대상의 다각화 방향**

— 주민 공동체 등 예술 향유 대상과 병행하여, 취약계층 등 사회적 수혜 대상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기존의 문화향수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 또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세대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관점에 더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관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술가들에게 당면한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려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예술가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열악한 여건에서 지원받는 수혜 대상인 동시에 고용과 용역 기회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의 당사자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가들의 활약을 통해 예술가들의 생존기회도 확보하려는 접근 사례를 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개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접근의 지원**

— 예술의 사회적 활동('세상을 바꾸는 예술')을 하나의 지원 트랙으로 놓을 것인가, 범주와 유형에 따라 트랙을 나눌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트랙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준비 단계 지원과 본 지원사업을 나눈다든지, 성장 단계로 볼 때 초기 진입 지원과 구분하여 기량을 확보한 예술가들의 현장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트랙을 나누지 않되 시점을 다변화하고 최소 연중 2회 이상 지원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다.

— 별도의 지원 트랙을 만들지 않고 기존 지원에서 '사회적 예술' 시도를 함께 공모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 예술지원에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고 권고사항으로 도입할 수 있다. 심사 및 평가 기준에서 비중의 우위를 두어 시범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고 제도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현장의 활성화를 돕는 지원 방법**

— 공유재로서 공공시설 공간 운영의 기회를 주는 지원사업은 많은 활동가와 예술가들의 협동을 유발한다.

— 또한 민간의 대안공간 및 자생공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을 하고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3년 연계하여 보장받으며 활동한다면 변화를 유발하고 매개 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 창작 프로덕션 외에 단체의 운영을 돕는 지원을 할 경우, 지역 내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이 협동과 공동작업을 하는 단서를 달아 지원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병행할 수 있다.

— 카페, 갤러리 등 홍보와 유통 채널 역할을 하는 플랫폼 공간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접근성과 공공재 등 기타 지원**

— 예술은 낯설고 불편해 보이는 것이다. 의식적인 사회적 개입이나 사회봉사가 아니라 접근성의 관점에서, 즉 공익성보다는 공공의 접근성 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낯선 것, 어려운 것을 시민들이 편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예술이다. 미술관 등의 공공기반시설에 열어 놓는 방식으로 공유재와 공공재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과 달리 사회적 예술은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려는 시장활동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 예술이다. 따라서 예술향유와 문화로서 향수하도록 돕는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예술이다. 지속하기 취약한 예술이 사회 안에서 보호되면서 동시에 공공성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럴 때 시민 누구나 열외 없이 예술로 보호받는 사회가 된다

5. 대안

5.1. 연구의 시사점

○ **지원방식에 대한 시사점**

— 열린 정의를 내릴 때: 사회문제 해결 차원의 실천적 과제, 사회적 과제와 연결된 자원과 해결책으로서 예술의 사회화 같은 식으로, 즉 '명시적(explicit) 차원'에서 외연을 드러내어 조명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원할 때는 '함축적(implicit) 차원'에서 사회적 주제, 예술 속의 사회. 사회 속의 예술실천 등 다양한 실험들을 암시와 내포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현장에서 벌어지는 접근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

— 새로운 예술현장의 정의에서: 예술의 투입을 통한 지역 변화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즉 '배제적(exclusive) 정의'가 되지 않도록 지역 활성화와 지역재생, 사회적 경제, 공공예술, 생활문화 등 정책언어를 명시하는 일을 자제하고 공공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를 권장하는 용어를 배제해야 한다. 예컨대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술가의 역할,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다양한 예술의 기능 등과 같이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언어를 쓰는 '포괄적(inclusive) 정의'를 제시해야 한다.

— 공유지, 플랫폼, 거버넌스, 공동자산화, 주민자치, 민주도,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공공재, 대안공간, 자생공간 등 사회적 책무를 암시하는 용어를 지원사업에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즉 사회의 현장, 예술의 현장, 지역의 현장과 관련된 현재적(emergent) 사회문제, 공공의 문제를 드러내 의도치 않게 정책담론에 경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생존을 위한 연대와 협동, 예술가들의 상생공동체 등과 같이 예술가의 생존, 활동의 존속과 관련된 언어를 암시해야 한다. 즉 수행하는 예술가, 활동가들의 태도와 자세를 부각시키고, '잠재적(latent)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예술가로서 현장의 과제에 대한 공감을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지원정책과 제도에 필요한 요소들**

— 예술가들의 창작이 아니라 기획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예술가들이 창작의 지원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꾸어 제시한다.

— 앞으로 만들어 나갈 지원제도의 초점은 현장에서 포기자의 수와 실패율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수익활동의 실험에 관대한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서울문화재단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예술가들의 변화를 지원정책에 잘 반영하려면 효과적인 간접지원 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 지원받은 예술가들이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와 조력자의 파트너십으로 소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멘토링 방식과 모니터링 절차, 평가지표를 바꾸어야 한다.
— 단기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자립 구조를 만들도록 돕는 직접, 간접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지속성을 위해 우수사업 선정 및 차년도 연속지원 등 인센티브 사업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 소액으로라도 운영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로 지원하는 선지원 후수행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현장 활동이나 선행사업의 진도 실적을 보고 지원하는 방식, 결과물에 대한 선약을 하지 않는 열린 지원방식을 추구하여 선수행 후지원 방식의 트랙을 만들어 늘려 가야 한다.
— 사업을 만들기 전에 관찰과 성찰을 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지원사업이 정책언어로 규정되지 않고 예술가로서 문제를 달리 보는 상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사회적 예술의 다양성과 확산성이 생긴다.

○ 예술 진흥정책에 대한 시사점

— 현장의 공감대 창출을 위해 예술가들 간의 원탁을 마련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 관계성을 높이는 부드러운 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지속하면 원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사회적 활동에 대한 예술가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포럼을 포함하여 전달력과 깊이를 가진 사업설명회를 반복적으로 열어야 한다. 토론과 교육, 연구 기회 등 작고 가벼운 간접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비롯하여 이러한 새로운 예술활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공동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장 사례들의 공동홍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의 주체들이 서로 모여 원탁에서 상호 멘토링을 하면서 학습과 연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부터 성장이 일어난다고 스스로 느껴야 한다.
— 예술의 사회적 효용 증대와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위해서는 공존을 위한 예술현장 간의 공동작업에도 지원해야 한다. 단순한 교류에 머물지 않고 협력을 수행하면서 성과들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내는 파트너십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5.2. 제안 및 권고사항

○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열쇳말

— 활동의 양산과 실천의 촉진을 위해 '매개자 지원', '지역에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시도', '공공재', '교류와 협력' 등을 권장해야 한다.
— '예술의 과정과 관계',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에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것을 포함한 실천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성장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사회적 문제 제기를 통한 작은 변화 시도, 문화적 접근성과 영향 등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와 평가기준이 아니라 진흥정책과 지원제도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의 양성 과정과 당사자들의 원탁토론을 포함한 교육과 연구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진흥을 위한 개념과 지원 시 기준

— 새로운 예술활동을 이해시키고 공감과 인식 확산에 필요한 정도의 용어와 개념이 필요하다.
—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술,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 예술적인 사회, 예술과 사회의 관계 성찰 등 예술적으로 실천하는 당사자 스스로 다양한 개념으로 스스로의 작업을 정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지원 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예술적 표현으로 조명하되 예술가 스스로 사회 현장에 대한 작업과 활동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는 언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지원 시 해결할 사회 문제에 대해 단순한 성찰과 비판뿐 아니라 소통과 실천을 향해 나아가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두는 작업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에 주목하며, 이러한 활동을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즉 예술의 사회 안에서 예술의 과정을 성찰하는 언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정의 및 규정 여부

— 지원제도의 심사 선정과 평가보다는 새로운 예술 동향에 따른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 예술적인 사회성찰, 사회비판, 사회개선, 사회변화, 사회문제 해결 등 현장 연구를 수행할 경우 예술가의 의도 및 이해도에 따른 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 정책 발굴 등 목적이 분명한 잠정적, 제도적 정의, 현장 사례를 통해 유형화되고 시대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되는 다원적, 개방적 정의가 필요하다.
— 사회적 예술이 공공예술과 어떻게 다른지, 지역문화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에 관한 차이를 밝히려 하기보다 어느 정도 겹치는 새로운 영역의 돌출을 이해하여 몇 년간 열어 놓아야 한다.
— 도시재생, 생활문화공동체, 사회적 경제, 통합문화예술교육, 다원예술, 지역문화 등 기존 정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의 언어로 풀지 않아야 한다.
— 규정하지 않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과 모형을 잡아 나가되, 현장 예술가 등 당사자들의 원탁을 통해 유형과 개념보다 주요 이슈와 과제들을 논의하여 개념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도모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다.

○ 지원에 필요한 유형 분류 및 활동 영역 진흥을 위한 지원 범주들

— 사회적 실천을 지향하는 예술현장에 대한 잠정적 유형화는 지원사업 심사에 쓰기보다 이와 관련된 활동 주체 양성사업의 교육 과정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데 유용하다.
— 대상, 진행 방식, 내용은 하나로 열어 둘 수 있다.
— 열린 지원을 하되 지원사업 공모와 심사 시 공지한 평가체계를 통해 다각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지원 공모 및 심사 지침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은 모든 공모사업의 '디폴트(default)', 즉 반드시 필요한 기본값으로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 예술지원의 트랙을 구분하여 그 기준에서 예술지원 1.0을 예술가의 창작진흥에 두고, 예술지원 2.0을 참여자, 주민 주도 예술가나 수혜자, 시민 등과 예술가, 기획자의 공동작업(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아트 등)에 두고, 예술지원 3.0을 지역과 사회 전체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예술활동에 두어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사회적 변화 유발,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뿐 아니라 융합과 공동작업(collective), 협업(collaboration) 등에 초점을 둔 실험적 예술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다.

○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시 유의사항

— 새로운 시도의 예술활동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외에, 지역문화와 주민, 사회와 시민에게 제공하는 영향을 구분하여 지원 당시 활동계획에서 이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 심사, 평가체계에서 심사표, 평가표 양식을 가장 큰 범주의 대분류 평가틀로 하되, 심사자, 평가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일치하는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컨설팅이 아니라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계. 모니터링 요원은 현장에서의 추진 과정, 지역사회 관계 형성 등을 기술하고, 현장 방문 후 모여 여러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 현장평가와 정책평가를 구분하고, 지원 대상의 실적, 결과를 파악하는 현장평가와 달리 진흥 주체의 지원 절차와 전략 등을 파악하는 청책평가에 주력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디자인해야 한다.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증진하는 지원사업 방식

— 예술이 사회와 시민들에게 주는 도움을 정서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사회문제, 지역공동체 등의 변화 관점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예술지원 제도의 시야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 시민을 위한 예술 향유를 넘어서서 시민을 공동작업의 봉사자 겸 주도적 참여자로서 만드는 일, 시민을 창조자로 만드는 일, 시민을 활동가 겸 매개자로 기르는 일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평가환류 시 예술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
— 사회적 소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시민을 수용자로 두지 않고 향유를 넘어서는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 내고 그 개선을 위해 지역민과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아간다면 현장에서 예술활동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 장르 구분처럼 영역이 구분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활동 주체 중심의 지원과 평가가 바람직하다. 즉 현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서 지역 활동가 겸 예술가, 혁신가 겸 기업가, 공공예술가인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교육 및 공동체 예술가, 개발자이자 기술자 겸 예술가 등 활동 주체를 중심으로 한 사례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 해 지원 시 주목할 만한 분야를 주체들을 중심으로 촉진할 수 있다.

○ 새로운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적용 사항

— 창작지원과 기획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새로운 예술활동 흐름을 분명하게 만든 것처럼, 기획지원 안에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술가 작업과 매개자 활동을 구분하여 예술가 스스로 지원사업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활동 연계 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생적인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현장 간 고백의 장인 원탁토의를 자주 작게 개설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

— 간접지원을 늘리는 것은 현장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만들어 온 사례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 이중 작은 원탁토의는 현장 간 소통, 청책, 자발적 정보와 사례 공유, 협동과 연대, 연구와 공동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다.
— 큰 심포지엄보다 작은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야 한다.
— 온라인 방송과 SNS로 공유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5.3. 서울문화재단 검토사항

○ **2017년 라운드테이블에서의 건의사항**

— 더 많은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건의와 제안 등 현장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라는 '청책'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었다.
— 후속적인 라운드테이블을 계속 열어 교감과 소통을 촉진하고 현장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여는 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라운드테이블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경우 홍보와 모집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자율연구와 공동학습에 대한 소액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 대화를 통한 교류뿐 아니라 공동작업을 통한 협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 **2018년 이후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권고사항**

— 2018년 현재 기반사업에서는 〈2차년도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후속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였고, 자율연구학습모임(CoP)을 개선하여 모임 간에 소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collective impect)'을 추구하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 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 전에 사전 라운드테이블을 활용하여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방식 등 사회적 실천과 연결된 새로운 예술을 시도해 온 다양한 현장 예술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소통하고 있다.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에는 특히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열고자 하는 원탁을 공모하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모여서 만드는 임팩트)〉을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 결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들**

— 차세대 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 인(人)사이트〉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에 예술가의 사회적 활동 부분을 다루고, 특히 중간 교육에 적용하여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방적 개념과 열린 기준들에 대한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프로젝트〉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열린 정의와 지침, 잠정적 유형화와 효과 등을 평가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내년도 사업설명회 및 공모선정 지침 마련 시 정성적 기준으로 적용한다.

— 지원사업 탈락자를 포함하여 관련 활동가, 기획자 양성과정 등에서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정의와 다양한 활동 지향점 등을 전달해야 한다.

○ **기타 제언**

— 이상의 개념과 기준, 유형화 등에 대한 논의들은 후속 포럼, 세미나, 커뮤니티 모임, 네트워킹 활동에 제시하여, 특정 사항을 규정해 나간다기보다 풍부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계속 정의와 개념의 발전과 진화가 일어나도록 도모해야 한다.

— 무엇보다 이러한 현장 사례들을 대중에게 나누어 주는 홍보 등을 비롯하여 우선적으로 공감 확산, 인식 제고 등을 도모해야 한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지향점**

— 지역문화 진흥의 관점과 결부하여 '로컬'의 장소에서 사회적 활동들이 전개되는 방식에 집중한다.

— 예술의 문화적 영향력과 더불어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주목하여 평가하고 이 내용을 사례 분석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 절차 개선 필요성**

—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은 공모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연중 2회로 늘리며, SNS 활동 홍보 방식을 결합한다. 또한 '집단적 영향력(collective impect)'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 결핍되어 있는 구체적인 협업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 차년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 공모, 계획발표, 심사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위키피디아의 집단지성 원리와 참여자 중심의 소통 방식에 따라 상호 멘토링, 협동기반의 원탁 등을 적용한다.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이 검토해야 할 사항**

— 지원사업의 연중 절차 제시 및 트랙의 개발, 이에 합당한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을 규명한다.

— 인력양성에 이를 적용하는 지침 및 교육학습 절차를 검토한다.

— 정책홍보 및 확산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담론 형성을 위한 전략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홍보의 접근 방식을 정한다.

부록1. 사전 자문회의 요약

1-1. 사전 자문회의(1)

○ **회의개요**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사전 자문회의(1)**	
일시	**2018.04.20.(금) 9:00**	
장소	**서울역 회의실**	
참석자 (총 5명)	**자문위원**	강원재(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이(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 **자문내용 요약**

[강원재/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 연구, 지원사업 관련

- 사회적 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나 다섯 가지 유형 구분이 현장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원사업을 할 때 굳이 유형을 나누어 진행할 필요는 없다.
- 오히려 지원사업 론칭 시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첨부파일 등으로 지난 현장 사례들을 보여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지원사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 모-임(네트워크 및 담론), 포럼 관련

-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신뢰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표 공유회와 원탁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각자의 현장이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면서 교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0여 회 원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드카페 등 대규모 회의 방식을 활용하자.
-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꽤 많다. 참여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예술활동 주간을 정하고, 그 시즌에 집중적으로 자원자들이 현장 사례와 시행착오에 관해 서로 대화하는 장이 필요하다. 설사 당연한 이야기로 귀결될지라도 그것들을 환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 열린 회의에서는 사회적 예술을 제시하는 선도사례 그룹들이 자기 발언을 하도록 요청하고, 사회적 예술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다양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 풀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포럼이나 원탁의 목적은 저변을 확대하고 이런 잠재적 그룹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정이/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 연구, 지원사업 관련

- 신규사업을 론칭하기 전에 신규사업의 지원절차 및 사업명 등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을 돕고자 하는 지원절차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으나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된 것은 신규사업 론칭 이후에 뒤늦게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 현재 사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사업의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장평가 시 중심 가치를 무엇에 두고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평가 결과를 보면 몇몇 단체에 대한 현장평가 위원별 다른 해석과 가치관에 의한 점수 편차가 크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 모든 가치를 포괄할 수 없기에 신규 사업의 중심가치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방향성이 만들어진다.
- 평가지표에 있어서 개념과 분류가 상호배제와 전체 포괄적으로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합쳐졌을 때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환 교수는 'through art', 'of art', 'about art'를 구분하고, 예술을 자원과 도구로 활용하는 상태, 예술적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상태, 예술가가 사회를 자원과 재제로 삼는 상태 등을 구분했다. 이런 디테일한 틀거리를 논의해야 한다
- 지원사업에서 미리 유형을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전개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사후적으로 디테일을 설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재단이 방점을 찍는 대상(주체)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주체, 즉 이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은 주체를 중심으로, 청년예술가, 문화기획자, 사회적혁신가 등의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 사회 안에서 변화유발자로서의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액션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 작가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만들어 내는 협력 과정을 설계하고, 관계형성과 과정 중심의 사업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 문화기획이나 사회적예술의 가치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협동과 융합이 이들의 중요한 가치일 수 있으므로 한 차례 더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할 수도 있다.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예술가 등 현장 활동가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종의 인큐베이팅과 동기부여(empowerment)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화 유발의 책무로 넛징(Nudging)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책무를 잘 지키는지 역시 질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실무적인 레퍼런스로 이어지려면 분석과 해석이 더 필요하다.

— 모-임(네트워크 및 담론), 포럼 관련

- 원탁의 대화를 왜 하는가. 원탁은 미처 발굴되지 않은 현장과 활동가들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슈화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사례들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 고구마 줄기를 캐듯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즉 작은 표본에서 출발해서 점차 큰 표본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아는(친한) 사람을 추천하여 참여시키도록 하는 커뮤니티 기반 설정을 통해 왜 그런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code)를 밝힐 수 있다. 사업의 주체들이 누구와 친한지, 왜 추천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게 되면 같은 언어를 쓰는 인식의 패러다임과 해당 커뮤니티 생태계의 동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라운드테이블은 현장이 가진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잔치가 되어야 하며, 진지한 의제(agenda)를 갖고 내년의 이슈를 함께 정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 작년 라운드테이블은 정체성이 다른 주체들이 섞여 있는데, 같은 영토의 주체들이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사회적 예술활동의 지형도(영토)를 그려 볼 필요가 있다.
- 의제가 강한 활동과 의제가 약한 활동 사이, 착한예술(전통적 장르)와 아방가르드한 예술 사이 또는 사회적 개입과 개인의 변화 사이, 통합 장르와 비예술간 융합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레이어의 예술 생태계를 인정해야 디테일이 생긴다.
- 기자들을 원탁에 앉히도록 하자. 공연, 미술, 문학 외에 다원예술 취재기자조차 없다. 또 우리 스스로 내는 칼럼을 만들자. 지원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의 저변도 확대하는 마케팅과 함께 정책적인 이슈도 제기하는 공론화 PR도 진행해야 한다.

1-2. 사전 자문회의(2)

○ 회의개요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사전 자문회의(2)**	
일시	**2018.04.26.(목) 17:00**	
장소	**안녕다방**	
참석자 (총 9명)	**자문위원**	김새미(17년 연구(교육치유) 보조연구원)
		김진주(17년 연구(사회행동) 보조연구원/기초조사)
		정수희(17년 연구(지역활동) 보조연구원)
		최혁규(17년 연구(일상창작) 보조연구원/설문조사·분석)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유민성(지역문화팀)

○ 진행방식

— 1시간 30분 이내로 진행하며 짧게 여러 번 자주,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몇 회의 라운드로 질문하여 응답을 받고, 올해 후속연구에서 건의하고 당부할 사항을 수집한 후 자유토론 10여 분으로 마무리한다.

— 맨 앞에서 담당자가 짧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오늘 모임의 취지를 설명 5분, 후속연구를 원탁으로 한 배경을 브리핑한다. 진행자가 보완 설명하여 오늘 자문회의의 목표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 마무리할 때, 담당자는 향후 후속원탁과 보고서 발간 시기, 올해 사회적 예술활동 관련 사업 등 관련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한다.

○ 자문내용 요약

라운드1. 작년 연구의 소감, 그리고 작년 원탁의 참여 소감을 밝혀 주세요.

— 김진주(사회행동/기초조사)

- 연구할 때 전제한 5개의 유형 구분에 참여 단체들이 동의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 단체들은 집단인터뷰(라운드테이블)를 그리 반기지 않는 듯하다. 불려서 온 자리가 낯설 수 있으며,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 기록과 공유가 중요하다. 녹취를 하고 인용해서 작성하는 연구보고였으나 그것이 구술채록에 준하는 정리는 아니었다. 정리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이 검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리에 대한 지침이나 용례를 밝혀야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 있었다.
- 그럼에도 이런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지속되어야 하며, 채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 현장파견 예술가들에게는 공공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적 사건을 계기로 하는 실천적 예술작업의 경우 아카이빙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해야 한다. 인터뷰, 시청각 자료, 녹취록 등 부산물들을 지속적으로 모아야 한다. 재단은 (서울)시정부에 이러한 아카이빙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 정수희(지역활동)

- 연구는 흥미로웠으나 어려운 주제였다. 지역활동과 교육치유 분야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고, 분야별 테이블 분위기가 달랐다.

— 김새미(교육치유)

- 교육치유 분야는 라운드테이블 분위기가 좋았다. 그중에서도 1차 테이블은 이야기가 좀 더 풍부했으며, 2차 테이블은 시간이 촉박한 느낌이었다.
- 참여 단체들은 연구 후속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 최혁규(일상창작/설문조사·분석)

- 연구목표는 정책 도출, 실제 라운드테이블 진행방식은 네트워크, 연구보고서는 인터뷰 내용을 통한 재단의 방향성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즉 인터뷰 내용이 연구 목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점검하게 된다.

라운드2. 자신이 연구자라면, 지난 연구에서 어떤 시사점을 정리할 것인가. 어떤 연구결론, 제도 및 정책, 지원의 개선사항을 끌어낼 것인지 알려 주세요.

— 김새미(교육치유)

- 새로운 유형의 예술활동(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으로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나왔다.
- 지원사업의 행정절차가 어렵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정수희(지역활동)

- 현장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작업 과정과 주체에 지원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컨설팅처럼 틀에 맞추어 개입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모니터링하자.
- 예술이 아니라 예술활동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예술활동의 결과보다 과정과 주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 예술활동들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일부 활동가들이 갖고 있었다. 예술가들을 지원,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재단의 틀에 억지로 맞추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다.
- 개인적으로는 정책 입장에서는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본인 역시 관의 입장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 김진주(사회행동/기초조사)

- 사회적 사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 및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술활동이 야기된 추동력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사건과 연결된다. 또한 예술가/기획자/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야 한다.
-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이나, 한국사회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 이러한 예술(활동)의 가치에 대해 (일반)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재단이 예술가와 함께 한다는 것. 즉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 최혁규(일상창작/설문조사·분석)

- 연구는 정책 시사점을 얻는 목적 외에 원탁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네트워킹 효과도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제도적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라운드3.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 및 유형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형식 없이 이야기해주세요.

— 김새미(교육치유)

- 예술이 사회와 연계가 안 된 적이 과연 있었나? 하는 의견이 많았다.
- 단 예술교육/치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술활동의 대상이 분명하고, 대상자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있어서 타 유형보다 범주화가 쉽다.

— 김진주(사회행동/기초조사)

- 사회적 예술이라든지, 예술은 정치적이라는 말을 더 써야 한다.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분위기(환경)가 문제다. 이 말을 못 쓰게 하고 예술이 마치 사회와 무관한 것처럼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데올로기다. 해외의 경우, 'socially-engaged art', 'social practice', 'social works', 'participatory art', 'social art', 'art for social change' 등 이러한 예술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언어가 다양하다. 재단이 '사회적 예술'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많이 쓰고 유형화해야 한다. 재단에서 추구하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담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활동들의 구체성이 더 발현될 수 있다.

— 정수희(지역활동)

- 지역활동이라는 유형이 적합할까? 지역은 활동을 하는 장소일 뿐이다. 문래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단체의 말을 빌리자면, '누가 문래동아트를 하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 예술가에게 지역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창의성을 막는 짐이 된다. 지역기반이라든가 사회적 역할 등은 정치적이기보다 소소한 생활 속의 실현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예술은 작은 동기에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활동 중심의 유연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 자신들 스스로 사회적 예술가라 하지 않는다. 정의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다.

— 최혁규(일상창작/설문조사·분석)

- 유형 구분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행위적, 효과적, 제도적 유형이 뒤섞여 있었다. 차라리 유형 구분 없이 섞어 놓고 라운드테이블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라운드4. 올해 후속연구의 취지를 간단히 듣고, 후속 라운드테이블과 보고서에 담아야 할 것을 당부해 주세요.

— 김진주(사회행동/기초조사)

- 사회행동 분야의 활동주체는 사건의 당사자이면서 예술가인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주체들이 많다. 현장이 힘들고 삶이 고단하여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발언하는 포럼이 이어졌으면 한다.
- 원탁에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현장파견 예술가들이 서로 같은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치유되는 동시에 힘을 얻는 동기부여(empowerment) 효과가 있다.

— 정수희(지역활동)

- 대략적으로 작년 테이블 분위기는 초청된 참여단체보다 진행자가 만족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을까 되짚어 본다. 인터뷰 대상자는 질문을 하니 억지로 대답하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새미(교육치유)

- 지원사업이 너무 단발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속가능성이 화두였다.
- 후속 단계인 네트워킹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네트워크 모임이 많다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을 개최하였으면 좋겠다.

— 최혁규(일상창작/설문조사·분석)

- 작년 라운드테이블 이후 참여 단체들로부터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불편했다는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 와서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바깥으로 불려서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방식에 대해 불편해했다. 다시 말해 재단이 현장에 다가가는 과정이 다소 폭력적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피상적으로 나온 것 같다.

라운드5. 기타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당부사항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최혁규(일상창작/설문조사·분석)

-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사회적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회혁신과 사회행동은 활동의 방향이나 양태가 극과 극이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예술과 사회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읽혀야 하는지, 예술가, 비평가, 기획자, 연구자, 정책가 별로 열린 방식으로 읽도록 안내하는 것이 보고서 발간보다 더 중요하다.

— 김진주(사회행동/기초조사)

- 사회혁신과 사회행동의 방향성이 극과 극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그러나 재단에서 굳이 정책연구가 아니라 개념적, 이론적 연구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연구는 학계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실제 학계에서 연구자들의 논문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재단은 정책연구를 하고, 이와 더불어 학계가 협력하여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 동시대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연구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로우 매터리얼(원천자료)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는 독립연구자들의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부록2. 후속 라운드테이블 녹취록

2-1. 라운드테이블(1) 녹취록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사전 자문회의(1)**	
일시	**2018.05.08.(화) 16:00~19: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참석자 (총11명)	**참석자**	김유진(문화기획자, 전 별일사무소 기획이사)
		김현호(보스토크매거진 대표)
		이동근(자바라떼 대표)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정연재(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안상미(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한아타(작가)
	코디네이터	김성현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안영노 라운드테이블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 두 시간은 조금 뒤로 밀려서 30분밖에 자유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운드테이블 진행을 맡은 안영노라고 합니다. 기록과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은 한아타 작가님이 맡아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진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서로 칭할 때 선생님, 대표님 등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현호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극단 날으는 자동차' 우승주님께서 갑자기 못 오시게 되었어요. '자바르떼' 이동근 대표님과 우승주 대표님은 작년 원탁에도 참여하여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 후속 원탁을 열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분들입니다. 임경용 대표님, 정연재 대표님, 그리고 정연재 대표님과 함께 오신 분은 공동대표 안상미 대표님입니다. 재단 코디네이터 김성현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팀의 김효진 실무자, 장재환 팀장님, 그리고 김홍남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제 서류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원탁 이후,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 현장에서 사례를 발견하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상승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원탁을 해 달라, 사회적 예술이란 개념을 집단면접조사의 일환인 원탁 말고 보다 효과적인 퍼실리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모임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사회적 예술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현장 목소리가 작년보다 발전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우리에게 연대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작은 살롱이라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재단이 작년에는 50명 중 작년 관련 사업의 심사나 평가를 해주신 분들과 올해 이런 방향의 사업들을 할 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모셔서 총 네 번 정도의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고, 서로 교차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사회적 예술 개념이 작년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읽어 보셨을 때 개념, 단어, 용어들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중앙정부 각종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지원정책을 기획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두 가지 큰 질문 후 부연질문은 현장에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시나 재단이나 정부가 도입해서 적용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 지원제도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원탁 진행 방법을 써드렸어요. 진행 방식은 한 번에 여섯 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 속도는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하시기보다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 못다 한 이야기를 마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손을 드시고 아까 못 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시간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한 바퀴 도는 라운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 후 한 시간은 편안하게 자유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한아타 작가님이 녹음, 기록, 보고서를 맡아 주실 건데, 기록하여 재단에 보내 공적 자료실에 보관하여 여러분에게 유의미한 것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원탁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는 SNS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올라가기 전에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함이니 초상권 침해보다는 서로 프로모션하는 방향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언 중에 호응하거나 감탄사, 추임새 등은 좋으나 언어로 개입하는 건 나중에 자유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때 전체 토론이 진행되면 찬성, 반대와 같이 찬반이 나뉘어 쟁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할 경우에는 한 번씩 그 의미를 짚어 본 다음 이야기를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설문지를 따라 두 시간 동안 질문을 드리고요, 자유토론 때는 간단한 사회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대상을 분명히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있는 원탁의 배경과 개요 확인하시고, 재단에서 간단한 말씀드리고 바로 집단토의 100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토론 50분, 클로징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들은 내용에 대해 의견 주시고요. 팀장님이 계시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진행 결과 중에 카드뉴스 같은 것 등을 제작할 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발언을 하나씩 체크하려 합니다. 재단에서 보고서 발간 시기라든지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곧 편해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김효진 제가 간단하게 회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안내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작년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구사업과 동시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 Y-프로젝트, Y-아이디어〉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의 선정 단체 혹은 심사위원분들도 모셨습니다.
우선 연구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2015~2016년에 처음으로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에서 '사회적 예술'의 개념에 관한 논의들을 정책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 주셨고, 작년에 지역문화팀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귀납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주요 속성, 방향성 그리고 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려 했습니다. 실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예술'이란 개념과 범주가 광범위해서 현장의 의견이 생각보다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모셔서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개념 정의 및 방향 수립을 위한 합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즉 작년에는 연구진 분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일차적으로 주요점, 방향점, 시사점 등을 정리했고, 올해는 그것들에 대한 현장의 합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작년 연구보고서가 두꺼운 페이퍼로 나왔는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설계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영노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의 취지가 기존의 장르 중심 예술이 아니라 영역 간의 결합, 새로운 문화기획 등의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고, 담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발언을 종합하여 이후 적용하고 확산시키려 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원탁의 백미 시간이에요. 장재환 팀장님이 3분 동안 재단 대표님으로 변신할 거예요. 재단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 드리고 싶은 말씀, 격려 같은 것들,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재환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문화공연 제휴 담당하는 분을 뵙고 왔어요. 그분이 저희 쪽에 제안을 해왔는데, 서울 지역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문화공간들을 알리는 일을 재단과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담당자분 말씀이 이미 350개의 데이터를 축적했고, 100여 개를 추출하여 그중 10개 정도를 샘플링해 우수 사례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나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재단에서도 늘 사업을 준비하면서 뭔가 많이 갖출 만한 여지나 환경은 좋지만, 막상 사업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 재단이나 기관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이 자리가 작년부터 예술의 새로운 역할, 가치, 다양한 예술의 기능들을 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재단은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 될 것 같고, 좋은 의견, 잘 듣지 못하는 의견들을 듣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안영노 정말 재단 대표님들이 하듯이 말씀하시네요.(웃음) 자, 이제 시작할게요. 결국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향후 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식 명칭은 작년에는 '예술의 사회적 개입', 올해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향후 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알고 싶어 만든 자리인 것이죠.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예술 개념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 개념 중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짜면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1라운드입니다. 들어 보시고 작년에 참여하셨던 이동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 나눌게요.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부연설명을 할 테니 들어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를 보고 본인이 느끼는 생각이 어떤 건지 1분 정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한 바퀴 돌고 추가로 또 한 바퀴 돌겠습니다.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이동근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술의 사회적 개입, 사회적 예술이라 했을 때, 저희 자바르떼를 봤을 때에는 예술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과 사회가 변하는 것, 키워드로 치면 변화죠. 그런데 급진적으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 서서히 습자지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변화, 그만큼 느긋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 내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웃음)

안영노 예, 감사합니다. 스며드는 변화, 기다려야 되는 변화를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연재 선생님.

정연재 사회적 예술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적 예술이란 개념을 새로운 예술이라 정의한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처럼 사회적 예술이란 것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죠.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추구할 수 있다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모든 예술활동이 '사회적 예술'을 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무궁무진스튜디오는 지난해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보면 '사회혁신으로서의 예술'로서 '인디뮤지션의 일자리창출', '지역 활동으로서의 예술'로서 어린이들이 '지역 안에서 뮤지션이 되고, 음악축제를 여는 기획자가 되어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는데요. 동일한 프로젝트도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예술이 되기도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기도 하고, 유통을 고려한 상업예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예술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로 규정할 수 없고, 프로젝트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예술이 사회적 예술을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 안상미 선생님.

안상미 저는 정연재 대표님과 오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 부가적 의견이 있을 때에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연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무를 맡기 전에는 혁신, 창의라고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연결'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뮤지션들과 음악 창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여가 시간이 많은 학생들만 혜택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닌지라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구상해야 하더라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저희 같은 작은 기업으로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재단이나 지역에서 연결 지점을 같이 공유해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라나는 소셜 벤처들에도 가장 좋은 지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실무 안에서 바라보니 혁신, 창의가 아니라 '연결'이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다음 임 대표님.

임경용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예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인데, 예술 자체가 그 안에 사회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 예술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혁신, 개입, 활동 등의 눈에 보이는 성과적인 지표가 아니고 예술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적인 지표로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영노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회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술 작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좀 더 들어 보기로 하죠. 김 대표님.

김현호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잡지《보스토크매거진》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보스토크매거진》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진제도 안에서 벗어나는 작가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제도라 하면 사진학과, 갤러리 등이 있는데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에 사고파는 존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대예술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면 사실은 그건 제도에 투항하거나 시장에 투항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희는 명백하게 시장 지향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론 잘 안 되어서……(웃음) 사실 작가들의 복잡한 영상을 보면 예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순수예술의 개념 이후에도 딱히 뭐가 되고 싶지 않은 작가도 있고, 퇴행하려는 작가도 있고, 작품을 만들수록 이상한 짓을 하려는 작가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유사 생태계가 된 것이 저희의 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지 고민하며 생각하시는 바들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노 퇴행하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도 자기 창조를 하고…… 이런 다양하고 이질적인 작가들의 생태계가 재단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이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김유진 선생님.

김유진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저는 '협력'이란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연결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분업을 하는 나의 몸과 협업은 다른 것 같아요.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부딪혔어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시민들이나 수강생들과 협업해야 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협업은 같은 걸 느끼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동시대적'인 것을 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시대성이 빠져 있어요. 보고서를 읽고 왔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적 예술을 아는 만큼 이해한다. 예술이 이렇게 있으면 그중 일부가 사회적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다 장르적 접근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예술, 전통적인 장르 예술,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은 분업을 하는데 협력이라는 질문이 최근 제기되었고, 그것이 연결이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동시대적인 감각을 느껴야지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르를 넘어서는 이야기는 꼭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두 번 더 드릴 텐데, 아까 한 이야기와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들으면서 생각해 주세요. 원탁과 연구 결과에 나온 결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원탁과 연구 결과에 나온 문장이나 단어나 본인이 주목해서 본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런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죠. 작년에 오셨던 원제로 다시 이동근 선생님부터 똑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돌아보죠.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할 때 두 가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기 소개는 세 번째 질문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선생님들처럼 가볍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탁의 연구 결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 나온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방식으로 설명하려 애써 주세요.

지난 원탁의 연구 결과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이동근 다 읽지는 못해서 나누어 주신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며칠 전 저희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음악하시는 사십 대 후반의 분이시고, 아이가 있으셨어요. 부부가 다 예술을 하면서 고민하는데, 젊었을 때는 예술만 해서 먹고살기를 희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기가 무척 어렵다고요. 자기 안에서 다른 것들을 기획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걸어가면서 들었는데, 저의 고민은 이런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지속성, — 지속성이라고 하기에는 근근이 현상유지의 느낌이지만 — 자기 재생산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나아가서는 재단의 역할, 공공 중간지원, 국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정연재 선생님.

정연재 굳이 한 가지를 고르자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술활동을 통해서 활동가나 기획자, 작가가 어떤 가능성을 보았는지,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새롭게 시도해 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수행단체

입장에서도 지원사업들이 계속 반복될 때 지원사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선 안 되기에, 재단이 끊임없이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월 말이나 4월 말에 각종 공모사업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상시적, 수시적으로 활동가나 작가들이 재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노 네, 안상미 선생님.

안상미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실무적인 것에 관련해 고민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무궁무진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나오기 때문에 보여 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기에도, 공유하기에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창동에서 새로운 음악 생태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팀이 음원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원을 만드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원단체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단체는 정량적인 수치와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 정성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참여 활동가, 예술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주시고, 활동의 기대 효과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사업은 세금을 쓰는 사업이기에 보고가 필요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은 제조업처럼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노 지금 세 분이 예술가들의 생존 활로, 자기 재생산, 재단이나 공공영역에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술가들은 사회에 어떤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보는 존재들이 수행단체니 이들이 계속 가능성을 보고 시야를 확장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상시, 수시지원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 마지막으로 예술활동은 오래 걸리고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믿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정량보다 정성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결과보다는 기대효과를 보는 식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임 선생님, 김 선생님, 유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경용 저는 더북소사이어티라는 서점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 미디어버스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점은 어쨌든 미디어버스란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미디어버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2008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때인데, 지금은 그때와는 지원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지원사업의 규모가 더 커지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훨씬 더 세련되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받아 책을 만들었는데, 연구 리서치 관련 책을 만들면서 예산을 갖고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독립출판을 같이 만들 수 있었죠. 결국 지원사업 때문에 저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지원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사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평가 기준과 자기 만족적인 수익 주체가 자기 만족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평가지표, 정량평가, 정성평가까지 포함해 모든 평가가 중요한 잣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영노 자기 회사나 단체를 이야기하니 좋네요. 기르는 고양이 얘기를 해도 좋으니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버스'로 시작하셨군요.

임경용 네, 저희가 지원받으면서 떳떳했던 건 저희가 하려는 활동이 돈이 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아요. 이것이 맞는 변화인가, 옳은 방식의 변화인가 생각해 봅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김현호 아마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말 연초가 되면 비평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적자가 나는 사업임에 분명한데, 사실은 복잡한 자아들이 생성되어 어느 때는 이게 튀어나왔다가 어느 때는 저게 튀어나왔다가 하지요. 예를 들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파급 효과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모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작업들이 뽑히길 바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리스트 업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소명하는 작업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 의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포장이기도 하고요. 저는 2009년부터 사진에 대한 비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편으로 작가의 입장에선 전시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 분명하지요. 자신의 작업을 모아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고 구축할 때, 주요한 변곡점마다 기금을 받았던 작가들과 그렇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이 많이 바뀌어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기 편한 방식으로, 지원받기 편한 방식으로 변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주요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나쁜가? 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잡지를 사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아예 포기하고 빵도 굽고, 마사지도 하고, 이런 젊은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잡지를 만들 때마다 '이 잡지를 사기 위해서는 두 시간 이상의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최소한 서너 시간은 재밌게 이 사람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잡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금과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면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원서 쓰는 사람들을 덜 괴롭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돕고 싶기도 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아까 두 가지 사이의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호 한편으로는 내가 낸 세금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 내가 경쟁자로서 떨어질 수 있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공정성을 원하죠. 선발 기준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이 정확하게 집행되는지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작업이 반드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자기 작업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도 하고 때로 거짓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소할지 항상 글을 쓰면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안영노 지원서를 쓰고 지원하는 방식이 좀 바뀌면 해결될 것처럼 느끼시는 건가요?

김현호 잘 모르겠어요.(웃음)

안영노 유진 선생님.

김유진 요상한 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원래는 예술교육사업이거든요. 예술강사들 지원하는 사업을 R&D로 돌려서 하는 연구사업이에요. 그런데 실행하는 걸 기록하는 연구사업이에요. 실행하는 걸 연구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여섯 개 진행하고, 예산 중 일부를 역량강화 비용으로 쓰게 하는 복잡한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검증해 줄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보통 사업별로 부르는 간담회라 하는데, 저희는 뽑을 때 좋아하는 작품을 가져와서 예술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생소한 방법이라 각자 방식으로 해왔지요. 사업 소개서를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교사, 예술 강사, 힙합 하는 대학생도 있고……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두 번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난 연구서에서도 원탁을 계속 열어 주길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핵심은 실행사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류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요즘같이 변화, 혁신해야 한다고 연구하고 머리 맞대는 게 본질적인 건데,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도 여러 개 예산을 억지로 끌어다 만든 거거든요. R&D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원서가 바뀌려면 예산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너무나 실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지원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재단과 다이렉트로 하는데도 예산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종류의 변화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나머지 세 분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지원이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행단체가 자기 만족하는 단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고, 평가가 달라져야 하고요. 평가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곳 사람들이 훨씬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평가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다음에는 딜레마 이야기를 하셨고요. 작업을 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작업해야 되는 상황.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어디에 맞추는 것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은 원탁에 빗대어 말씀하시고, 본인의 현장을 예시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류 자체가 실행인 것 같고, 본질은 연구나 사업이나 교육이 아니라 교류라든지 대화라든지 하는 공감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와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까지 듣고 본부장님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느낀 점 얘기하셔도 되고,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본부장 저는 말씀을 듣고 배우러 왔고, 나름대로 학습하기 위해 왔습니다. 실무자들은 일을 하는 거지만 저는 스터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경청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안영노 이제 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정책이나 지원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더 펼 수 있도록 짧게 할게요. 세 번째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려서 다시 두 바퀴를 돌아 보겠습니다. 유진 선생님부터 본인이 피력한 것 외에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2분 안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김현호 선생님, 임경용 선생님 쪽으로 돌겠습니다.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자기소개)

김유진 저는 이력이 조금 복잡합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IT기업에도 있었고요. 하자센터 같은 문화기획에도 있었고요. 조그만 회사도 만들었다가 망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멈추고, 재작년부터 '별일사무소'란 사업을 접고 나서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이 생겨 한 2~3년 동안 혼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명함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큰 전환기를 맞게 된 것 같아요. 그 전환기는 미투 때문에 왔고요. 미투(Me Too) 운동 때문에 2~3개월 정도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과 인생에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8년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3개월 동안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고 근본적인 것 같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독립기획자로 살고 계시고, 빠른 변화의 속도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변화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변화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 김현호 선생님.

김현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진비평가이고 출판편집자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도 미술평론이라 하지 않고 사진비평이라고 하는 건, 미술의 역사 또는 문화, 사진들의 역사까지 같이 혹은 두 가지가 중첩될 때는 사진들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글쓰기를 한다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학출판부나 공공기관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최근 한 10년간 무직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합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글을 쓰는 자신과 회사에 가서 기안을 만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서 기어 변환이 조금 더 쉽게 되는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보스토크 매거진》이라는 사진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구차해서 다 제외하면, 어쨌든 사진 신(scene)에서 새로운 잡지 하나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많이 절망적이었는데 운영한 지 이제는 좀 되었어요. 그래서 잡지를 계속 출하하게 되는데, 처음의 기세가 죽고,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잡지를 위해 온전히 바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진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잡지를 위해 편집장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빼고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 판매, 유통 이런 것들도 하고, 한두 개 정도 포지션을 잡아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되게 안 좋은 건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 했을 때 하는 일과 아이덴티티가 꼬여 있으면 나중에 자를 때 아프기도 하고 안 좋은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엉켜 있습니다. 사실 예전의 출판사들은 제가 대학출판부에서 처음 일할 때 항의 전화가 오면 5분 정도 들어 드리고 끊으라고 교육했었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말이죠. "알았으니 그냥 책 보내시면 저희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끊으라고 했는데, 요즘 독자들의 성향은 예전이랑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데요. 요즘은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 오디언스(audience)라면,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만들어서 팔고 한편으로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비평적인 행사를 하고요. 정말 많은 사기업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공모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진책을 만들어 주는 공모를 지난주에 들어갔는데, 출판사의 범주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연료가 될 때까지 집중할 생각입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경용 선생님.

임경용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기본적인 정체성은 책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드는 책들이 잘 팔리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밀어내는 방식이라기보다 지금 시장 안에서 유통되는 책들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것과는 좀 다른 책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과거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는 방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사업적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점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인동, 경복궁역 쪽 2층에 있는데 갑자기 옆 건물 1층에 서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했을 때 저희 같은 성격의 서점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의 주 무대가 되는 문화적인 구역에는 항상 몇 개의 독립서점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이라는 상업적인 모델을 가져왔지만, 사실 지금은 서점을 통해 책이 유통되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 괴리 때문에 상업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점보다 그 거점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 매출이 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책을 판매하고, 유통할 일도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도서관에 유통을 하거나 기획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다양한 표현의 방식들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서점이란 정체성에서 일을 해나가려 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안상미 선생님.

안상미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정체성 얘기해 주셨으니 여기에 제 얘기를 덧붙이자면, 저는 문화기획자 '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화기획자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대학에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문화예술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이후 주변에 음악을 만들거나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학교 앞에서 재미있는 일을 꾸며 보자 시작해서 마을 활동가처럼 활동하다 지역 재단의 제안을 받아 처음으로 사업도 진행해 보고 각종 공모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창업을 하려다 망했고, 그 단체를 대학생 동료들과 함께 치열하게 운영했지만 수익모델 짜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체였는데, 청년들의 자발성에 기반해 활동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 지역문화재단에서 잠깐 일하면서 그 생태계에 대해 배워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다 정연재 대표님하고 '무궁무진스튜디오'를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도봉구에서 '오픈창동'이라는 음악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에 기획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굳이 음악 분야로 활동 범위를 규정 지으려

한 건 아닌데 취미로 작사, 작곡을 시작하면서 음악예술 관련한 문화기획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 〈2017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프로젝트〉가 끝나고 담당 선생님과 따로 만나 기획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8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되게 외로웠거든요. 외롭다는 게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많이 혼났어요. 저는 당연히 몰라서 물어본 건데 교수님, 멘토님, 담당자 분들 모두 질문하면 왜 이렇게 어린애같이 질문하느냐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중간에 취업 준비를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 담당 선생님과 만나면서 저희에게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청년이 이렇게 취직보다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게 기특하다는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해서, 진짜 우리를 지켜보고 달래 주시는 것 같아 추진력을 북돋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영노 재단이 좋은 일 많이 한 거네요. 서울을 바꾸는 예술하고, 포럼 다 짜고, 자 그러면 공동 대표님 애기해 주세요.

정연재 저는 첫 직장이 사회적 기업 '노리단'이었어요. 문화재단의 지원사업도 하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기업 제안서도 열심히 쓰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과 주로 일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대행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고, 제가 처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려 했던 개인적인 목적과 꿈들에 조금씩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번 주말 창업을 해보자 시작했던 것이 작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프로젝트〉였어요. 그전에는 대학생 때부터 밴드 활동을 이어오다 회사에 다니면서 멤버들과 연차를 맞추어 클럽에서 주기적으로 공연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공연 페이도 없을뿐더러 같이 활동했던 밴드들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수많은 밴드들이 삼십 대 언저리에서 그냥 회사에 취업하거나 카페 알바 등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과 밴드 활동을 하면서 본 모습들을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죠. 아까 임경용 대표님의 창업 에피소드처럼 작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프로젝트〉에 선정되었던 지원금이 저희 사업의 첫 씨앗이 되어 주었죠. 작년에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것 자체로 인건비가 되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원했어요. 그러다 올해에는 작년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었던 결과 자료집과 영상 결과물들이 훌륭한 영업 자료로 활용되어, 지금은 작년에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기획한 '사춘기뮤직스튜디오'라는 음악창작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내에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도, 지방의 청소년예술센터에서도 캠프형, 단기형, 중기 프로젝트형 등으로 연결되면서 점점 저희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어요.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어울려 즐겁게 작업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돌아서면 휘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활동 과정 자체를 어떻게 콘텐츠화해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 콘텐츠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요. 아이들과 교육을 통해 창작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번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홍보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말이지요. 올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 스토리를 가진 일반인과 창작 재능을 가진 예술가를 연결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이것저것 다 해보려 해요. 무궁무진스튜디오를 설립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되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실행자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고민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안영노 자, 그러면 이동근 선생님.

이동근 지금 '자바르떼'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평사원에서 이사장이 된 좋지는 않은……(웃음) 저는 대학 졸업하고 노동문화운동 단체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도 몇 년 있었고, 2008년부터 '자바르떼'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계속 문화기획 쪽에 있어서 '자바르떼'라는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했고, 지금은 그런 유의미한 사업들을 계속하기 위해 지역 기획사업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단일 장르 조합이 아니어서 시각 매체나 책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아동 도서나 그림책, 만화책 만드시는 분도 있고, 풍물, 클래식 등 다양해요.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협업을 통해 조합의 콘텐츠도 만들고 활동 자체가 유의미한 사회공헌사업이나 공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활동하려 해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 6년째고요. 다행히 제가 내년에 임기가 마지막이라 더 이상 대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반갑게도.(웃음) 저도 잘 그만두기 위한 일을 내년까지 할 거고요.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음 대표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 관심사의 지속성과 예술가들의 협업에 대한 '자바르떼'가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서 사회적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족할 만한 결과나 목적을 확인한다면 계속할 거고, 만약 안 된다면 잘 접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접지는 않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은 예술가들이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책들을 확인하려 했는데, 지금은 이 안에서 계속 순환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사회적 무게와 협동조합의 무게를 조합원들이 같이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예술에서 다루는 '사회'는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들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이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책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전문 인력 사업개발 등 투명성과 가치를 준하는 한에서 잘 받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활용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들이나 사업이 아니어도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안영노 사회적 예술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동근 글쎄요. 영역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과 '경제' 부분에서 정의하는 경제가 그 뉘앙스나 역할들이 다른 것 같아요. 사회적 예술을 공공성 안에서 반드시 예술이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든 누려야 되는 기본권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적 예술이란 말도 예술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이건 당연한 건데 사회적 경제는 섹터가 다르죠. 일반 경제와는 다르게 육성하고 보호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차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예술이 보호되면서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동근 아뇨, 제가 얘기한 부분은 사회적 경제의 부분들은 일정 정도 보호되고 육성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회적 예술의 경우 앞에 '사회적'이란 단어가 붙어서 확실해지는 뉘앙스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걸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안영노 네, 우리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붙어 있는 '사회적'이란 말이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 생각하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고, 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진화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회적 예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여러분 회사가 하는 일 중의 일정 비율이 분명한 사회적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우리 단체가, 내 작업이 사회적 예술이라 놓고 이 질문을 받아보세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재고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활동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확장해 주고 싶어요. 또 지원제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발전적으로 설계해 보고 싶어요. 평가방법, 심사기준 등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모여서 고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적절한 명칭, 설명, 열린 개념 정의, 몇 개의 다양한 정의, 각자 앉은 분들마다 내 식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아니면 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사회적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대변하는 키워드는 이거다, 연결, 협력같이 몇 개의 단어들을 나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나 개념을 한두 가지 밝혀 시도하려고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적절한 명칭과 설명을 기술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 개념, 기준 등을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안상미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이'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 저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목표로 고군분투하면서 느꼈던 사회적경제학의 사회는 공공의 이익, 공공의 경제, 공유 경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예술이란 것도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일반적인 사회활동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함께'에 중심을 두며 같이 웃을 수 있고, 한 사람만 너무 웃지 않는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노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예술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정 선생님.

정연재 사회적 예술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고 했을 때, 작년에 참여했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명인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란 제목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요. '무언가를 바꾸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노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 선생님처럼 제일 중요한 기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생각나면 한 바퀴 더 돌 때 부차적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서로 영향을 받으시니까. 그다음에는…….

이동근 저는 누구나 열외 없이, 씨실과 날실로 엮어서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그 안에서 혜택을 받고, 예술의 향유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사회적 예술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국민이면 누구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노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예술로 보호받는 사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술가란 표현을 쓰셨어요. 그다음 유진 선생님.

김유진 아까 '협력'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사회적 예술이란 말이 계속 걸려요. 왜냐하면 특별히 반대해서가 아니고 특수한 시기라 나온 용어 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특수한 시기의 용어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향후 몇 년은 필요한 말일 거란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정의하라고 하니 혼란이 오지만…… 조금 전 '자바르떼' 대표님 말씀처럼 문화기본권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한 시기의 사회적 예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정의 내렸을 때는 협력이 키워드인데, 문제는 협력하자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라는 말도 추상적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종류의 신뢰인 것 같아요. 학연, 지연 등 기존 한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던 방식이 대부분 붕괴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동창회 잘 안 나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만나고, 한 달 전에 약속 잡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 시간이 분산화되어 있어서 만나기 어렵고, 학연이나 지연 같은 건 공정성 문제로 제도적으로 막잖아요. 과거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만 그런 것도 아닌 듯하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결핍들이 다 있고,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같이 일하는 것이 제일 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예술이란 것이 그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변화하는 형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그다음 임 대표님.

김현호 저는 사실 사회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회라는 커다란, 다같이 공존하는 공간 같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면 사실 피부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는 '생태계'예요. 생태계란 건 내가 먹고 배설하면 거기서 또다시 배설물을 통해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다시 거기서 뭘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엉켜 있는 관계들이겠죠. 이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로서 본인들을 인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에만 있는 작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방에만 있어도 실제로는 바깥에 있는 우리와 소통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제가 있는 분야는 사진과 출판 생태계인데 이쪽 생태계에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경용 대표님이나 저나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독립출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발달했어요. 발달이라기보다는 팽창이죠. 예전에는 책을 내려면 출판사가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선택과 발제도 했는데, 사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깝게 맞닿은 최초의 플랫폼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플랫폼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몇몇의 과도한 노동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진 쪽에서 기금 신청하지 않고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사진가가 있어요. 그분이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우리는 다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 양반 없이 어떻게 하지? 그 말은 몇몇 연결점의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면 분명히, 아마도 모든 생태계에서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분이 지탱하다 쓰러지면 다른 주체가 자의든 타의든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느낌들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사진 생태계를 예로 들었지만, 이 의미는 이 보고서가 논하는 사회라는 범주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원이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자신을 소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활동일까라든가, 저기서 버티고 있는 저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런 노력 역시 한 2~3년 정도 지나면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장기 지속의 측면에서

사회보다는 생태계를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네, 감사합니다. 임 선생님.

임경용 제가 지난 주말에 강릉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전통시장 2층에 화장실을 갔는데 강릉문화재단에서 공간을 조성한 것 같은데, 강릉 도지사 패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활용하지 않을 게 뻔해 보이는 곳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거죠. 패널이나 재단문화 자체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회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첫 지원으로 창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자체가 일종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사회적인 예술이라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작동되어 어떤 활동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간다 해도 자발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는 거죠.

안영노 감사합니다. 맥락 안에서 작동되고 활동되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근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예술이 맥락 안에서 작동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맥락 없이 자발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해야 될 얘기, 맥락을 찾아내고 맞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애쓸 만한 맥락부터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란 말을 자주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사회적 예술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애기해 달라 여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돌면서 추가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기준, 개념, 범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분 계시나요?

재질문 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김현호 제가 재작년쯤 광주 지역 언론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친구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4대 비엔날레라는 보도자료를 돌리고 있는데, 과연 세계 4대 비엔날레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계 4대 비엔날레라 할 수 있다. 충분한 비평적 역량을 갖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분이 그 질문을 한 건 광주비엔날레에 관한 심층취재를 해서 제대로 한번 다루어 보려 한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합류하고 저도 중간에 끼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문화기획 하는 분들 중 광주비엔날레를 대단히 실패한 기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중 한 분의 말씀은 광주비엔날레가 사실 하고 있는 것은 비엔날레 치르는 6개월 동안 제일 유명한 감독 찾고, 6개월 동안 튜닝하고, 6개월 동안 전시한다. 이게 과연 광주비엔날레의 원래 목적이던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발달과 아시아 문화허브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양쪽 생각이 대단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섞어서 얘기하지만 사회적 예술이라 부르는 것들이 아마도 문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생태계 구성원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화기획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양한 공급적 가치와 개념과 명분을 갖고 국가를 설득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반면, 예술가들은 그게 잘 안 되거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전면에서 만나 보고 교류하면서 저희가 항상 궁금한 점은 이런 사회적 문화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예술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과 자기 일만 생각하는, 혹은 조금이라도 아웃사이더 성향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공존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죠.

안영노 지금 기획자, 예술가 얘기하시면서 다른 시야를 만들어 주셨어요. 또 있으십니까?

김유진 비슷한 내용인데,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시민 안에 예술, 예술 안에 시민'을 주제로 예술가가 시민을 만날 때 대개 시민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잖아요. 미투(Me Too) 같은 것도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관점으로 변경하듯, 예술가가 시민을 만날 때 시민, 재단, 예술가, 모두를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맥락화하는 그 작업 없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에도 비슷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

이동근 최근 4~5년간 기금이나 공공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간에 모니터링 자문 겸 현장비평이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는 당시 아는 분들이 와서 단점도 잘 얘기해 주고 개선 방향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다른 사업을 하며 느낀 점은 세상 모르는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하다 가시는 모니터링이 많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모니터링이면서 피어컨설팅(peer consulting)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정답을 얘기하면 모르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하려면 수정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노 힘을 주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니터링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 현장에서 동료처럼 이루어지는 피어컨설팅 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맞는 지원이 무엇일까요? 유진 선생님.

김유진 테이블 분위기에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제 현장이 뭔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저는 회사가 없잖아요. 독립 기획자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게 어려워요. 여러 주체들과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분야도 개인이기 때문에 영리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좀 더 주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원사업의 다양성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제의 다양성뿐 아니라 소제, 범주, 주체 등이 다양화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회사에 근무하다 나왔기 때문에 제 경우 공공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공과 시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비영리적인 일들과 실제로 자기 공연단체를 꾸려서 티켓을 팔아 영리를 추구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섞일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촛불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걸 반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나란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댄스로밖에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인문학 베이스는 안 되고, 이런 융합적인 형태의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트라우마, 이 주제가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양해지는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네요.

안영노 한 바퀴 돌 때 더 많이 요구해 주세요. 다양한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

김현호 일단 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 방향 자체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적인 의미나 파급 효과, 또 넓은 범위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을 간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약간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 제도가 자신이 제도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은사가 어느 해에 서울문화재단에 악플을 달고, 다른 선생님 이름으로 지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예술이 역사를 갖고 있는 단어로 적절치 않고, 심지어 심사나 지원기준처럼 보여질 때 현장 예술가들 중 누군가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지원에 있어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출판 생태계는 전통적으로 사전보다는 사후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누가 일일이 이걸 다 보고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책은 결과물이 나오니 세종학술도서관 같은 곳에서 사후 괜찮은 책들을 사서 이후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요. 사후평가, 독립출판, 예술출판 등 추후 현금지원이 아니라 책을 사서 유통시키고 보관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 많이 이야기하는 등의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경용 우선 김현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사후 지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서 김월식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사 과정이 중요한 건 현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심사를 진행하느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죠.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는 범위가 커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작년에 참여했던 지원사업 몇 개 중 참여 학생 풀을 보유했더라면 쉽게 모객이 가능했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어서 직접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찾다 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언제나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프로젝트와 연결점이 있는 참여자 풀이 있다면 모객에 더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꼽자면, 역시 재단의 홍보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인프라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선정 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재단 인프라에 대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협력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이나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마다 적절한 멘토들과 매칭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점들에 대해 마음 열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연재 스타트업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예술의 반대가 되는 용어가 뭘까? 개인적인 예술일까, 자본주의 예술일까? 우선 개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발굴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 팀들이 사회적 참여와 연결되는 거창한 프로젝트에 지원하거나 경험하기에 앞서, 개별적이거나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실험부터 해볼 수 있는 트랙이 있고, 그 시도를 한 다음 2년 차에는 다른 개별 팀들과 연결되거나 프로젝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획들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서울문화재단의 크고 작은 기존 지원사업들 간의 연결고리를 설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작은 실험에서 시작해 사회적 참여로 연결을 유도하는 2년 과정의 장기 지원사업 형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공공기관과의 첫 만남으로 서류를 지원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사업 선정을 통해 공공시장에 데뷔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밴드 활동을 하며 처음 오디션을 보고 클럽에 데뷔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밴드가 클럽에서 활동하는 행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서울문화재단도 참여하는 크고 작은 단체들의 활동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좀 더 브랜드를 입은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노 재단의 매니저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동근 장기적으로 재단에서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영역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 가지 영역들은 차치하고, 보다 공공성 있는 긴 호흡의 사업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예술을 하는 섹션들이 설계가 되고

지향점이 있다면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긴 호흡으로 파트너가 되어 설계되는, 도덕적 가치만 주어지는 단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 호흡으로 신뢰가 기반된 파트너 사업의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는 이 사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만한 파트너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설계되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안영노 멘토링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바퀴 돌기 시작했잖아요. 김유진 선생님.

김유진 아까부터 나온 몇 가지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체들이 생존하는 데 사회적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단체가 5~10년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회적 자원인데,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 마케팅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중간 단계 학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사수가 없는 거죠. 사장 밑에 중간관리자 없이 사원이 있어 버리면 조직 와해되듯, 전체 사회에서 중간 단계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욕구를 덧붙이면, 지원책의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발 방식이 있으면 사업계획서, 사업취지, 수행 단계, 역량 진단을 하도록 설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능성 있는 팀을 찾는 데 실패하고, 사업의 맥락에 맞추어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팀들을 뽑을 수 있는, 수행성에 초점을 두지 않는 선발 방식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소재적으로 여성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를 여성적으로 다르게 보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민으로서 해봅니다.

김현호 잡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잡지도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를 실어 나르는 기계로 1900년대 초반 정도에 고안되었어요. 그다음 광고들이 우르르 빠져나가 잡지들이 묘한 생존방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요즘 잡지들이 선택받는 이유 중 하나는 텀블벅(크라우딩펀드)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심사를 거치치 않아도 되고, 텀블벅에서도 소재며 여러 가지 면에서 재단처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합니다. 잡지들이 다들 엄청나게 착해졌어요. 텀블벅의 후원으로 나온 잡지 중 반말하는 잡지가 없어요. 잡지사 대표, 편집장들은 보통 불친절했어요. 독자 쪽에 기대지 않고 광고라는 수익원 때문에 훨씬 더 고집세고, 우리는 그 당시 잡지들을 보는 게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티스트나 편집자들의 기세가 느껴지는…… 하지만 이제는 다들 다정한 잡지가 되었어요. 저희도 물론 존댓말을 하죠. 작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해요. 토지가 척박하다 보니 지원을 받기 위해 트렌드를 읽으려 하고요. 출제 경향을 파악하려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재단이 성향을 덜 드러내면 작가들이 덜 절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경용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활동을 하면서 '몬드리안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더치 예술가를 지원하므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라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량 안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더치(dutch)적인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고 확신이 되면 지원해 준다고 해요. 증빙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는 지원이에요. 그런 지원을 하려면 좀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한데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논의할 때, 이 사업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원을 실제로 집행했을 때 수혜를 받는 대상이 전파할 수 있는 게 뭘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상미 멘토링 얘기를 했었는데, 멘토링 하기 전 멘토님들과 멘토링 교육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멘토링 많이 해봤는데 결국 모든 책임은 본인 것이잖아요. 실패해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공동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저 같은 청년 기획자가 가장 고민하는 게 지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기획자들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생태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재미있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소명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연재 사회적 예술에 대해 고민하는 재단으로서는, 참여자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견인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원의 방향과 시점, 주기, 방식들이 다양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 지원사업이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 보릿고개잖아요. 마치 텀블벅에 다양한 프로젝트가 수시로 생성되는 것처럼 상시적으로 참여 단체나 예술가를 모집하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참여자들에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나 유형, 기준이 있으면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유진 저라면 유형 구분을 바꿀 것 같아요. (기존의 유형 구분은) 사회적 예술 평가 툴로는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 지원에서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맥락, 교류지원이라는 영역에서의 주제지원과 기획연구처럼, 이러한 형태로 각각에서 사회적 지원, 사회적 맥락, 활동 등의 기준을 세워 놓고 사업계획을 짤 것 같아요.

정연재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예술가들과 어떻게 성과를 공유할 것인지가 고민일 것 같아요. 재단 사업에 참여한 작가나 신진 활동가들이 지원 사업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과연 서로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게 멤버십을 가져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곁눈질로는 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게 되지만 기존 간담회나 결과 공유회에서 적극적인 연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재단 입장에서는 참여자들의 활동들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지, 활동가 입장에서는 함께할 동료로서 누구와 만나게 될 것이냐가 고민입니다.

안상미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생태계란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문화예술 생태계가 자생하고 지원이 없어도 돌아가는 걸 꿈꿔 왔는데, 예상치 못한 배설물에서도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항상 씨앗만 심다가 실패하고, 남겨진 것들로는 뭔가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실패한 걸 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실질적인 지원으로는 사업하면서 비슷비슷한 사업 팀들과 멘토와 지원기관이 서로 연결되다 보면, 이러다 우리 아이템이 침해되지 않을까, 혹은 복제가 쉽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제도와 공지를 많이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경용 뭔가 예술을 위한 예술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섹터에서 '사회적 예술'이라 하는 부분에서는 파격적인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요. 아예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쓸 수 있는, 〈Y-프로젝트〉 같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 평가하는 곳에 대해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몇 가지 리서치에 대해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호 자리 만들어 주시고 말씀 들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수자로서 소수 의견을 고수하고 싶어요. 재단이 주는 시그널이 훨씬 증폭되어 도달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쟁, IMF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쟁,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에 재단이 플레이어로서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게 저의 소수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드라이한 태도를 갖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받아 보기도 하고 정산도 해봤는데 한 시즌짜리 지원이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곳은 몇 개씩 지원할 수 있죠. 기획서, 노동, 정산, 노동 등 사실 자생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후에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지원제도는 받아도 지치고 안 받아도 지치거든요. 공연, 전시와 다르게 출판 같은 경우는 학술출판사들이 지쳐 있을 때 학술원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힘으로 다음 책을 출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죠. 사후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 해도 다음 책을 체인처럼 이어 나가는 효과들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영노 여기 있는 분들 중 한 분만 안하셨네요. 이동근 대표님.

이동근 한 명보다 열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질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이 세밀하게 시스템화되었으면 해요. 일반 사업들과 달리 한다면

사회적 가치, 성과를 내기 위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가적 도움이 되는 그 사업에 맞게 디자이너, 공연장, 사업에 맞는 지역 등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재단에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이란 기간은 성과를 내기에 짧으니 기본적으로 3년 정도, 3년짜리 지원이면 3년의 평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평가에 대한 것들은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영노 원탁 이후 우리들이 이런 모임을 조직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갖고 원탁을 짜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제를 심도화해 멘토링, 파트너십, 사후지원 등 지원방향을 제안할 겁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효진 씨가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모여서 임팩트를 내자는 식의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 일부를 발전시켜 재단에서도 듣고, 내년에는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좀 더 진화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업하고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후지원, 펠로우십 지원, 스칼라십 지원 등 많은 대안이 나왔습니다. 현장을 믿고 맡겨 자율적으로 연결되게 하고, 사회적 예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이 더 나아질 거라는 시그널을 현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 공모사업을 할 때 적절한 언어의 구사, 지원 트랙을 잘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제별로 다양화하여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단이 훨씬 더 친근한 파트너로서, 감성적 매니저로서 좀 더 발전시켜 완충 역할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지었고요. 장 팀장님이 1분 정도 피드백 해주세요.

장재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요. 빨간 줄 쳐 가면서 되새김질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많아 생각지 못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후 지원제도는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D 프로젝트 역시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진솔한 관계가 설정되어 재단이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이런 재단의 역할이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진환 저는 작년에 대타로 원탁을 진행했었는데, 머릿속에는 지역문화, 지역 관련 사업, 자치구 문화가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합을 맞춰 가면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임경용 선생님 말씀처럼 꼭 지역과 얽매이지 않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영노 자치구별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보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재단 지원사업에 대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효진 씨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진 개인적으로 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관계 맺기'였어요. 자문을 받으러 현장의 예술가, 기획자분들을 찾아뵙는 과정에서 재단과 현장이 신뢰가 안 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사업을 담당할 당시에는 제가 감시자 역할이 된 것 같고, 역할에 맞추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사고(無思考)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온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번 라운드테이블 외 다른 사업인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에서 재단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모임 리더 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파트너십을 맺어 가는 등 지속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려 시도했는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점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으시고, 오히려 재단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단 담당자들이 현장에 대해 가장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말에 포럼, 세미나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역부족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아 공부해 가며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동시대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트렌드의 속도감이 너무 빠르고 광범위한데, 재단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아울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신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적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외부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어서 시의성 있는 반응이 어렵더라고요. 혼자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노 끝났어요. 박수 주세요.(박수) 속으로 느꼈다가 생각난 소감인데, 재단이 하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사회적 예술'에서 취향을 드러내지 않게 한다거나, 드라이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알게 하려면 저나 효진 씨에게 전화 주세요. 공공행정, 민간재단에서 '사회적 예술'에 대해 정의하려 해도 절대 정의할 수 없으니, 잠정적 규정이나 오해가 없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훨씬 무색무취, 중립의 시그널이 생태계에 전달되기 바란다면 꼭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라운드테이블(2) 녹취록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라운드테이블(2)**	
일시	**2018.05.09.(수) 16:00~19: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참석자 (총11명)	**참석자**	이 로(유어마인드 대표)
		전희재(세븐픽쳐스 대표)
		한광현(오늘공작소 선임연구원)
		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
		신윤예(공공공간 대표)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표)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한아타(작가)
	코디네이터	김성현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안영노 사회적 의미의 개념과 사회적 예술에 대해 재단이 어떤 정책과 예산을 짰으면 하는지, 보고서 원고를 받아서 다들 읽어 오셨을 텐데요. 못 읽으신 분들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드리면 자유로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대한 연구〉 연구회의 때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사회혁신으로서 예술, 지역활동으로서 예술, 일상창작으로서 예술, 교육과 치유로서 예술, 사회행동으로서 예술입니다. 작년에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동기로 이런 활동을 하셨냐는 질문을 드렸고,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미래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주면 좋겠냐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탁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회적 예술'의 기준이라든지, 범주화라든지, 재단이 지원하려는 사업의 방향이나 방침, 가이드 등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지, 넓은 의미로 사회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예술과 관련해서 재단이 어떤 지원과 정책을 짜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려 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나아간 질문이라 볼 수 있지요. 라운드테이블 가이드 질문에서 드리는 건 작년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예술 활동의 목적과 혜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화를 시도했습니다. 도전, 혁신, 건강, 웰빙, 사회적 결속력 강화 식으로 특정한 기준이 아니라 열거해서 수집된 유형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올해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항목들을 정리하여 재단이 실행 주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적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끌어안는 지원을 개발하려 합니다. 또한 기존 지원방식에도 그러한 방향성과 지침을 적용하여 현장 활동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육, 홍보, 포럼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낸 연구물이나 토론에서 이야기되는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 올해 저희 연구의 후속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행의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원탁을 통해 연구 결과를 수집하려 하는데, 작년 같은 무거운 연구는 없고요. 올해는 원탁을 네 번 진행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년 보고서 중 실용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선택하여 열린 개념, 잠정적 개념, 또는 조작적 정의에 합당한 개념 등 다양한 복수의 개념들을 구상해 보고, 이러한 개념들을 실무자들이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받은 자료 중 작년에 진행한 열 번의 원탁을 토대로 별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보고서와는 달리 원탁에 쓴 내용으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안 읽고 오셨으면 나중에라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첫 번째 원탁을 진행했는데, 역시 지난번처럼 '사회적 예술을' 정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의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정의를 안 하고 가는 방법이 좋겠죠. 오늘 이야기하실 때도 개념 정의에 보탤 것을 제안해 주시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을 갖고 개념의 이런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고, 이런 언어는 저런 언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사회적 예술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부 산하단체 출연기관들, 지방지자체 산하단체 출연기관들, 지방문화재단도 포함됩니다. 이런 곳들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 저런 식으로 지원해 달라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이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저희가 사회적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 지역문화팀에서 얻어 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의 문제점 같은 부분은 저희 안에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영노 네, 오늘 질문은 크게 두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예술 개념을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사회적 예술에 개념과 요소 중 무엇을 채택하여 정책이나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 답해 주시면 됩니다. 원탁의 첫 두 시간은 제가 질문을 하고 돌아가면서 라운드별로 답변을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모으는 식으로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한 시간 30분 정도는 서로 편안하게 자유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탁의 퍼실리테이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두 시간 동안 제가 질문하면 3분 이내로 얘기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경쾌하게 돌겠습니다.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 정 시간이 없을 때는 해당 질문에 대해 두세 분만 답변을 받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공통 사항인데요. 특별히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특정 기관을 지칭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 주어나 대상을 분명히 짚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작년에 연구를 진행했을 때 한쪽 트랙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라는 지원사업이 돌아가고, 동시에 연구사업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2015~2016년부터 재단의 문화정책위원회라는 전문가 정책회의에서 '사회적 예술', '사회'와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담론 과정이 2년 정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상황이어서 2017년에는 현장에 계시는 예술가와 기획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출된 속성이나 주요 쟁점으로부터 재단의 역할이나 방향성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못 나아갔어요. 작년 연구진 분들이 현장에서 얘기하신 걸 정리했는데, 정리한 내용에 대해 현장과 합의하는 과정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된 내용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난 연구 결과로 400페이지 정도의 현장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후 재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 한 번 더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예술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문화예술계가 담론이 많이 형성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순수창작의 예술이 아닌 새로운 영역의 새로운 예술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실체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예술가, 활동가 분들이 모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 발언들이 무게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하여 다른 공공기관에도 현장의 의견들이 좀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이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재단이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노 오늘 이 질문지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첫 번째는 구조예요. 사회적 예술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나 단어나 범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울문화재단이 직접지원, 간접지원, 특별한 정책사업 등 일련의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건의 내용 등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부가질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질문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 그다음 정책의 도입 가능성으로 볼 때 이 개념이 중요하다 등을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 진행하려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기소개를 할 건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 세 가지 중 골라 주세요. 하나는 요즘 자신이 예술가로서, 예술과 관련된 기업체나 기획자로서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사회적 예술에 관련한 얘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예술과 관련되어 본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려주세요. 회사나 프로젝트의 의미를 소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사회적 예술과 연결된 것이면 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면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회사나 프로젝트의 의미를 간단히 소개하시고요. 본인이 어떠한 이력과 노하우를 갖고 살아왔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신 신유아 선생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아 문화연대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유아라고 하고요. 단체에서 노동과 관련된 현장에서 파견미술팀 활동을 한다거나, 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예술작업을 현장에서 작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는 사실 저와 같은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문화정책부터 시민자치와 관련된 지역 활동이라든가, 노동현장에서의 예술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노동현장과 관련한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안영노 이로 대표님.

이 로 저는 서점 '유어마인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로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독립출판이라는 이름의 책들을 유통하고요. 1년에 네 권 정도 책을 내고 있고, 매년 연말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아트북페어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는 '아마추어'란 것인데요. 독립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기성 출판 쪽에서 작가의 자격이 없이 스스로 출판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 책들의 수준이 다양하고 격차도 심하고, 그 안에 프로 같은 아마추어, 아마추어 같은 아마추어, 아마추어조차 아닌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독립출판만의 문제라기보다 독립영화, 독립음악 등 최근 DJ문화 같은 것과도 결부되어 있어요. 기존 사회구조에서 등단제도가 있고 기성세대가 인정해 줘야 다음 세대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구조였다가 다같이 깨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문화라고 보는 경향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 흘러갔던 아마추어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안영노 네, 감사합니다. 전희재 선생님.

전희재 저는 '세븐픽쳐스' 전희재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작가와 창작자들의 생활이 모든 활동의 키워드였고 그들의 정서 및 생활, 생각하는 부분에 공감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나 창작자 후원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형들이 많은데 서너 개 해당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으로서 예술로는 '서대문여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 창작자 디자이너들에게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일상창작으로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술디자인 제품을 선주문하고 후제작하는 방식, 그리고 재고가 남았을 때 그것들을 창작자 친화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해 계속 수익을 얻게끔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글을 읽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학 자판기를 만들어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설치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사회행동에 해당하는 운동을 직접 하기도 하고, 장르 없이 제가 공감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송상훈 대표님.

송상훈 저는 지역에서 기획 일을 하다가 청년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거버넌스 등에 참여하는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현실에서 사례들을 만들어 가려다 보니 문화예술을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공공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무중력지대〉 위탁운영 등 구청과 일자리 창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임팩트스테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신 대표님.

신윤예 저는 '공공공간'의 신윤예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서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실천할까 고민하는 디자이너 집단입니다. 저희는 창신동에서 길게 일해 왔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사회 문제인 혁신에 대한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아마추어로서 생산을 시작할 때 지역에 있는 노하우를 가진 생산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거리, 사업으로서의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가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광현 저는 '오늘공작소'의 한광현이고요. 오늘공작소는 6년 된 회사입니다. 오늘공작소는 도시, 기술, 청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 공간은 마포구 망원동과 종로 세운상가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도시 업무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3년째 미국 도시문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부, 서부, 동부를 진행했고, 올해는 남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세운상가에서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 준비 중인 것은 〈만지는 박물관〉이라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직접 체험하는 걸 제안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장벽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장애인인데, 장애인 아동들은 사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숫자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포커싱 교육이 안 되는 건데요. 저희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때, 도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는지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업은 매뉴얼 번역입니다. 주로 플랜트 관련 매뉴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가 들어가면 최소 3~4만 장 이상의 매뉴얼이 생산됩니다. 매뉴얼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쉬워요. 예를 들면, 매뉴얼라이터(manual writer)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을 손으로 들어 입에 넣는 것까지의 과정을 A4지 네 장 정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시스템이 완벽하다 못해 병적일 정도로 디테일이 있는 반면, 어떤 영역은 너무 엉성하다 못해 이로님 말씀처럼 아마추어라고 부르기에도 뭐한 아마추어가 실존하는 게 현실세계 같아요. 작년 라운드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생산자 역할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통에 관심 있는 예술을 할 수 있을까를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영노 한 번 더 해주시는데, 내 소개를 못해서 더 말하고 싶으시거나,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프로젝트, 열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의식, 사회 쪽 예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혹시 홍보 PR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재단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송상훈 저는 어쨌든 청년 예술가들에 필요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재단에서 창작지원같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과정에 많이 참여한 편인데, 그 부분들의 연계가 아쉬워요. 현재 제도는 단기 지원 위주라 지속 가능한 구조, 자립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 예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건 동의해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쓰인다는 거부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쓰인다는 규정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데, 사회적 기여도 되면서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구조들이 설계되는 역할을

재단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노 또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유아 저는 개인적으로 각 영역이 조금씩 다른 곳에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네트워크가 가능한 일이에요. 공간을 만들 때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단체 홍보관을 장애인에 맞춰서 해야 하거든요.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책자, 기술적인 것들을 위해 재단에서 이런 분들을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니, 재단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영노 신유아 선생님은 작년 원탁에서도 몇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이 얘기 하셨어요. 좋습니다.

신윤예 저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하려다 접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단발성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단계로 나가는 시드머니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벤트성이 많은 것 같아요. 기획 단계부터 정해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 지원사업을 낼 때부터 열어 놓고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구조를 짜 나갈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기업들이 다 정해 놓고 지원을 받고 실행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어떻게 수평적인 구조로 만들어 낼 것이냐를 고민하는 구조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미 기획사업에서는 마지막 결과물이 어떠할지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열린 지원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신유아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얘기 들으며 느낀 게, 현장에서는 일시적이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미 프로젝트 지원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일시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광현 지금 문화재단이 변주화된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대는 누가 봐도 힙합의 도시인데, 홍대 쪽에서 힙합 하는 친구들이 재단에서 지원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변주화된 문화를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재단 자체적으로도 유익할 것 같고 사람들은 공공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험이,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는 꽤나 많은 사회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이 절대적으로도 부족한데, 그나마 가는 곳이 한정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다시 유통 과정으로 돌아가면 프로덕션에는 지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유통시키는 카페, 공간, 갤러리도 뭐도 아닌 실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공간. 그런

분들이 기획서 못 쓰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경로를 알지 못해 힘들어해요. 지원을 잘 못 받아요. 실제로 활동이 벌어지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 현장성을 가진 곳의 지원 프로그램, 활동하는 공간들과의 협업, 그 안에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로 사업에 지원을 받았을 때, 만약 내년에 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것이 점점 갈수록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원받는 팀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비용 외에도 운영을 돕거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특별히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수업이 진행되어도 자세히 듣고 적용하지 않는데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서 복지 이면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배울 게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독특한 포인트는 그 개별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체가 하는 것과 다른 운영 안에서 생기는 면모들이 중요한데, 컨설팅에서 당신 프로젝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가이드를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장점을 더 보편적으로 바꾼다는 위기감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같은 개인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뭘까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외형이 아닌 이면에 있는 서류, 회계 등도 자주 떠올립니다. 이런 부분에 부족한 팀들이 주로 프로젝트를 벌이고 지원 신청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사실은 그런 지원이나 복지는 티는 잘 안 나고 성과화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어쩌면 이들에게 더 필요한 건 그런 부분, 즉 실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 주느냐는 각각의 솔루션이 있으니 그 하부에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희재 저는 신윤예 대표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잘하는 팀 계속 키워 주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스타트업 많이 하는 것처럼 인큐베이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실험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담 멘토나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영노 스타트업처럼 기회를 주고는 실험하고 검증하고 기다려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이로 대표님은 프로그램 실행 단체의 개성이나 장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고 대신 회계나 서류작업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나올 얘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질문에 재단이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송상훈 개념은 여러 하위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회와 예술이 들어가요. 사회적 기여의 의미에서, 예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일정 정도 현실적 합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명칭이 내용적으로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개념에 대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정립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범주로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지역, 혁신, 행동, 이런 부분들이 와닿는데, 이 중 행동으로서의 예술 같은 경우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결합할지 참 어려워요. 이 행동을 지원제도로서 규정하여 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결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지역이나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와닿아요. 자립 구조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부가가치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나, 경제적 가치 외에 문화적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영역을 아우르고 지역을 범위로 봤을 때 지역에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단에서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도 좋지만, 어찌 되었건 현실적으로는 자치구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역 단위에서 문화 생태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연결 과제를 구축한다면 생계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자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광현 저는 작년 작업에서 '사회행동으로서의 예술'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예술의 생각과 가장 근접해요. 개입이라는 원래 의미는 중재가 강하거든요. 개입 행동이지만 중재에 더 가까워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술의 기능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 예술이라는 테마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변주가 매우 복잡해요. 사회적 복합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관계기술이에요. 청년들을 만나면, 농담으로 제가 이 친구들에게는 노트북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 사과, 감사, 질문 이 네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해요. 네 가지가 다 없거든요. 결국은 관계성, 이런 부분까지 서포팅할 수 있는 사회 도구가 필요해요. 키워드로는 관계성, 시민사회 관계성에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 최근 홍대 라이즈 호텔이라고, 서교호텔이 새로 리모델링한 곳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협업하려 한 곳이 미국 에이스호텔 체인인데, 호텔이라는 곳이 숙박하는 곳이잖아요. 미국 호텔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비 신인데, 자연스럽게 호텔 투숙객과 로컬피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기 적합한 곳이에요. 항상 에이스호텔을 방문해 보면 공간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행위 결과로서 사회에 파급되는 효과로서의 예술에 집중한다면 보다 그것에 가가이 다가설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많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아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라 말하는 게 어려워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 안에서 나는 사회적 예술을 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활동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그게 왜 사회적 예술이냐고 묻게 돼요. 각자 사회적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모호해요. 오히려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살필 때, 예술에 대한 개념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개념부터 헷갈리는, 더욱이 대체로 포커스가 문화로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는 순수예술 행위에만 맞추어진 것이 아니죠. 범위도 넓고 각자 생각도 다른데 이것을 굳이 개념화해야 할까? 오히려 개념화하는 게 폭을 좁히는 것 같아서 사회적 예술이라 하면 내가 하는 게 사회적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슈를 던지고,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생활예술을 봤을 때 어디까지 예술로 봐야 할지 모호한 거죠. 예술 아닌 것이 없다는 것. 사회적 예술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결론은 개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로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쓰여 있는 개념, 문구, 정의들이 연구와 비평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나 연구와 비평의 언어는 사용자의 언어와 별도의 떨어져 있고, 또 그게 사실 별도여야만 영역이 가능하기도 해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늘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려 하는 편이지만, 연구의 부분으로 불려오는 바람에 조금 더 읽어 봤을 때 제가 느낀 한계 지점으로 보면 여기 잠정적 정의[1]에 범주를 부정하는 파트가 여러 번 나와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배제하고 시작하는 게 많은 한계점을 낳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파트가 일상창작으로서의 예술이라 조금 더 그럴 수 있는데, 유독 일상창작으로서의 예술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정의같이 느껴지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 과연 이게 배제될 카테고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도서나 출판 쪽에 온건한 주제의식을 갖춘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온건함이 변화를 일으킬지 말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변화를 외치자는 거죠. 하지만 그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출판이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이 어느 정도 배제된 정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번에 걸쳐 철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분의 목적의식은 철거를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혁신이나 행동으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기록하고 남김으로써 기관이나 재단이나 기업에서 할 법한 일을 개인이 함으로써 생기는 특수한 에너지가 생기고,

1)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잠정적 정의(2017년 연구 시)는 아래와 같음.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에게 관람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림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이다."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일을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단이나 기관이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비해 에너지는 약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결과나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에너지가 있지요.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순수예술에서도 배제되고, 사회적인 예술에서도 배제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윤예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기 나온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변화값이 크지 않더라도 문제에 대한 영감을 주거나 시각을 주는 다양성 자체가 주는 변화, 그 부분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정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워딩인 것 같아요. 확실히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 하면 어렵게 느껴져요. 훨씬 정치적으로 느껴지는데, 결국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견고했던 틀에서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들, 예술의 다양한 관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 예술에서도 분명 존재했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동, 예술이 어떻게 새롭게 사회에 개입하느냐에 관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와 관계를 엮어 나가는 기존의 씨실과 날실들이 흩어져 있었다면, 그걸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부분들이 사회적 예술가 분들에게 필요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상할 수 있는 비전은 사회혁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혁신도 방식이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스스로의 변화를 혁신이라 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혁신이라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변화값을 만들어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상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담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희재 저는 비평이나 연구자 입장보다는 사용자 입장에 가깝기 때문에 정의나 범주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바라보는 활동가 혹은 사용자들은 이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용자,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행동도 사회적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유형 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실제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해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

신윤예 저는 실제적 필요에서 긴급자금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적이나 공고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이요.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봄이잖아요.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에는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나 진흥원에는 자금들이 있어서 유용하게 쓰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발성을 갖고 사회적 예술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제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기 활동에 들어가는 시드머니 그룹은 이미 활동을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해 본 그룹과 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시드머니 자금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규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체들에는 더 큰 단위로 지원하는 자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적 다양성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척자(frontier)들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자금들이 모일 활로를 열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투 트랙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신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기존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에 보다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으면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개척자(frontier)들이 좀 더 클 수 있으면 그 분야에 자금이 모인다. 신생 그룹과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물 주기를 해야 한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송상훈 저는 방금 얘기하신 개척자와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예술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력을 보여 주는 팀들이 있거든요. 재단이 연구를 통해 분류된 영역별로도 있을 거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팀들 중 서울만 해도 여러 개 자치구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서 발제한 팀들이 존재하는데. 큰 틀에서 같지만 실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역에서 잘하고 크고 힘 있는 팀들, 좀 더 신생 팀들이 같이 커서 연결망을 이루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힘들에 주목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팀들이 뭔가 해보려 하다 2~3년을 넘기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움직이고 성과를 내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흩어지고는 하는데, 서울시 청년허브의 〈청년참〉 같은 지원사업에서도 절반 정도 문화예술 팀들이 지원해서 들어왔었죠. 〈청년참〉이 4~5년 가까이 되다 보니 거기에 거쳐 간 팀들도 어마어마한데, 초기에 지원받은 팀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짧지만 경험을 가진 새로운 자원들이 계속 진입하는데 소실되어 가는, 좋지 않은 순환구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유입되는 구조와 기존 활동력을 높여 가고 있는 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쭉 같이 커 갈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 그런 구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지역문화팀의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치구 단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취지와 유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재단에서 섹터가 분리되어 있지만, 창작지원 부분이 예산도 크고 지원팀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절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건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 창작지원을 받고 있는 팀에게 꼭 사회적 예술을 하라는 당위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 지역에서 연결망, 장르별 연결망 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발적 관심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함께하는 구조의 입체적 짜임새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광역재단이 기초재단에 대해서는 사업방향을 잘 제시하지만 재단 내 본부 간에 칸막이가 너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 유의미한 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수혜자 대상으로 권역이나 자치구 단위로 네트워크 엮는 사업들을 권역별 매니저가 꽤 많은 예산이나 행정력을 투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 예술' 내지는 '지역문화'가 섹터로 구분 짓는 것보다는 재단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재단 전반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쪽 지역문화본부에서 사회적 예술이나 지역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창작지원본부에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든지, 그것 이상으로 화학작용을 할 수 있게 설계해 줘야 하죠. 서로 공유하고 신생 단체가 함께 연결망, 공동체망을 구성해 생존력을 높이고, 신생 단체들을 생태계에서 끌어 주는 구조를 만들어 재단이 그것을 돕는 매개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희재 저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과 유사한데, 지난해 라운드테이블 결과만 봐도 고민을 다 들어 준 것 같고, 돈도 지원해 주고, 공간도 지원해 주고, 사람 사이도 지원해 주어서 좋다고 생각되지만, 단기적인 지원이 오히려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 싹을 틔우고 사람들 데뷔시켜 놓고는 다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 차에 포기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확률을 낮추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시적인 팀들을 발굴해 작품을 만들고, 그 팀들과 협의해 그다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를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분들도 괜찮은 팀들을 연결해 줄 능력이 있으실 테고, 그런 팀들이 잘해 주면 괜찮은 팀들이 들어와 오래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영노 싹을 틔우다 사라지는 확률을 낮추는 데 사업의 목표를 집중해 보자.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좋으나 실패율을 줄이는 데 집중해 보자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설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 견인해 주는 공공기관에서 홍보나 리스트를 공유하고 정보 안내,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단 직원들이 업무량에 치여서 못한다면 네트워크를 발휘할 만한 파트너가 협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로 대표님.

이 로 저는 지난번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 중에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아이디어〉라는 지원사업의 심사를 맡았었는데요. Y-아이디어, Y-메이커스, Y-프로젝트로 나뉘어 단계별로 지원금이 커지고 선정 단체가 적어져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의 사업이었어요. 저는 1차 단계의 Y-아이디어 사업 심사를 맡았어요. 그때 참가자들 PT를 보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데요. 다수가 부자연스러운 기획,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지금부터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내자는 가정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이슈에 대해 왜 관심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시작이 지금 밥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까라든지 그 이슈에 대한 솔루션만 제시하겠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Y-아이디어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2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기냐면, 재능기부의 사회적 문제를 꼽는 팀이 스태프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 재능기부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본인이 그 안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혹은 N포세대를 위한 축제를 할 거다, 왜 N포세대를 위한 축제냐면 N포세대를 부를 거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기획이 끝나는 식이었어요. 사실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심사하며 느낀 것은 과연 아이디어 단계의 200만 원 상금으로 많은 팀에게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단계가 필요한가. 이 예산이 메이커스나 프로젝트 팀에게 가는 것이 하나의 더 진지한 팀이라도 만들어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했어요.

그다음 재단 공고를 들어가서 봤더니, 예시로 4차산업, 기상악화 등을 들고 그 외의 것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사실 예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지원자들에게 이 예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회적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할 때는 그에 대한 가이드를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금액과 관계없이 이 〈Y-아이디어〉팀이 그다음 〈Y-프로젝트〉로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심사하면서 느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안 될 것을 알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다가 직원이 모르는 게 나왔어요. 지금 대출이 오늘 나오면 이자를 15일 이내인지, 14일 이내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은행 전체 연락망에서 이 모든 은행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부서가 본사에 있고, 본사에 전화했더니 1초 만에 14일이라고 안내해 주었는데, 서울문화재단에도 이러한 마스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업을 이해하고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지원자나 진행자가 잠깐 막혔을 때 이분한테 문의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죠. 그리고 〈Y-아이디어〉 지원사업의 기획안을 보면서 제일 걱정된 부분이 저분들이 제작할 곳을 아실까? 천막을 만든다고 할 때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이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재단 문화사업 전반에 걸친 연락처, 업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매뉴얼화할 수 있는 마스터화된 부서나 담당자가 있으면 단기 사업이라도 그사이 마스터하는 부서가 중심을 잡아 주고 조언해 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영노 얘기해주신 것들 중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던지거나 가이드를 짜 주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고, 현장에서 지원이 몰릴 때 다양성을 좁혀 버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 정도 얘기하기로 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보다 하나라도 더 진지한 사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사회적 예술도 굉장히 다양하고 작은 것들을 키워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지한 팀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프론티어가 되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틀을 잡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유아 선생님.

신유아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현장에서 노동자 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지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 영국에서 오신 분이 세월호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같은 건 잘 모르겠다고 했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영국에서는 국가적 재난 때 여러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고 국가에서는 기획안을 요청한대요. 각 단위마다 각자 기획안을 쓰는데 단체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지원금을 갖고 싸우다 보니 아예 사업이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심해져서 사업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안 싸우고 예술가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지, 예술가들이 만든 조형물이나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와 싸우는 일, 정부를 질책하는 일에는 후원금이나 주변의 모금을 받지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재단이나 서울시에 요청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난번 라운드테이블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이나 보관과 관련된 걸 신경 써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촛불탑이 또 한 번 테러를 당해 무너졌잖아요. 재단이나 시, 구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걸 국가적 차원에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문화계 안에서 보면 현장에서 문화예술 활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친구도 많은데, 제가 느낀 점은 행정 업무에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여는 것만도 종일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무실의 어느 컴퓨터로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행정 업무에 익숙치 못한데, 오히려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현장에 와서 업무를 봐 주신다거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보면, 실행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의 시드머니를 남겨서 해당 프로젝트 외 후속사업으로 이어갈 여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무실 지원금,

운영비 지원금과 같이 프로젝트만 딱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 지원만으로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는 단위에도 일정 정도 그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작품을 이야기했죠.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의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나 보관은 정부가 독립적으로 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니, 데이터베이싱, 아카이빙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문화예술 쪽 세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런 공공 문화예술 분야의 결핍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 있죠. 한 대표님.

한광현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두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서울기록원이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공공 이벤트들에 대한 아카이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많은 마을사업들이 회계가 안 되니 회계 관련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어요. 1~2년 정도 배포하다 말았는데, 지금도 구할 수 있고, 아직도 유용한 자료예요.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 다 되게 하더라고요.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사용한 큰 비중이 공간 지원사업이었어요. 제가 심사를 들어가고 결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4년 정도 추적한 적이 있어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팀들이 2년이면 죽어요. 1년 벌리고 다음 해에 100퍼센트 가깝게 문을 닫아요. 운영 노하우가 없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신 거죠. 서울시에서 3000~50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고, 조건은 우리 마을에서 그저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청들을 하세요. 정작 어떤 공간을 원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맞닥치면 헤매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는 것이 북카페예요. 서울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많은 숫자의 북카페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페 운영이 되게 어렵잖아요. 2년 차를 넘어가게 되면 제일 마음 약한 사람만 남아요. 그것도 2년 내로 다 나오는데, 거기 들어갔던 돈과 책이 손실되고, 기회비용도 손실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재단이 돈을 쓰실 때 자잘하게 쓰는 것을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재단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 들었는데, 넉넉지 않은 예산을 자잘하게 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 눈에 들어오면 따라붙는 게 있는데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셔서 되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것 중 뭐가 기억에 남느냐고 물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 빼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서울시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을 조사해 봤는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청계천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일반 대중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큰 게 필요하거든요. 먼저

세팅 모드에 들어가면 그다음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는데 세워지지가 않으니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고,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돈을 쓰는 방식을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특정 부분에서는 심사위원 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이 공연을 하는데, 제가 무용공연을 보러 다닌 것 중 우리나라 국내 무용단 한 공연이 평일 토월극장을 꽉 채운 걸 처음 봤어요. 4일 동안 전석 매진이었는데, 그전과 차이는 딱 하나, 예술감독이 바뀐 것밖에 없었어요. 안성수 예술감독으로 바뀌고 나니 운영 방식, 퀄리티가 다 올라간 거예요.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이렇게 효과가 크구나 체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 성과가 유독 안 나오는 사업들을 몇 개 골라 심사위원부터 냉정하게 물갈이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부터 제안드리려 한 건데,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기획서나 PT로 평가하잖아요. 저는 아주 가볍게 추천제도를 도입했으면 해요. 사실 문화재단 사업에 공모하는 특정 예술단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PT를 잘하느냐가 과연 마지막 결과물로 연결될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과산정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유독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만 대부분의 사업을 따 가시고, 멤버, 회사 바꿔서 계속 지원하는데 그런 건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돈 쓰는 문제가 서울문화재단이 공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방식에 있어서 영리적 관점으로 할 때, 과정에 대한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로서 나올 때 밸런스를 맞춰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재단 내에서 결정되면 잘하고 있는 팀들이 내년에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뉴욕에서 발견한 사례인데요. 문화재단 같은 성격의 단체가 파티를 열 때, 꼭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성격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열어 주더라고요. 저는 뉴욕 도서관에서 열린 파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 책 만드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여하튼 책과 관련한 일을 통해 사회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이 서로 만나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갖더라고요. 너무 재단 돈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돈을 쓸 마음은 있으나 어디에 쓸 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태의 네트워킹도 재단이 보증해 준다면 그분들도 쉽게 오실 거고, 일반 사람이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안영노 또 입장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윤예 대표님.

신윤예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제도보다는 실제로 비즈니스섹터에서 하는 여러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워드에 참여해 컨설팅을 진행해 봤을 때 사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비즈니스를 전혀 몰랐지만 비즈니스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행정, 회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야 규모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원도 있지만 여러 비즈니스섹터에 있는 컨설팅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자라면 한번 비즈니스 모델로 그려 보고 그 안에서 수익과 비용 구조들을 그려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지속가능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시드머니를 갖고 구조들을 굴려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나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컨설팅에서는 전문가 분이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의 핵심 역량 안에서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매니지먼트 툴을 굉장히 잘 제안해 주시거든요. 그것들을 조직 안에서 영역으로 다시 습득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에 대한 정보나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신유아 아까 서울기록원에서 아카이빙을 준비 중이라 하셨는데, 그건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거나 아카이브하는 거잖아요. 사진, 영상, 문서 등을 기록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청드린 건 작가들에게 창고를 지원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록과 보관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작가들의 작업 공간에는 예전부터 해 온 작품들을 둘 곳이 없어서 지역을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들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품들이 소실되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3~5년 정도 작가들에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유로운 창고 공간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작업실이나 집에 쌓이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다가 전시 때 쓰고 다시 넣을 수 있는 수장고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를 포함한 주변 작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 관련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곳에 경력단절 여성인 회계·세무 담당자 같은 부분 등을 지원해 주셔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 전반적인 운영 회계 등의 부족한 부분을 봐 주신다든지, 그런 분들을 몇 분 탄력적으로 고용해서 파견을 나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정산이 잘못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시간과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들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송상훈 이 얘기를 생태계 조성과 연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인 개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섹터에서 활동력을 높여 가고 있는, 좀 더 규모 있게 활동하려는 팀들을 중간 지점에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단 행정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재단의 규모를 무한정 키우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잖아요. 경력 등을 천천히 쌓아

가고 있는 팀들을 선별하여 중간 지점에서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의 역할을 맡기면 같은 민간 대 민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실무의 해결만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다른 시너지 효과를 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가질문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요?

부가질문2.

우리 사회의 고민을 드러내 주는 예술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부가질문3.

사회적 예술의 가치확산, 홍보, 인재양성, 교류협력, 공동의 사회적 임팩트 도모 등을
도우려면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할까요?

송상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아 요약하자면, 지금 일정 정도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척박한 여건에서 자립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쌓인 경험과 잠재력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 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공공성, 사업성을 포함하는 시장의 확장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아직 경험은 없지만 관심과 열의를 갖고 출발하는 팀들, 어느 정도 역량과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2~3년 차를 넘기기 힘든 이런 팀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커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 문화예술계 내부가 아닌 바깥쪽 시선에서 봤을 때 하나의 새로운 사회의 영역으로 펼쳐지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재단에서 이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신생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기존 선배 그룹들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해준다든가, 사이즈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경험을 살려 인큐베이터의 역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리더 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연결망 또한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노 이번에는 신윤예 대표님.

신윤예 앞전에 말한 것을 연결하자면, 어떻게 하면 기존의 활동력을 가진 팀들이 프론티어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내는 변화값을 잘 측정할 것인가, 어떠한 의미로 사회 혁신으로서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성장해 나갈 때 영구적 토대가 될 테니까요.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임팩트를 어떤 방식으로 트래킹하고 정성적인 것들이 어떻게 정량적으로도 수치화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생태계를 만드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만약 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려 할 때 많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신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랑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소셜벤처에서도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울시는 소셜 벤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획서들이 굉장히 많이 엎어지거든요. 기획, 예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상호 신뢰를 갖고 장기적인 민간 위탁, 협력 구조 등을 만들어 나갈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프론티어 그룹들이 생태계를 끌어가고 그 안에서 다음 프론티어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광현 저는 끝까지 관계성을 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발적 관계 단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가 SNS를 통해 쉼 없이 연결되지만 막상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이 도시가 해결하는 방식 중에서는 예술을 통한 방식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효과가 가장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관계성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제로 디테일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키워드가 저에게는 관계성인 것 같고요.

재단이 사회적 탄력성이라는 부분을 집어 넣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는 관계가 너무 촘촘하게 짜여 있고 빈틈이 없다 보니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 하거든요. 사회적 탄력성 자체가 높아지는 말랑말랑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재밌고 즐겁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각적인 것들을 서울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번 질문의 경우는, 제가 요 몇 년 동안 가장 재미있게 참여했던 게 〈멍때리기 대회〉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조용하게 비꼬며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첫 시작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층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여든 살이 넘은 분도 참여했는데, 여든 넘은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유연하고 진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신윤예 대표님 말씀에 100퍼센트 공감하고 있어요. 신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관계는 서로 피곤할 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뢰가 구성될지는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일단 프로세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양해해 주고 양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딱 떨어진 문서상으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프로세스로서 신뢰성, 해석의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문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프린팅된 건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변하는 걸 너무 자주 겪어서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막상 사인하려 하니 그날 다시 출력해 오면서 현장에서 서류를 다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 내가 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런 신뢰성이 있으면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노 신유아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부가질문 3번 알려 드릴게요. 아까 부가질문 1, 2하고 질문 3을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가치를 재단이 확산하고,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능한 현장 인재를 적합하게 키워 주고, 민간의 자생적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한 사회적 효용을 더욱 극대화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원사업 뭘 하면 좋겠습니까?

신유아 저는 사회적 예술이란 말 자체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사회적 예술이 아닌 게 없고, 게다가 규정할 수 없는 애매한 범주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함께 쓰는 말을 풀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이나 예술가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예술가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쉬운 방법으로 공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사실 지원받기 힘든 상황인데, 또 국가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용산참사 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였는데, 구술집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돈을 모아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과 관계없이 재단의 취지나 기조가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이로 대표님.

이 로 시나 재단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의 방향을 최대한 면밀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젝트, 사업, 활동이 약자, 소수자, 고립된 사람들을 향할 때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자신을 대상의 주체로 느끼게 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나 장이나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느끼는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지난 지원사업 심사 때 어떤 프로젝트가 아동 사건사고를 소재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건의 피해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사업 방향은 오히려 그 대상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치만 재확인하게 하죠. 사회적인 프로젝트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의식으로만 가득 차면 역으로 그 대상을 더 고립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고립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면에서 방향이 잘 설정된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사회적 활동 그 자체만 중요시하는 프로젝트는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영노 감사합니다.

전희재 3번 질문에 대해 얘기하자면, 여기 방법이나 방향성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문화재단이라는 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방향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비용을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지출된 비용을 포기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지나간 사업들, 기관에서 지출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포기해 버리는 쪽이 아니라, 유심히 바라보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면 더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안영노 감사합니다. 크게 다 돌아봤어요. 이로 대표님은 주체의 명예가 아니라 수혜자가 덜 고립되고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신유아 선생님은 사회적 예술이라 규정 지은 상태에서 네이밍하지 말고 풀어서 편안히 얘기하자. 그것이 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정부에 변화 상황을 언급하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겠죠. 여전히 논의나 담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으니 제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광현 선생님은 관계성 얘기를 하셨어요. 관계를 풀어 주는 부드러운 솔루션으로 예술이 있으니 폭넓게 보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데 쓰이는 방법을 재단이 좀 찾아라. 지원받는 사회적 예술 현장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재단이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윤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기관과 일할 때, 민간위탁을 받을 때 신뢰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잠재적 범죄자란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사에 기준이라든지, 발탁하고 선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면서 지원을 받을 때 실행의 주체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들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송상훈 대표님 이야기 중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2~3년 차 팀들이 함께 커 갈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고, 선배 그룹들이 견인해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해 주신 얘기들이 더 많겠지만, 결국 사회적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는, 재단이 다시 한번 돌아 봐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전희재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간 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관행이라 불리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팀에서도 본부에서도 계속 이런 자리를 갖고 일부라도 변화가 가능한 시도를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이유를 현장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일은 아니잖아요. 어제의 원탁과 오늘의 원탁은 톤이

달라요. 오늘 원탁에서 여러분들이 짚어 주신 문제들은 조금 더 서울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3. 라운드테이블(3) 녹취록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라운드테이블(3)**	
일시	**2018.05.10.(화) 16:00~19: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참석자 (총11명)	**참석자**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성효숙(예술가, 문화예술행동)
		홍주석(어반플레이 대표)
		정현식(예술수색단 대표)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윤성진(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한아타(작가)
	코디네이터	김성현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안영노 오늘 진행을 먼저 얘기할게요. 메일로 '예술의 사회적 활동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안내' 관련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인 제가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배경과 원탁에서 이루려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재단 측에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탁의 진행 절차와 대화 방식, 일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면접/토의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섯 분이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100분 정도 진행한 후 자유토론을 50분 정도 가진 다음 15분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집단면접/토의 방식의 퍼실리테이션과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임이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시점은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지난해 후속 작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실행은 급히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재단과 이번 논의와 관련된 실무자 분들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을 실제로 잘 반영하도록 대화를 잘 나누는 것입니다.

김효진 작년 연구에서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는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주요 속성과 방향성, 그리고

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예술'이란 개념과 범주가 광범위해 현장의 의견이 생각보다 좁혀지지 않았고,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작년 연구진 분들이 연구한 현장 활동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기초 분석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정리된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아가 실제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려 합니다. 라운드테이블 이후 안영노 선생님이 세부 가이드를 도출해 주실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콘셉트로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기반조성사업, 기획사업의 총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영노 이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선생님부터 해 주세요.

이재준 이재준입니다. 저는 예술가는 아니고 건축가이고요. 집을 짓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그게 기획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초등학교와 아이들을 접목시켜 학교 바로 옆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상상만 하다 좋은 기회를 통해 실험한 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성효숙 현장을 넘나들면서 꿈꾸는데 80년대에는 노동 현장에 들어가 노조활동, 노동운동을 했어요. 2009년부터는 심리사회적 지지로서 예술, 예술치유 그룹인 '약손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내면과 사회적인 외면을 통합하는 것으로 심리치유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치료라는 용어가 주는 문제와 거부감은 분명 있어요. 기존 예술치료는 건강한 사람들을 문제 있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심리적인 내면의 문제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심리사회적 지지로서 용산참사 부상자들과 작업한 것을 토대로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또한 자본의 과도한 생산력과 질주라는 고민 속에서 생태환경과 멸종위기 생물에 관심을 갖고 예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천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에 관련된 활동, 심리사회적으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 아동, 여성들과 공동체, 소통, 융합 예술표현을 실험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뜬 패와 두레패, 밀실과 광장을 넘나들고 있지요.

안영노 사회적 예술 중에서 소통예술의 방향으로 확장 발전하고 계시군요. 오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메일에서 알려드린 대로, 사회적 예술이 우리 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재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방향, 방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어떤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홍주석 2013년에 〈어반플레이〉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는 동네〉로 동네 콘텐츠 아카이브를 해서 디지털로 알렸습니다. 영국의 로컬플레이어를 알리는 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그들이 자립 가능할지를 소개했고, 출판으로 《아는 동네 매거진》을 만들어 한 동네씩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로는 도시 안의 소상공인, 문화예술인을 홍보하는 지역 단위 프로젝트인 〈연희 걷다〉를 진행 중인데, 강북 지역 아티스트들과 소상공인이 같이 시너지를 내는 커뮤니티 중심 작업입니다. 작년부터는 실제로 〈어반플레이〉가 생각하는 문화공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실제 사라져 가는 동네 상점들을 문화적 성격을 지닌 문화공간으로 이끌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보려는 취지로, 세탁소, 철물점 등 시대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을 같이 쓰고 나누는 빌리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현식 그림을 전공하고 디자인 사업을 했었어요. 2011년에 수색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무관심한 마을이었어요. 재개발을 20년 동안 추진하는 곳이라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마을인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특히 빈 집, 빈 점포가 많고,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무서운 마을이 되어 버렸어요. 2014년 말에 후배들을 만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과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재발견'이라는 비전으로 '예술수색단'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역에 비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찾아가 임대 중임을 홍보하며 전시를 하는 〈임대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색동에 오래된 이야기, 문화유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활동 등을 결합한 마을여행을 진행하면서 사라져 가는 마을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참 재미있게 활동하다 4월에 강제 이주로 인해 집은 이사했고, 현재는 재래시장 빈 점포에 사무실 겸 전시공간을 차렸어요. 사실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재미나게 한 활동들이 재개발로 반 이상 사라져서 고민 중이에요. 이 자리에서 힘 받고 가려고 참여했습니다.

안영노 저도 슬럼프예요. 원탁에서 힘 받아 가는데, 정 대표님도 힘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김월식 〈무늬만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실패했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가장 힘든 게 지역과의 관계예요. 인덕원에 십수 년 살면서 자신 있었는데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동료들한테 못된 리더가 된 게 제일 슬펐어요. 열정페이에 해당하는 돈도 못 주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뭐냐는 말로 꾀어서 몇 년 동안 애들한테 못된 짓 했죠. 주위 사람을 잃는 아픔이 많았죠.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다는 자책을 하고 나서 다시는 지역 공동체 같은 것은 안 하고 무늬만 같은 얍삽한 것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웃음) 저는 이제 일개 예술가일 뿐이에요. 목적성을 내려놓아서 그런지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났을지라도 관심없고,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지역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2주 전에는 지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얻은 공간이 오원춘 사건 근방이에요. 동네 치안이 엄청 좋아졌어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많아요. 재개발은 확정해 놓고 진행도

못 하고 있고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지동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작품을 만들고 지원금을 받아야지 식의 지속 가능한 타성에 젖을 것 같아 안 하고 있어요.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에서는 지원금에 대해 얘기하지만 정작 저는 야생에서 살고 싶어요. 3년 전부터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에서 삶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일, 일이 아니라 삶으로서 문화를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더디고 느리고 느슨하고 나태하고 무늬만 커뮤니티처럼 진행 중인데 잘 안 돼요. 〈다사리 문화기획학교〉를 거친 친구들이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와요. 조직문화가 문화적이지 않아서죠. 청춘을 바쳐서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없고 나와서는 문화재단 욕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성과구나(웃음) 생각하게 됩니다.

안영노 오늘 이 자리의 화두는 예술이 사회적이지 않은 적이 과연 있느냐 같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방향성과 방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적이지 않게 전달해야겠죠. 정책언어를 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시대에 맞는 걸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새로운 예술 중에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찾을까, 예술이 사회적이지 않은 적이 없거나 시그널을 잘못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규정을 하지 않는 대신 가능한 대안은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살아 온 이력 중 내놓고 싶은 것, 공유하고 싶은 것,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일, 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 제일 관심 가는 것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윤성진 선생님.

윤성진 다사리 문화기획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네요. 저는 지금 작은 축제학교 교장을 맡고 있어서 축제기획자를 양성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돈 되는 일 반, 안 되는 일 반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제도권 문화기획사업 중 주요 정책사업 몇 가지를 기획하고 있는데 머릿속이 분주해요. 내일모레 비가 온다는데 〈밤도깨비 야시장〉을 닫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남산골야시장〉도 문을 닫아야 하나, 〈한강몽땅축제〉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를 기획한 지 몇 년씩 되어서 발을 빼기가 힘드네요.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중인데 계속 내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해지고 있어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 중 제일 신경 쓰는 일은 〈한강몽땅 청년코디네이터〉 같은, 저기 앉아 있는 김성현 씨 같은 코디네이터를 1년에 30명씩 키우는 작업이에요. 현재 4기째 진행 중이며 40명을 뽑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젊은 문화기획자, 리더가 될 만한 기획자를 발굴해 서울에서 네트워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까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연결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덜 공허해집니다.

저도 계속 꿈만 꾸고 있습니다만, 제 꿈은 쉰 살이 되면 시니어 연기자를 모아 실버 뮤지컬단 대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어요. 꽤 오래전에 공연기획 일 손을 놔서 예술과 멀어진 것 같지만

배우러 왔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서 들으러 왔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지는 말아 주세요.

정현식 수색동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올해로 110년째 영업 중인 수색역, 150년 넘은 보호수 나무, 1930년대부터 가동된 수색변전소, 오래된 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색변전소는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지중화될 예정이에요. 이런 공간이 자본의 논리로 인해 미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 마을의 이야기 등으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마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등에게 말해도 일개 개인이 말하다 보니 이야기 전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사라지더라도 지금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공간에 있는 오래된 나무나 그 밖의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가꿀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공론화되었으면 합니다.

안영노 공동의 작업, 공론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재준 저의 요즘 관심사는 기획한 것을 어떻게 실제 활동으로 만드느냐에 있어요. 저의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집과 동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찾는 일,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보잘것없고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비일상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상이 행복하지 못하면 비일상적인 것은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한참 쉴 틈 없이 바쁘고 힘들었을 때 비로소 내 일상의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 셋의 아빠예요. 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일상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아이들을 위한 작업실과 엄마들을 위한 카페를 한 공간에 만들었어요. 노 키즈존을 만들어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엄마들도 여유 있게 책 읽고 쉴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을 만들었어요. 2년 동안의 실험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요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바우하우스 같은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미래 100년을 보아야 하는 학교에서 100년 전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학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은 곧 저의 노후를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윤성진 저는 실버뮤지컬단이 제일 큰 꿈이고, 지금 고민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공연기획사를 8년간 하면서 연극하는 배우들이 먹고사는 걱정 없이 공연하게 만드는 기획자가 되려 했으나 오히려 배우들과 금전적인 분쟁이 생기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꿈꾼 건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문화기업을 일구어 나가면서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밥벌이를 하는 구조가 가능한가에 관심을 갖고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하려 합니다. 공공 의존도를 점점 줄이면서 민간이 공공 프로젝트들을 민간으로 가져가는 작업들을 실험하는 단계예요.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강몽땅축제〉도 공공 11억, 민간 30억 원 정도이고, 〈밤도깨비 야시장〉은 5대5 정도예요. 사실 이건 공공의 시스템을 처음에 강력하게 투입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이것과 무관하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획자들이 기업과 문화를 기부 형태가 아닌 매칭으로 기여하며, 기업에도 기여하고 문화에도 기여하며 끌고 갈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월식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전교 900명 중 제가 850등이었어요. 작년에 850등에서 900등 동창회를 했어요. 전교 꼴등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너무 잘나갔어요. 친구들이 "김월식, 예술이 너를 구원한 거라고. 그게 아니었으면 네가 뭐가 되었겠느냐." 하더라고요. 예술을 해서 어머니가 예술을 직업으로 생각 안 하시고 동년배에 비해 불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동창회에 가 보니 다들 돈도 많이 벌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에 비교하면 저야 잘살지 못하지만, 예술을 하니 예술가의 취향이나 관점으로 견디는 걸 어머니는 측은해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세상에서 행복의 척도는 다양해요.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설파 중이에요.

조금 편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덕후들이죠. 열심히 노는 걸 꿈꿉니다. 일련의 지원 방법이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들이 제도화될수록 다양성이란 건 표준화되니까요. 어떻게 다양한 것들을 변주해 주며 지원해 줄까가 고민이잖아요. 예술가나 단체들도 공공영역 바깥으로 나와 자율성에 기반해 활동하는 걸 보면 지원사업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역에서나마 예능, 예술적 특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개별적인 자기 작동원리에 의해 움직여요. 뭉뚱그려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개성을 발굴해 주며 사는 방식을 고민한다면, 이건 사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처럼 무언가 바뀌어야 할 게 아니라 '예술은 무엇일까'라는 원론적인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기획, 교육, 공공미술, 커뮤니티 등 굉장히 맞기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는 색칠공부 많이 하잖아요. 가이드가 있어요. 열심히 칠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무서운 게 그걸 넘어가면 안 될 것만 같은 강박 속에서 그리게 되는데 사실 선을 좀 넘으면 어때요. 예술성은 그 선을 넘어서는 모험심과 위법과 위반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지원사업은 늘 그런 것과의 긴장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외국만큼 행정, 지원제도 등이 충분히 훌륭해요. 우리는 그 시스템의 문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홍주석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인한 지역문화 창작자가 많아진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기획자는 많은데 2000만 원 단위 프로젝트를 받아 시작해서 그다음 자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멘토, 사회적 구조, 생태계가 없어요. 윤성진 감독님도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많은 기업들,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을 문화예술과 어떻게든 접목시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습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해요. 문화예술에는 자본을 들여 많은 대중이 향유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매개로서의 중간 단계가 빈약해요. 그런 것들을 재단 등에서 지원해야 해요. 초기에 키워내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 외에 자립 가능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남방앗간〉 같은 프로젝트도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이 창작자이자 크리에이터예요. 고립되어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동네의 오래된 빵집이 지역의 가치를 실현해 낸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가치, 실제 가치 자체가 수익실험인 거죠. 문화기획자의 공간 베이스인 리테일(retail)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테일 공간들은 온라인 유통체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문화로 채워지면 도시 안에서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효숙 앞에서 언제 예술이 사회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하지만 그사이 엄청난 인정 투쟁이 있었어요. 그것이 현재 동 세대에 와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사이 많은 사회적 예술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그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변화해 가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의 첫 포럼 동기가 당시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새로운 예술이라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현존했으나 이제야 관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아닌가 해서 반가웠어요. 70년대 마당극, 탈춤 부흥운동은 절대로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80년대 폭발적으로 일어난 문화예술적 양상들로 인한 양적 변화가 계속되어 왔고, 질적 변화도 일어나는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양적 변화에서 좌충우돌하며 저 자신도 성장했어요. 예술치유, 소통미술을 하며 심리사회적 지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인간적 시점에서 새의 시각, 벌레의 시각, 상대성 이론 같은 시각적 변화, 영적 변화 등을 거치면서 고민하고 달라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건 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그룹들이 성장해 왔더라고요. 교육단체, 환경단체, 사회단체들, 예술가들이 나름대로 성장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각자 세월 속에서 성장한 고민들을 어떻게 융합해 갈까를 고민 중이에요. 저는 그동안 사회적 활동과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그것들을 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성장해야 할 청년 문화들은 자립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몇 년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지원 가능한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영노 한 바퀴 돌아봤어요.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현재 재단의 이런 사업은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보자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의 게임 룰은 2분 정도 짧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 발언에 반대 의견이나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면 고개 끄덕이고 맞장구쳐도 되고요.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 예술가 등에 대해 얘기할 때는 대상을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윤성진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풀어내 기업의 문화예술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인데, 단순 기여가 아니라 기업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논의는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기업, 예술단체, 기획자, 재단, 누구의 책임인지? 어디에 대한 책임인지? 사회, 개인, 역사, 세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커뮤니티 측면에서 예술의 책임을 생각할 때 도시, 자치구, 마을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할 때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지…… 결국 예술활동의 결과론이 아니라 방법론의 다양성, 확산성, 창조성 등이 활동에 적용되면서 추동시켜 내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나올 수 있는 결과물로는 치유, 재생, 창조, 융합 등이 아닐까요.

이재준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회적 예술이라는 것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 같아요. 사회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사방에서 얘기하니, 무의식적으로 예술도 사회의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듯해요. 그런데 예술이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예술이 중요한 것은 드러냄인 것 같아요. 개인 삶의 드러냄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드러냄을 위해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도 있어요. 저는 건축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장소, 관계, 일상을 통해 사회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어요. 오래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는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거점으로서의 장소가 있어야 주변과의 관계가 생기고 지속되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깁니다. 또 장소와 관계가 지속되면 일상이 되기에 지속가능성을 갖고요. 일상화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정현식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 점들이 잘 어울려야 하나의 그림이 되죠. 그리고 점 하나를 그리기 위해 주변의 색감, 공간, 위치, 형태 등 다양하고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예술의 영역을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사고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고민과 실천들이 개인 예술 영역에서의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로 확장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이자 시도라 생각하고요. 넘어가는 경계에서 나에게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스스로 들여다보면 더 많은 사회적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예술 활동 자체가 혁신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양한 도전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술 수색단이 했던 활동들이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간과 심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 도전의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질타하시던 지역 주민, 상인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성효숙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핍된 것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외'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때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회적 약자'가 많이 쓰이죠. 핵가족과 파편화된 일상에서는 상대적인 '공동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반디와 너의 꿈을 보여줘〉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의 꿈, 주거의 공공성, 생태계의 꿈을 프로젝트에서 표현하려 했죠. 이런 개념들은 반대급부가 있기에 저는 광장 속에서도 밀실을 늘 원하지만요. 안과 밖의 통합, 개인과 공동체의 넘나듦, 광장과 밀실의 문, "심리사회적 지지로서의 예술치유"를 하는 입장에서 '소통'을 중요시해요. 사회 변화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또는 변화의 와중에 예술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순관계에서 예술은 그 사회가 갖는 갈등과 함께하고 또 친구가 된다고 봐요. 오감을 넘어서서 영성이 포함된 사회적 예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전일적으로 통합된 예술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주석 사회적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 자체가 사회적이다, 아니다보다는 예술을 매개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개체로서의 예술이 존재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드는 중심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인 커뮤니티의 복원을 예술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들이 예술창작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결국 사회적 예술이라기보다 예술 활동을 통한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월식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문화다양성, 삶의 다양성, 생태계를 예술이 견인해요. 역할만 생각하면 다양성의 취지가 단순화됩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시민의 관점, 창작문화, 교육, 모든 영역들이

들어왔지만 삶의 다양성은 문화다양성과는 무관해요. 목적성을 만드는 결과에 함몰되는 거죠. 예술이란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바라봐야 하는데 다양성, 지향성 등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결국 예술의 근본적인 철학에 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통, 창작이 다 들어와 예술을 기능적,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위계적 태도에 재단의 문제의식이 있다고 봐요. 생태계 자연의 '자(自)'와 자율성 '자(自)'는 같아요. 종의 다양성을 보장했을 때 훨씬 더 조화롭게 움직이죠. 지원사업을 잘못 운영하면 종의 다양성이 훼손됩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깊은 성찰과 문제의식, 접근법, 그리고 개념 언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위해서는 정책 용어도 필요하죠. 예술가만이 아닌 시민들에게요. 번역의 행위입니다. 알기 쉬운 언어로 교육해야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

이재준 양적 팽창, 질적 향상, 공공 용어이기는 하지만 참 중요한 이슈예요. 대부분의 사업이 양적으로 하는 평가를 해요. 사회적 현상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 질적 향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 공공의 범위에서는 인정도 안 되고, 평가도 어려워요. 공공의 영역이 기준을 세워 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버는 일이 좋을지라도 누군가는 100명을 불러들이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예술의 가치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만한 지표가 없고, 보통 전자에 치중하죠. 이 부분에 대한 목표점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고 100명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결과라는 식의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윤성진 작은 축제학교에서 리, 동 단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주도형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결과보다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 기획에 충실했느냐가 축제 결과에서 잘 드러나요. 결과만으로 축제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걸 망치니까요. 결과로서의 예술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예술. 결과로서의 작품이나 결과물 전시, 공연, 과정으로서의 커뮤니티 활동은 네트워크, COP 과정 등이 중요한 지원이 되어야 하고,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예술에 집중해야 되죠. 일종의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예술활동을 촉진시킬 만한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는 작업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일지라도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보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에요.

김월식 동의해요. 접근방식이 중요해요. 지원사업의 목적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식의,

상황적인 걸 설정해 두고 시작해요. 그건 비슷한 걸 양산하는 구조적 한계의 지원이에요. 안타까운 건 예술가들이 전통적인 예술의 개념을 빼서 예술이 없어요. 시민단체 등의 문화적 단체에는 오히려 예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시대 예술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해석을 잘해 가이드를 내야 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홍주석 지원정책을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프로젝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식이라면 똑같은 것만 복제될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역마다 전시, 공연,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작게라도 공간을 운영해 시민들과 공유하려 한 작은 공간들이 공공기관에 의해 죽어 가요. 생태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술가 입장에서 안정적인 지원은 없고 프로젝트성뿐이라 그 피로감으로 인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보장하기 힘들어요. 2~3년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효숙 변화에 대한 초점이요.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 포함해서, 예술은 사회적 틈을 만들어 내고 흔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과정과 결과는 모두 고민되는 부분이지요. 어떤 상(像)과 비전을 누구와 그리고 있는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과정은 어떻게 흐르고 있고 또 어디까지인지,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겠지요. 사회적 예술의 다면화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다면화를 위해서는 기획도 중요하지요. 지원에서 기획이란 것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기획자가 중요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획의 지원은 너무 적더라고요. 사회적 가치와 변화를 어떻게 흔들거나 협력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예술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기획이 중요해요.

정현식 예술가나 문화기획자들이 지원받는 대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혁신의 주체로서 저 자신도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 변화의 일원이라 생각하고 활동해요.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혁신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인식도 중요해요. 사회적 예술활동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해서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사회혁신가로서 인정하고 후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평가지표 과정에 동의해요.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지역활동 사례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된 재래시장이라 간판이 없어서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이 상인 분들과 함께 간판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 평가받을 때 오로지 금액만 얘기하고 과정을 안 들어줘서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네요.

부가질문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요?
— 사회적 예술의 개념들 중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홍주석 개선사항은, 재단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의 성과가 있으니 보다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해요. 재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주체를 양성하고 크게 바라보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계 및 아트펀딩 등을 같이 연계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성효숙 변화를 바라고 상상 속에서 뜻한 바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절실합니다. 재단이나 지원이 없었을 때, 또는 이전에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일이었기에 관에서 지원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재단이 생기면서 기금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일이란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기에 합법적 일을 할 때는 기금 신청을 하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콜트콜텍 투쟁의 사회적 예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단이 과연 있었을까요? 꿈같은 일이 일어난 적은 있어요. 2012년 부산비엔날레에서 독일에서 온 감독이 많은 지원을 해 주었어요. 저는 합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해고 노동자들과 퍼포먼스를 했고, 인천의 콜트악기 노동자, 약손을가진사람들 등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 준 것도 사회적 예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 감독 덕분이었지요. 사회적 예술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지원이 대부분 2, 3년이면 끝나요. 5~10년 큰 부분을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현식 메세나 지원사업 같은 게 있지만 공공자원 말고 민간자원들과 더 많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립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회계보고서 정산할 때 전문가 한 명을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 달, 두 달 정산에 매달리는 시간 낭비가 너무 소모적이에요.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덜 신경 쓰게 지원해 주시면 문화예술 활동에 더 많은 집중력 향상을 가져올 것 같아요.

성효숙 정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연말마다 내가 이 시간에 창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유능한 창작자를 돈 때문에 힘들게 하니 너무 괴로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산 담당자를 한 명 붙여 주거나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지원만 해 주는 등의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준 사회적 예술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재단이라는 '공공의 특수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디자인재단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서울문화재단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잘 구축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년간 지원사업' 같은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년간 지원이 구체화, 현실화된다면 사회적 이슈와 결부시켜서 더 나은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적 예술이란 결과치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진 사회적 예술에서 사회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지역은 구체적이에요. 지역문화팀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때 지원제도나 정책, 예술위원회나 재단의 지원성과 작품, 공연 횟수, 유료객석 점유율, 방문객수 등 정량적 수치로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 예술의 평가지표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 평가할 것인가, 뭘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 커뮤니티의 증가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시민 활동가의 참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연구 성과물 등 다른 방식의 평가지표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뭘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작은 커뮤니티 페스티벌 지원, 사회적 예술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지원, 매개인력으로서의 주체 인력, 사회적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양성 지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예술 활동 공모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예술에서 공공지원을 하는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예술을 범주에 포함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역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다년간 지원은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예술축제지원〉에서 심사하는데 3년간 지원을 평가해요. 이런 것처럼 공격적인 실험을 하면 정부, 문체부에서 보고 표방할 것 같습니다.

김월식 가능한 지원에 동의하고, 평가지표 방식 설계에도 동의해요. 결국 지역문화팀이 일반적으로 너무 문화복지적인 측면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폄하하는 건 아니고 훨씬 다양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재단과 단체가 어떻게 서로 신뢰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영국 모 프로그램에서 예술가들 인터뷰를 했는데, 예술가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가짜 같아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 창작과 개인 작업을 할 때 자긍심과 명예를 지켜 주고 예산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피드백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건 우리도 다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대 우리는 왜 지원받는 예술가가 행복하지 않은가.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평가 방식에 예산이 많지 않고 민원을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구조 속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 면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건 예산이 아니에요. 저를 신나게 해 주는 실무자는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죠.

이재준 선정된 것 자체가 명예, 영광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니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김월식 예술가들을 명예롭게 하는 지원방식이 필요하죠.

안영노 오늘 원탁은 중량급 모임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걱정했는데, 제가 느낀 건 영감과 통찰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으면 좋은지, 재단이 어떻게 바뀌면 좋은지, 선생님들이 서울문화재단에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이나 절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이런 지원제도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면 내가 지원할 수 있나? 내가 하는 게 사회적 예술인가? 고민하게 돼요. 서로 좁혀 가는 과정이 필수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나 예술단체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서로 찾아가는 과정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으니 지원서를 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갖는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만드는,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드러내야 해요. 예산 지원해 주고 끝났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산보다 큰 간접지원과 활동이 필요해요. 그럴 만한 역량과 시간, 관심이 없기에 더 필요한 간접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배려, 관심, 촘촘한 컨설팅과 진정성 있는 평가. 지원제도 하나가 정착되기 위해 누군가 깊이 고민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서울시에서 축제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한 이유는 그 돈으로 다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4년 동안 진정성 있는 평가와 컨설팅이 있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 노력을 기울여 주는 전문가가 없어요.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자라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길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준 지역문화팀에서 왜 사회적 예술을 이야기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지역과 사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이 가진 특수성, '어떻게'와 '무엇을'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문화팀이 고민할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보편성, 특수성을 끌어낸 일들이 많아요. 보통의 프로세스는 사회적 이야기를 할 때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보편성을 근거로 특수성을 얘기해요. 방향의 전환점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어요. 서울이 갖는 특수성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편성을 띨 만한 것들이 있어요. 특수성의 가치를 찾아야 해요.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포커싱인 거죠.

정현식 서울시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금이 CSR과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과 매칭하면서 후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제안할 창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받은 프로젝트들을 일정 기간 컨설팅 또는 자문 등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검증되면, 또 지원의 형태가 아닌 후원의 형태라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들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해요.

성효숙 그룹과 그룹의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예컨대 예술과 노동단체, 사회단체, 인문학, 자연과학…… 등등 융합적인 발상을 위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룹 지원이 필요해요. 유능한 창작자를 돈 때문에 힘들게 하니 너무 괴로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금 신청을 포기한답니다.

홍주석 재단 입장에서 예술가들의 지원서를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추상적 용어가 많아요. 명확하게 표현되고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원서를 받을 때 힘들면 본인들의 활동이 지역문화와 사회에 가치창출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 툴, 도구를 만들어 정량적 제도로 평가하여 전달하면 편할 것 같아요. 예술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마케팅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팀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어 실제로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질문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요?
— 사회적 예술의 개념들 중 지원과 정책에 도입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윤성진 커뮤니티 페스티벌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축제 말고 작은 축제학교가 그런 것인데요. 축제 지원 방식에는 자원개발,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 맺고 드러내는 전시, 공연 프로젝트 형식을 만들어 지속화,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민과 장기적인 커뮤니티, 페스티벌 매개자 양성 작업을 할 수 있으면 6개월은 볼 수 있어요. 커뮤니티 페스티벌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작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5년만 지원해 주어도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홍주석 커뮤니티 기반이 충분히 필요해요. 더 활발히 되려면 기획자가 볼륨을 키웠을 때 새로운 축제를 만들지 말고 그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1~3년 차에는 축제 안정화, 3~4년 차에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5년 차 이후에는 기업이나 재단이 구입해 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기획자를 양성하는 생태계 생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축제 만드는 비용만 줄여도 가능하죠.

김월식 저는 대한민국 지역축제가 재미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 이전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과 성찰 말이죠. 저희 동네 '현대지동슈퍼'는 30년째 한 자리에 있고 옆은 '서울목욕탕'이에요. 지동은 '서울'과 '현대'로 봤을 때, 지역의 욕망이 보여요. 지역을 새롭게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원방식이 필요해요. 예술가들이 다르게 본다는 것이 중요하죠. 삶, 다양성, 문화다양성, 접근 다양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효숙 지금까지 도입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소통미술, 그리고 심리사회적 지지로서의 예술치유. 가령 현 자본주의 사회는 치유를 권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의 변화와 함께 가야 해요. 그중에서 저는 소통미술, 심리사회적 지지로서의 예술치유를 말씀드렸어요. 축제와 연결되는 한 사례로, 여성노동자와 함께한 사례가 있는데요. 평화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그룹,

예를 들어 노동, 환경, 장애, 여성, 빈민, 주민 등의 그룹들과 심리적 활동을 몇 회씩 진행한 후에 평화축제를 연결했어요. 그 과정 속의 결과물로 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 지역의 단체들을 연결해 주고 단체 내부 분들과도 연결해 주었어요.
두 번째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한 것인데, 여성들의 정책에 대해 부서별로 심리적인 것을 나누고 공동 걸개를 그린 후 시민들과도 함께 나누었어요. 걸개가 매개가 된 것이지요. 콜트콜텍에서도 협업, 소통미술을 통한 작업들을 했고 합법, 비합법을 넘나드는 작업을 했고요. 예술가로서 저도 성취감을 느꼈어요. 제가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후로도 하고 싶은 심리사회적 지지와 연결된 사회적 예술을 펼쳐 가고 싶어요.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얘기해 주셨는데 긴급한 사항을 위해 상시 지원할 기금이 있으면 합니다.

정현식 예술가, 문화기획자, 관, 중간지원조직 등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표현하는 언어의 방식이 달라요. 특히 관의 언어는 민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이 중간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 사례를 보고 빈 공간에서 전시 활동하는 대학생 그룹이나 스타트업 그룹에서 종종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재단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 예술가 집단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확장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이재준 서울의 문제를 찾는 것보다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서울문화재단이란 곳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랜 시간 잘 다듬어 온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동안 "모든 것이 문제야"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의 문제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이제는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관심, 무표정한 서울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고 즐거울 수 있는 서울을 찾는 것이 서울문화재단의 일인 것 같아요. 재단의 일은 무엇보다 그 주체가 될 주인공, 그 주인공들에게 신뢰와 자긍심을 구축하는 작업이 아닐까요. 아주 작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술가들이 예술가적 시점으로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예술가만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이 존재해요. 10년 동안 내 동네에서 시각을 끌어내는 것은 누구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산 자기 동네에 대한 얘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서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문제아'가 아닌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친구라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해요. 오히려 해외에서 서울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을 문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월식 10년 전 안산의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지도를 하나 그렸어요.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겨울이 너무 춥대요. 원곡동의 햇빛지도를 그렸는데, 이 길로 다니면 따뜻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을 읽고 사용하는 방식,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예술적, 일관적인 결과만이 아니도록 지원해 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안영노 군더더기 없는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 느낀 점을 장재환 팀장님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어제와 사뭇 다르네요.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어떤 지원사업, 파트너십을 바라볼 때 재단 직원들이 업무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재준 대표님 말처럼 문제점을 찾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 주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관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지워도 지원받는 분들을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즐거울 것 같고요. 재단 입사 전 지원사업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품고 재단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더 문제점만 찾고 있어요. 회계나 정산 문제 등 행정적 한계, 조직의 태생적 환경으로 인해 피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신뢰관계를 만들고 서로 소통, 공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4. 라운드테이블(4) 녹취록

회의명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구_라운드테이블(4)**	
일시	**2018.05.14.(월) 16:00~19:00**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4층**	
참석자 (총11명)	**참석자**	정문식(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황윤호(나인로드 대표)
		신현길(아트브릿지 대표)
		최규성(달꽃창작소 대표)
		홍보라(갤러리팩토리 대표)
	진행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한아타(작가)
	코디네이터	김성현
	서울문화재단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안영노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년 사업 이후에 이 원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프닝, 클로징 빼고 세 시간 중 두 시간은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작년에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끼리 토론하는 시간과 추가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 요약은 작년 원탁의 결과보고서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연구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정책을 잡는 데 가이드가 모호한 상황이에요. 이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올해 네 번 더 원탁을 마련했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관사업 구성'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역문화팀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단어를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할 건데요.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짧게 발언해 주시고 왜 그 단어가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정문식 저는 혁신이요. 예술을 비예술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황윤호 저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예술과 비예술 구분이 무의미하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다변화, 다양화로 사회적 실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현길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과정이 저희 활동과 제일 맞습니다. 기획자이다 보니 매개란 부분에 대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적합해 보이네요.

최규성 마음에 드는 단어를 여기에서 굳이 꼽자면, 여기서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경험, 학습을 통한 발견, 공감과 공유, 서로간의 대화, 상호학습 부분들이 좋았어요.

홍보라 굳이 꼽자면 사회적일 것 같아요. 개인의 발전이 중요해요. 일상창작으로서의 예술은 예술, 비예술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 구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의 부연 설명)

정문식 혁신은 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 맞닿아 있어요. 예술창작 활동은 인간의 지적 활동 중 최고 수준이죠. 그러한 에너지가 사회혁신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의 가치는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고 있어요. 경험이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 예술, 정치, 사회를 계속 분리해요.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체들이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 비예술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전업, 비전업의 구분이 무의미해요. 예술가들을 위한 구분과 경계인지, 오히려 예술가들의 사회적 고립을 위해 쓰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구분이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두 단어가 혼용되고 있어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방향과 예술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부분은 달라야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립하고 서로 연계되었을 때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윤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이에요. 여기서 예술이란 것을 떼어 낸다면, 이 부분에 대해 받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예술이라 본다면 어쩌면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구역을 정하는 행위는 예술이 행위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술의 구분이 없다면 예술을 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사회적 활동이라는 구분 안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프레임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촉진 때문일 것 같네요.

신현길 참여. 창신동에서 봉제하시는 분들과 작업이나 생활을 같이하다 보니 이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들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창신동에서의 활동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꼭대기 장터〉, 또 하나가 〈창신동 문화밥상〉인데요. 〈꼭대기 장터〉 같은 경우, 지역활동가가 이만큼 하니 보라는 식의 결과 위주이고요. 〈문화밥상〉은 준비 과정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술단체, 활동가들을 다시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속에서 화해 아닌 화해,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 참여 과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올해도 〈문화밥상〉을 하며 느낀 것이, 지역 주민들이나 봉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조차 참여시키는 것들이 바로 예술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개념, 활동 바탕이 아닐까. 실제로 제대로 된 민관거버넌스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시민, 주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었어요. 먼저 민관거버넌스를 말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규성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술의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경험과 사람을 겪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술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서 참여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 예술가들과 대화하며 함께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예술가들에 대한 역할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없어요. 일상적인 것들을 낯설어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술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충분히 개인 의지로 창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해요. 낯선 것을 자꾸 제공해야 해요. 처음에 낯선 것을 시도하면 이게 뭐냐고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생산한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예술을 공공이 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가 중요합니다. 좋은 창작 결과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하면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겁니다.

안영노 풍성한 의견들 나왔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인데요. 여기 나온 여러 단어 가운데 이 단어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는 홍보라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홍보라 다른 것보다 다양성이 중요해요. 다음 단계로는 다양한 성장 보장이지요. 정책은 한 방향이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수단이 되는 예술가'라는 표현을 우려하는데 예술창작에서 수단을 처음부터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

혁신을 하는 게 아닌 예술은 그저 예술이어야 해요. 순서가 바뀌는 게 맞아요. 작년에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 놀랐던 것은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예술 분야가 아닌 것의 기획과 실행에도 예술가들이 참여해요. 도시공원도 예술가를 위주로 기획하여 만들고,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6개 병원도 단순히 의료기관이 아니라 복합예술공간으로 기획합니다. 그중 몇 개는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기획을 맡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병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술가들을 활용해 내용을 채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콘셉트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규성 '구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홍보라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해요. 기존 프레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분'이라는 단어가 가장 불안정해 보여요.

신현길 '공진화'의 개념? 아무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힘들어요.

황윤호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는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드러나 있어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란 영역을 따로 떼어 내서 예술가, 비예술가 모두에게 어려워지는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예술가가 만든 예술품은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란 것인데, 접근하는 관찰자들이 촉진해 주는 역할인 거죠.

정문식 이런 연구가 시작되고 개념화되기 시작하면 보수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개념들로 채워 버리기 때문에 제도화, 구조화되어 버리죠. 그걸 넘어서려는 사회적 개입 활동, 사회적 예술, 예술이 가진 정의성 등 낯선 표현들을 통해 구조와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죠. '사회적 결속력', '건강과 웰빙' 등은 예전에 이미 어딘가에서 정책적으로 쓰였던 용어들이에요.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죠. 예술, 사회를 통합적으로 보기보다는 논쟁거리,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견고하게 생각한 걸 뒤집는 것이 예술이니까요.

안영노 이제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보라 올해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기간 한정으로 놀고 있어요. 2002년에 작은 비영리 전시 공간을 열고 2006년에 서촌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년에 15주년이 되었어요. 전시 공간 차제는 비영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컨설팅 회사를 함께 꾸려 대형전시 기획, 공공미술 기획 일과 정책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북유럽 국가에서 정부와 직접 일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 일을 시작한 건 (시카고시) 문화부에서 문화정책 공무원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공공미술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니 좀 더 개인적인 작고 사소한 예술이 병행되어야 오히려 공공성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공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면 의도는 좋아도 나중에 형태가 이상해지기 마련이라서요.

올해는 유연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 보려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창작 기획, 협업 베이스가 가능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운 좋게

디자이너, 편집자, 기획자 등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협업하면 좋겠다 해서 네 명의 여성이 운영할 수 있는 '팩토리2'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드는 전시는 관람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전시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최규성 용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 2013년부터 하고 있고요. 공동체 성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심형, 개방형, 지역 기반 대안학교로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중입니다. 주제는 '여행'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멘토 네트워크를 구상했어요. 멘토 선생님들과 미팅 프로젝트로 여행 기획 후 여행을 가는 거죠.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과 키트도 만들었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청소년으로 시작해 처음 만난 아이들이 이십 대를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상도 청소년에서 초기 청년으로 변경되었어요. 디자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면서 보니 청년 문제도 심각하더군요. 남산에서 저희가 했던 게 〈남산숲예술학교〉를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지속하기를 원했으나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과 연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민관거버넌스 교육도 만들어 〈용산혁신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청, 구청, 지역 기관장들과 지역모임을 가지며 지역 안에서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신현길 연극 단체 '아트브릿지'를 11년째 운영 중이고 주 수익원은 공연입니다. 2012년에 대학로에 있는 사무실과 연습실을 창신동으로 다 옮겼어요. 창신동에는 2012년에 주민들과 더불어 뭐든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주민자치형 도서관이에요.

창신동에 최초의 연극학교인 '조선배우학교'가 있었어요. '조선배우학교'를 만들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조선'이 너무 빨갛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지역 아이들과 연극, 뮤지컬, 봉제아트스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해요. 창신동에 와서는 주로 지출하는 형태죠. 지역의 주민센터 같은 곳에 나가면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요즘은 반가워해요. 서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 보면 다 어르신이에요. 막내가 육십 대예요. 육십 대 초반 분이 우리 죽고 나면 마을 일 누가 하느냐는 고민에 어르신들의 반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결국 마을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도 다음 세대 후배들은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할까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황윤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나인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다이닝의 툴을 사용합니다. 직장인 친구는 많은데 스스로 직장을 택한 친구가 적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맛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내가 선택한 회사를 다니고, 다른 걸 하더라도 응원받고 지지받기 위해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방문자 모두 자신의 삶을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이태원 우사단길, 〈우사단 데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일도 해요. 저희 자체도 두 명이 일하다 보니 협업에 대해 몰랐다가 발견해 나가는 〈모자이크 비즈니스 랩〉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 나가는'에서 파생된 이름의 홍우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창립했어요. 창립했을 때 문제의식이 이미 뒷북이었어요. 이미 홍대앞이 망해 가는 중이어서요. 홍대앞의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2014년에 시작해서 2015년부터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4년 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 개입, 제도적 개입. 2016년도 홍대앞 마포구청의 관광특구 지정계획에 반하는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못하게 막았어요.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들에게 홍대앞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뿌리고 답변을 받아 공개하기도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지속 가능성을 위해 플랫폼을 하나 열었어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 특구사업인 〈스타카토H〉인데, 올해 여러 가지 투어 워크숍과 문화예술 주체들을 지원 및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정도 큰 틀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합원은 총 120여 명이고요. 협동조합이라 공적사업의 40퍼센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올해 돈 되는 사업을 하고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내부적 화두예요.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문화예술 등 여러 가지 가치적 활동이 시작된 지 오래된 곳이 마포죠. 민간의 에너지를 융합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좀 실현하고 보여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는 중입니다.

질문2-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 또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황윤호 예전의 작가와 작품의 관계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였어요. 지금은 잘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객과 만나기 위한 협업이 필요해요. 관객들이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어려워하는 건 누드사진을 갑자기 보여 주면 놀라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다가가는 방식이 덩그러니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개구리 삶기와 같아요. 개구리를 찬물부터 넣고 삶으면 튀어나가지 않아요.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신현길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예술가를 활용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해요. 어설픈 활용이 예술, 예술가 주민 모두를 죽여요. 예를 들어, 예술교육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할

때 예술가도 제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주민들도 어설프게 맛보고 단체도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어설픈 정책보다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아니면 예술단체가 움직일 여지가 많은 활동에 말이지요. 거기에다 정산은 또 너무 까다로워서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제약이 많아요. 사전검열하는 기분마저 들죠. 여지를 주는 문화예술정책, 예술이 제대로 된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인 것 같아요.

최규성 '사회적 예술'은 아까 제가 '구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단어라고 말한 맥락의 연장선상이에요. '사회적 예술'이라는 단어에서 '적'이라는 구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이 되고, 사회적 예술이라는 부분에도 참여해야 하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잘 끼치려면 개인 자체가 예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님처럼 되는 프레임이 아니라 예술이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며들 수 있는 프레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술의 근본적인 성향, 근원 자체가 개인에게 잘 스며든다면 주관이나 생각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될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예술가처럼 살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라 키워드 몇 개로 이야기하면, '퍼블릭 엑세스', '공유제', '공동의 장'을 꼽고 싶어요.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막상 만들어도 모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것보다 실제로 공유할 '공동의 장'이 중요해요. 공동의 장, 공동의 경험이 중요한 거죠. 예술에 대해 흔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예술을 해야 한다로 잘못 귀결될 수 있죠. 그것이 프로파간다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관점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 외관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큰 글씨로 "Free and open to all"이라고 적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예술 작품뿐 아니라 도시, 건축, 놀이 등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고, 예술교육이라고 굳이 별도로 칭하지 않아도 무료로 입장하고 체험하고, 스스로 교육이 되는 방식을 테이트 모던이 가져가고 있어요. 내용을 대중적이라는 명목하에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즉 예술가나 기획자 스스로가 사람들이 이해할 폭을 스스로 상정하고 내용을 하향 지향하지 않고, 양질의 좋은 작업을 많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제공할 퍼블릭 엑세스(public access)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나 국가가 예술을 통해 시민에게 해 줄 역할 중 하나는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공동의 경험이 쌓이면 다양한 계층의 공유지대가 생겨요.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의 비근한 예가 런던의 미술관이에요. 적어도 미술관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운 작업들을 무료로 보는 것이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 주는, 퍼블릭 엑세스를 통해 공공의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문식 홍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북유럽 사례가 한국에서 어려운 이유는 미술과 사회 간의 장벽 때문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낮아요. 예술가란 사람들도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과연 한국 사회가 예술가들을 인식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주었냐는 거죠. 사회적 예술보다는 예술과 사회 등으로 규정해서 예술과 사회의 접촉, 실험적 성격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등으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일반사회, 예술영역이 분리되어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념을 통해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규성 '사회적 예술' 말고 '예술적 사회'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예술적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2-2.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신현길 주민참여 등에서 재단이 예술단체를 매개로 활용해요. 재단이 못하는 것들을 단체가 나서서 하는데, 예술단체들의 전반적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서울문화재단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인건비, 기획비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부터 깨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의 예술단체의 지속성이 높아지죠. 전국 7개 예술단체를 모아 '문화행'이란 단체를 만들었어요. 서울이 지방보다 더 열악해요. 지방에서 제대로 활동하면 인정받고, 사업하며 다양한 활동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서울은 경쟁력 때문인지 단체가 지속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이나 그저 알아서 하겠지 등의 자세가 오히려 활동의 폭을 제한해요. 서울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주민참여,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의 형편에 맞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최규성 지금의 지원사업은 정크푸드 같아요. 먹으면 당장 배부르지만 지속되면 영양실조가 오는. 운영해 보니 지원은 전체에 60~70퍼센트, 적으면 40~50퍼센트예요. 임팩트 투자,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작년부터 투자 개념을 가진 재단이나 비슷한 곳을 컨택하며 호흡을 맞춰 보니 색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의 지원 정책들이 세부적인 것에 비해 여기는 좀 더 조직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많이 파고들었어요. 잘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방향이 조직의 건전성을 만드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잘 되면 조직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들을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되었을 때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하고 환산하는 작업은 기관이 큰 틀을 갖고 모니터링 등을 측정하며 진행해야 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작동이 가능합니다.

홍보라 제일 중요한 건 프로덕션 베이스의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커리어 단계별, 파일럿 지원, 연구 지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지원을 받는다 해도 몇 개월 사이에 계획하고 창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긴 호흡으로 지원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해요. 지원 시기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정도 유연하게 했으면 해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 시기인 연말이 아니고 연중에 프로젝트가 개발되기도 하니까요. 창작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연말에만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연성, 시기의 다양성, 단체 커리어별 지원 등 무조건 다양화를 추구해야 해요.

정문식 '사회적 예술'이 아니라 '예술적 사회'라는 개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과 함께하는 서울'이 더 임팩트 있을 것 같아요. 문체부 복지사업인〈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2년 하고 든 생각은 이것이 일자리 사업이 아닌데 일자리 같다는 거예요. 현장 예술가들은 그저 단기 알바로 생각해요. 초반에 워크숍 가 보면 재단에서 아무리 설명해 봤자 참여 기관과 예술가가 이해를 못 해요. 여러 단계에서 미완의 프로젝트였어요. 재미없어서 올해는 지원을 안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큰 틀에서 예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술, 사회 관계를 해결하는 장이 없었어요. 문체부 등 공공기관이 세부적 사업보다 큰 틀에서 생각하는 자리나 장을 마련해야 돼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1년 동안 현장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간담회를 통해 1000명을 만나 서울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인 도시로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재단에서 고민하는 게 세부적인 부분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책화되어서 나온다면 서울에 효용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될 것 같아요.

황윤호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도 자기부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해요. 지원금이 1년 나가고, 2년 나가고, 발전은 안 하는데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고, 재단도 단체가 바뀌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한 단체가 망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자기부정이 되는 거예요. 심사 인터뷰로 뽑았는데, 끊어서 망하면 재단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억지로 살릴 것이 아니라 망할 건 망하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야 해요. 재단이나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부정을 해야 하니 어려울 거예요. 단체가 망했다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인정하는 구조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단에 꼭 필요해요.

신현길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프로젝트〉를 보고 발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너무 많이 받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해요. 컨설팅에 지쳤어요. 일반적 컨설팅은 단체에 도움이 안 돼요. 컨설팅을 받다 보면 받는 사업팀이 다 비슷해져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자생력을 한층 더 높이는 단계가 필요해요. 더불어 타 단체와의 연계협력사업 또한 필요해요. 연계협력사업을 높여 주는 지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단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단체와 여타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를 다양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최규성 보릿고개 커버해 주실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하던 일이 멈춰지는 봄, 가을 공백기에 말이지요. 이어지지 않으면 참여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깨져 버려요. 후원자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후폭풍이 확실히 존재해요. 올해는 선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첫 번째 지원사업이 지난주에 되었어요. 균형 있게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길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7~8년째 해왔어요. 해결되지 않고, 늘 하는 방식이 금융기관을 소개해 줘요. 2~3월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우울해져요. 대출 갚으라고요. 싸게 해 주면 그나마 행복한 거죠. 사회연대은행 등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2~3월에 대출해 주는 곳을 찾을 수 있지만 예술 쪽은 없어요. 재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홍보라 공적자금을 썼을 때 증빙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예요.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 시기를 다양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화를 못 하는 이유는 지원 서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쓰는 예술가나 단체의 복잡함이 아니라 기관 사람들 처리의 복잡함 때문이에요. 다양한 해외 예술지원단체와 한국과 다른 점은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이 최고예요.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다양성 면에서도 강합니다. 이미 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너무 전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지원을 할 사람이나 단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미 해외 레퍼런스를 통해 이런 지원을 해주자고 미리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획자나 예술가가 학습을 해야 돼요. 지원 내용은 다양한데 지원 시기를 한정한 것이 아쉽습니다. 또 여전히 서류에 실제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의 내용이 너무 많고요. 뻔히 알고 있지만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관행적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면 1년에 세 번 정도의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하고 한꺼번에 발표하는 데서 발생하는 체증을 줄일 수 있어요.

정문식 사회적 예술을 예술적 실험을 통한 사회 목적의 접촉과 연결로 생각해요.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예술가들이 어떻게 체감하느냐, 인식하느냐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처럼 예술가들과 접촉면이 넓은 지역재단의

경우 큰 틀에서 거버넌스의 확대가 필요해요. 서울문화재단이 많은 것을 열어 두고 실직적인 장을 열어 두었을 때, 예술가들이 주체적 경험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정책적 시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정책에 대해 여러 현장에서 정책이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의 여러 단계보다 정책이 앞서가요.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 영역 차원의 거버넌스 확대를 기획해 볼 수 있어요.

황윤호 긴 호흡의 평가지표와 성과측정. 농번기, 농한기, 회계년도와 똑같이 사업을 끝낼 수 없어요. 평가지표 자체가 결과 중심이라 그런 것 같아요. 1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2~3년의 중간 평가가 들어가면 회계년도는 필요치 않아요. 현재 1년짜리 사업이 1, 2, 3년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볼 수 있는 연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30명이 들어오는 활동주체, 역량사업이 필요하면 사례 연구는 본인들이 해요. 30명이 와서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한다면 매년 다를 거예요. 긴 호흡의 평가지표와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영노 다시 질문1로 돌아가 볼게요. 간단하게 메모해 주세요.

질문1의 추가질문1.

사회적 예술에 해당하는 활동을 자신의 방식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거나, 종류를 묶어 크게 유형화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추가질문2.

만일 사회적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짜고 공공영역에서 지원한다면, 반영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나 유형, 기준 등을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문식 제가 홍우주를 통해 하고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라 하면 이윤을 창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파는 걸 생각하는데, 비즈니스의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죠. 작년에 영국에 연수를 갔을 때 모 단체가 말하기를, 지원금 많이 따 내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잘 포장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를 통한 민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실행력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사업들을 민간에 풀어야 해요. 민간이 경험하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캬바레〉 같은 걸 보면서 그 장소를 재단이 아닌 민간에 열어 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던 서커스는 중요한 콘텐츠예요. 민간이 실험하고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예술의 개념, 유형, 사회 변화를 통해 필요한 게 많아요. 가치들이 같이 섞여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드는 걸 다른 영역에 있는 주체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홍보라 정부 기관이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민간이 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니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민간예술단체에 2~3년 정도 제안하자니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요. 사실 민간단체가 몇 년 운영한다 해서 딱히 대단한 권리를 갖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운영해 주면 감사한 일이죠.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신뢰해 주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향이죠. 신뢰하지 않고 문제를 찾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엄청난 서류와 시간 낭비 등등 기회비용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 비용을 창작 콘텐츠를 만드는 플러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미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이나 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전형적인 시각, 공연예술 등을 나누지 않는 큰 단위의 플랫폼, 예술 단체의 공동창작, 공동기획, 공동으로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에요. 프로덕션을 위한 지원으로 나눠서 공간 지원, 전시, 운영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요. 프로덕션의 지원은 창작과는 또 달라요. 창작과 운영은 분리해야 돼요. 개인 창작의 경우 개인 창작을 기획자, 예술 등으로 분리하지 않고 파일럿, 리서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투 트랙으로 가능해요. 그래야 바로 짧은 시간에 억지로 생산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일례로 올해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사업〉의 예술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하는 전시가 많았어요.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요. 얼마 없는 시간 안에 해결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니 전시 경험이 없는 작가가 자비로 공간을 빌려서 결국에는 창작비가 아니게 되고, 비용의 끝에는 결국 창작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지불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걸 창작하는 창작비로 가는 것인가, 발표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부동산에 지원금이 투여되는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파일럿도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실제 프로덕션 이전에 1년 동안 해 보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접어야 해요. 그런데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방식의 지원은 실패도 성공도 아닌, 겉으로는 성공인 척 끝내야 하는 거죠. 발표가 아닌 창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최규성 '예술적 사회'라는 개념에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앞서 공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용산전자상가에 앉아 동료와 여기는 용도가 폐기되어 가고 전환되어 가는 곳인데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공간을 우리 같은 단체가 잘 활용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산은 국가정책에 의해 뜯겨져 나간 곳이에요. 정체성이 모호해요. 지역이 앞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잘 전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공간도 지역의 비영리단체들과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게 활용할 정책을 알아봤으면 해요.

신현길 지원정책의 역설이죠. 지역 커뮤니티 활발해지라고 서울문화재단이나 마을공동제지원센터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 줘요. 한 가지 재미난 사례로, 〈창신마을넷〉이라고 창신동에는 마을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 실행한 단체가 많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며 시작된 해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창신마을넷〉에 보통 12명이 모이는데 20~3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본격화된 후에는 4~5명만 모이는데 그쳤어요. 다들 지원사업을 하느라 바빠 마을넷 활동에 못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로 지원사업이 끝나니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원사업을 소액다건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요. 오히려 단체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원사업을 바꿔야 해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많지만 홍보라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제 생각은 자유제안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자유형, 다년간 지원사업 많이 해 봤다고 하시지만 좀 자유롭게 풀어 주셨으면 해요. 이 지역에서 3년간 이만큼 바꾸겠다, 실험해 보겠다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몇 개월 하는 것은 숨차서 못 따라갈 지경이에요.

황윤호 재단이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무엇을 할 거냐고 묻는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라운드테이블도 '예술의 사회적 개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년에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야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고, 몇 년 차가 되면 프로세스가 그들에게서 나와요. 재단이 힘들게 지원사업을 만들고 욕먹을 바에는 밑에서부터 만들게 해서 다듬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런 식의 보톰업(bottom-up) 방식으로 의제, 아젠다가 나오면 꼭 전문가를 모셔서 정책화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의도를 갖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돼요. 전문가들의 정책적 언어로 해석하면 원하던 방향이 아닌 결과물이 도출되거든요. 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게 하면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은 알아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부가질문.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가치를 확산하고,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능한 현장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민간의 자생적인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한 사회적 효용(임팩트)을 더 잘 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이 어떻게 벌어져야 하는지 당부해 주세요.

신현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살아남고 지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청년 단체가 지역에 있는데, 몇 년 못 있다가 지역의 장벽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요. 지역의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금을 받아 먹고 떠난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와 재단, 서울을 바꾸고 싶다면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단체들은 정책 지원 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외부에서 공연 안 하고 서울에만 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지방 단체는 지방에서 열심히해서 인정받으면 먹고살 수 있지만 서울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황윤호 읽자마자 어려워요. 이유는 재단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재단이 두목 같았으면 좋겠어요. 밑에 애들 써 먹을 수 있는. 원하는 게 많고 어려운 거라면 잘할 수 있는 단체들을 찾아내 거기 맡길 필요가 있어요. 잘 지켜보고 유착되지 않게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재단에서 다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정문식 내외부 간 신뢰가 없는 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러한 개념 및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장성이 더욱 중요한 거죠. 지원사업을 만들 때 최대한 현장 위주로 해야 돼요. 현장 위주, 실행 위주. 신현길 대표님 의견과 동일해요. 멘토링, 컨설팅이 너무 많아지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최대한 실행 위주로 해 주셨으면 해요.

홍보라 하나의 예술지원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걸 레퍼런스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해외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으로 해요. 대신 적은 돈을 주죠. 간단하게 써야 해요. 다양한 걸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자기검열을 통해 이 지원에는 이런 것이 먹히겠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양한 작업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비록 레퍼런스에 없는 형식의 예술 창작이라도 그것이 가진 매력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체나 예술가가 지원을 해도 심사위원의 역량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폭넓은 이해와 섬세함이 필요해요. 전문가 풀의 매트릭스화가 필요합니다.

최규성 만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청소년기라는 게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걸요. 나는 저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자주 생각해요. 서울문화재단 같은 곳이 가져야 할 입장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 것 같아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지만 여러 가능성을 보듬어 주고, 각자의 호흡에 맞추어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섬세함 등 여러 방면이 필요한 문제겠죠.

안영노 오늘은 유난히 정책 위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책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해 봤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 풍부하게 논의했어요. 재단으로서는 작년 원탁에 세 가지 요청에 따라 실천 중이에요. 지금 한 말씀도 재단이 잘 적용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성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생 재단이니 문제를 걷어내고 착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3. 후속 라운드테이블 사전 안내문

라운드테이블 사전 안내문

예술의 사회적 활동(실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관한 원탁이 열립니다. 2017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연구〉(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후속 연구의 일환입니다.

당시 예술의 사회적 활동(실천)과 관련된 현장 예술가, 기획자 등 100여 사례 이상을 찾아내고 이 중 50여 명이 참석하여 총 10회, 예술현장의 변화 양상을 알기 위한 원탁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연구의 집단면접 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원탁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안이 나왔습니다:

1.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은 현장 이야기를 듣는 원탁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2. 현장의 예술가, 활동가들이 서로 문제의식을 교감하는 이런 원탁을 계속 열어 주기 바란다.
3. 서울문화재단이 아니라 현장의 예술가, 기획자들이 당사자 문제를 공유하는 원탁을 직접 열게 해 주기 바란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후속연구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열린 정의, 핵심 개념들, 지원사업에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예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후속원탁을 열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후속원탁은 2017년 원탁에 참여한 50여 명의 예술가, 활동가들 중에서 초청하고, 현장의 선배들, 2017년도 관련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위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거친 현장 예술단체와 문화기획자들, 그리고 이러한 예술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2018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추천 예술가들 중에서 선정하여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총 4회 진행되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원탁 중 하루 오셔서, 여러분의 현장이야기와 함께 지금 우리사회의 예술현장에서 발전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발송해 드린 참고자료의 '사회적 예술',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가볍게 읽어보시고, 오실 때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요소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진흥제도부터 지원사업까지 포괄하여 말씀해 주시되,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

둘째,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참고1_ 원탁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한 회에 6인씩 모셔 이야기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총 세 시간 진행합니다.
- ○ 첫 두 시간은 촉진역(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의 진행으로 질문에 돌아가며 짧게 답변하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집단 면접/토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하겠습니다.
- ○ 그 후 한 시간은 자유토의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후속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록역(한아타 드림워커 대표)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녹음과 기록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정책의 취지로 여러분이 원탁에서 나눈 소중한 이야기 중 일부를 사후 간단한 SNS 홍보물로 만들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_ 원탁 퍼실리테이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집단면접/토의**
  - — 두 시간 진행을 맡은 촉진역의 구조화된 면접 질문지에 따라 돌아가면서 3분 이내로 짧게 답변합니다.
  - —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빠르게 진행합니다.
  - —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반응 중 호응의 몸짓, 감탄사, 맞장구 등 지지의 반응을 할 수는 있으나 의견이 반대일 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 — 전체 토의에 꼭 필요한 경우, 찬성과 지지뿐 아니라 이견과 반대 등 다른 사람의 발언에 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한 바퀴 다 돈 후 견해표시 발언을 합니다.
  - — 상호간 자유토의는 두 시간을 마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 ○ **자유토의**
  - — 자유토의는 한 시간 정도 열리며 촉진역은 구조화된 면접 질문을 던지는 대신 토의를 촉진할 수 있는 진행사회를 합니다.
  - — 참여자들에 대한 지지의견 외에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 — 경우에 따라 토의(논의) 진행 대신, 쟁점을 두고 찬반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토론(논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촉진역의 질문에 대한 발언 중에서 특별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발언할 경우 대상을 분명히 밝힙니다.

— 마찬가지로, 발언 중 원탁에 참여한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한 의견인 경우 가능한 한 그 대상을 밝힙니다.

참고3_ 원탁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닝(15분)**

— (진행자) 후속연구와 후속원탁의 배경 설명, 오늘 원탁의 개요 및 원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확인

— (재단) 담당자는 간단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오늘 모임의 취지 설명 5분, 후속연구를 원탁으로 한 배경을 브리핑

— (진행자) 원탁의 진행 절차와 대화방식, 일정 진행에 대해 공지

○ **집단면접/토의(100분)**

—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한 것

— 질문2. 정책과 지원에 도입해야 할 것

— 질문3.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적용할 만한 것

— 부가질문.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과 지원에 도입 가능한 것

○ **자유토의(50분)**

— 참여자들의 질의 및 상호응답 시간

— 보충의견 발언 시간(필요 시 토의 대신 토론 방식으로 전환)

—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 시간

○ **클로징(15분)**

— (재단) 원탁 소감 피력. 필요 시 원탁 의견 중 반영할 수 있는 것, 후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 향후 도입 가능성이 큰 것 등에 대해 짧게 언급

— (진행자) 진행결과 중 참여자의 의미 있는 발언 확인 후 정리

— (재단) 향후 보고서 발간 시기, 2018년 전개되는 사회적 예술 사업 등 관련사항 보고 후 협조사항을 전달

부록4. 후속 라운드테이블 질문지

4-1. 후속 라운드테이블 질문지(1)

○ **집단 면접/토의**

— 질문의 기본구조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꼈나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 진행 단계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한 것

⇓

질문2.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해야 할 지원과 정책

— 구체적으로 현장과 실제적 활동에 필요한 것들

— 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적용해야 할 것들

⇓

부가질문.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 / 지원 정책에 도입 가능한 것

○ **질문**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자료를 보시고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2분 이내로 형식 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2. 원탁과 연구결과에서 나온 결론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3.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제고, 정책적 확산, 지원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적절한 명칭과 설명, 열린 정의와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 개념 등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1.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공공영역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현장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 주세요.
   -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활동 중 특히 어떤 경우에 지원해야 할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2.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당부사항을 밝혀 주세요. 사회적 예술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밝혀 주세요.
   - 서울문화재단의 지금 지원방식에서 개선사항을 짧고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3. 예술의 사회적 실천 현장에 있는 예술가 혹은 기획자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진흥제도부터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지원정책 등에 적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예술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였으면 알려 주세요.
2. 사회적 예술에 해당하는 활동을 자신의 방식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거나 종류를 묶어 크게 유형화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3. 만일 사회적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짜고 공공영역에서 지원할 때를 고려할 때 반영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나 유형이 있으면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부가질문

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들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용어, 영역과 범주 중에서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 예술의 이러한 개념들과 유형 분류 중에서 정책과 지원에 도입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2.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예술의 기능이나 예술을 즐기고 누리는 시민사회를 위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 사회의 고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예술현장과 예술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3.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가치를 확산하고,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능한 현장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민간의 자생적인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해 사회적 효용(임팩트)을 더 잘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당부해 주세요.

○ 자유토의

1.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질문하시고 서로 응답을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2. 못다 한 보충의견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쟁점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실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3.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4-2. 후속 라운드테이블 질문지(2)

○ **집단 면접/토의**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자료를 보시고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2분 이내로 형식 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2. 지난 원탁과 연구결과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하나씩 더 이야기해 주세요.
3.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적절한 명칭과 설명을 달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 개념, 기준 등을 다시 한번 밝혀 주세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짜야 할까요?

1.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공공영역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까요?
   — 사회적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 현장활동에 지원해야 할까요?
2.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 사회적 예술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할 때 당부사항을 밝혀 주세요.
   — 지금 지원방식의 개선사항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3. 진흥제도부터 지원사업까지 포괄하여 현장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지원정책 등에 적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예술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였으면 알려 주세요.
2. 사회적 예술을 자신의 방식으로 범주화하거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3. 지원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나 유형, 기준이 있으면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부가질문**

1.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과 범주는 무엇일까요?
   — 사회적 예술의 개념들 중 실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 예술의 개념들 중 지원과 정책에 도입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사회의 고민을 드러내 주는 예술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3. 사회적 예술의 가치 확산, 홍보, 인재양성, 교류협력, 공동의 사회적 효용 도모 등을 도우려면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할까요?

○ **자유토의**

1.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질문하시고 서로 응답을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2. 못다 한 보충의견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쟁점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실 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3.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4-3. 후속 라운드테이블 질문지(3)

○ **집단 면접/토의**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자료를 보시고 사회적 예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2분 이내로 형식 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2.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적절한 명칭과 설명을 알려 주세요. 열린 정의를 시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 개념 등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질문2.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1.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2. 서울문화재단이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원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질문1. 사회적 예술의 개념 중 지원정책 등에 적용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1. 사회적 예술에 해당하는 활동을 자신의 방식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거나 종류를 묶어 크게 유형화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2. 만일 사회적 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짜고 공공영역에서 지원한다면 반영해야 할 사회적 예술의 개념이나 유형, 기준 등을 2분 이내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부가질문**

1. 사회적 예술과 관련된 가치를 확산하고,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능한 현장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민간의 자생적인 교류라든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사회적 효용을 더 잘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당부해 주세요.

○ **자유토의**

1. 기타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질문하시고 서로 응답을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2. 못다 한 보충의견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쟁점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실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3.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1분 정도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함께하신 분들

모더레이터 안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기록 한아타(드림워커 대표)
보고서 작성 안영노, 한아타
라운드테이블 참여

[1차]
김유진(독립기획자, 전 별일사무소 기획이사)
김현호(보스토크매거진 대표)
이동근(자바르떼 대표)
임경용(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정연재(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안상미(무궁무진스튜디오 공동대표)

[2차]
송상훈(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표)
신유아(문화연대 파견미술팀 활동가)
신윤예(OOO간 대표)
한광현(오늘공작소 선임연구원)
이로(유어마인드 대표)
전희재(세븐픽쳐스 대표)

[3차]
김월식(무늬만커뮤니티 디렉터)
성효숙(예술가, 문화예술행동)
윤성진(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이재준(리마크프레스 대표)
정현식(예술수색단 대표)

[4차]
신현길(아트브릿지 대표)
정문식(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최규성(달꽃창작소 대표)
홍보라(갤러리팩토리 대표)
황윤호(나인로드 대표)
홍주석(어반플레이 대표)

자문
강원재(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이(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김새미(17년 연구(교육치유) 보조연구원)
김진주(17년 연구(사회행동) 보조연구원/기초조사)
정수희(17년 연구(지역활동) 보조연구원)
최혁규(17년 연구(일상창작) 보조연구원/
설문조사·분석)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총괄 김홍남(지역문화본부장)
기획·운영 장재환(지역문화팀장), 김효진(지역문화팀)
코디네이터 김성현
편집 김효진(지역문화팀)
교열 이정화
디자인 낮인사
인쇄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ISBN 979-11-86489-19-2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OO OOO 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O OO

✳✳✳ ✳✳✳✳
✳ ✳✳✳ ✳✳ ✳✳
✳✳ ✳✳✳✳ ✳ ✳✳
✳✳✳✳ ✳✳

✳✳ ✳✳✳ ✳✳
✳✳✳ ✳✳✳✳
✳✳ ✳✳✳ ✳ ✳✳
✳✳✳ ✳✳

O OO OOO
OOOOO OO O
OOO OO OOOO
OO OOOO

✳ ✳✳✳✳ ✳✳
✳✳✳ ✳✳ ✳✳ ✳✳✳
✳✳✳ ✳ ✳✳
✳✳ ✳✳✳

✳✳ ✳ ✳✳
✳✳✳ ✳✳✳✳
✳✳✳ ✳✳
✳✳✳ ✳ ✳✳

OOOO OOO
OO O OOO OO
OO OOOO O
OOO OO

✳✳✳ ✳✳✳✳ ✳✳ ✳✳✳ ✳ ✳✳
✳✳✳ ✳✳ ✳✳✳ ✳✳✳✳ ✳✳
✳✳ ✳✳✳ ✳ ✳✳✳ ✳✳ ✳✳✳✳ ✳✳
✳✳ ✳✳✳ ✳ ✳✳